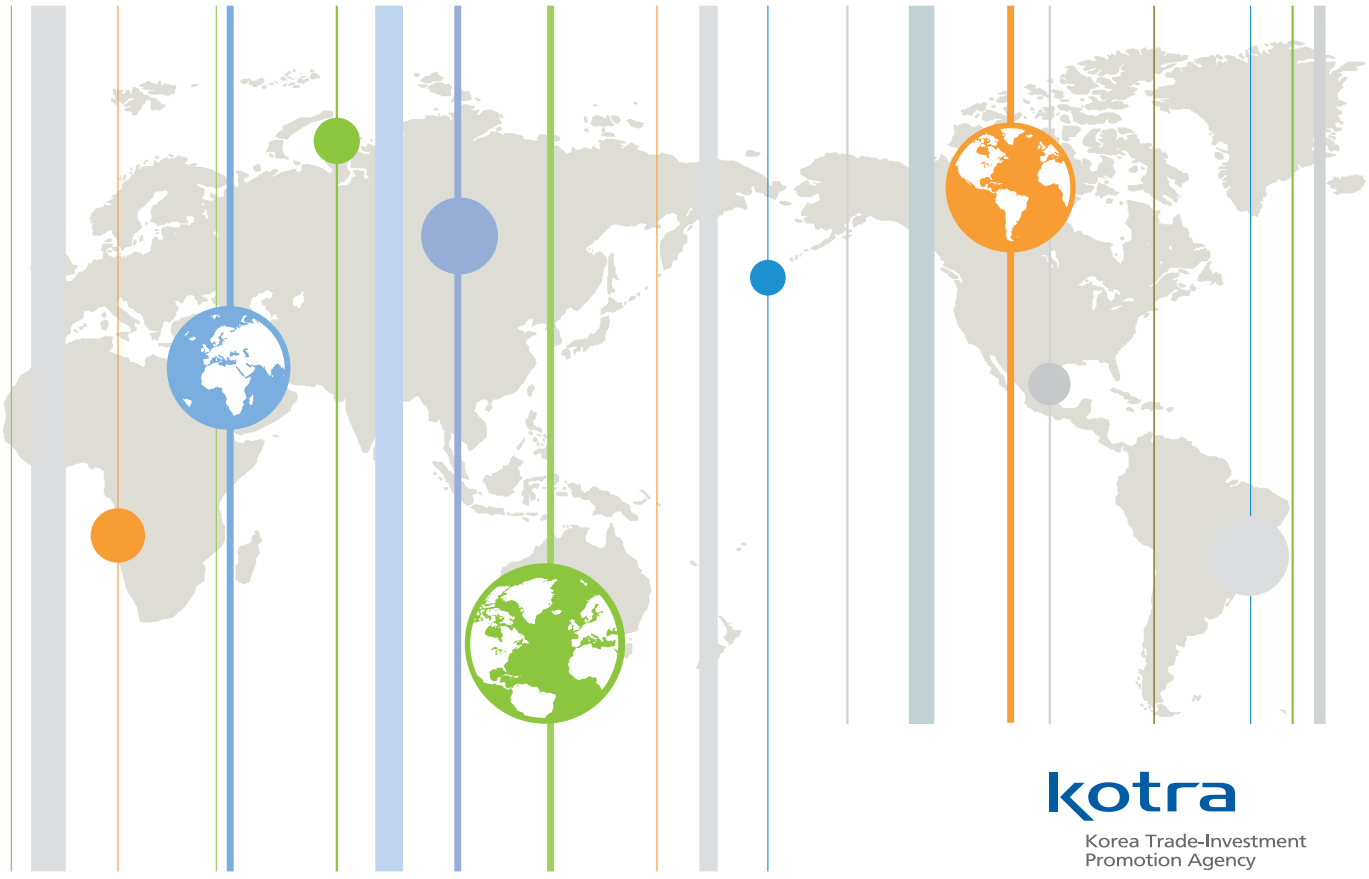
GMR

Global Market Report 14-037
2014.10.07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둔화 요인과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최근 한국 수출 현황과 문제점 / 3

3 1. 수출 현황과 중요성
5 2. 최근 수출부진 양상과 원인분석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별 분석 / 8

8 1. 세계경제와 교역

14 2. 주요 권역별 경제와 교역
14 (1) 개관
16 (2) 중국
18 (3) 미국
20 (4) 유럽
22 (5) 일본
25 (6) 아세안(ASEAN)
27 (7) 중남미
30 (8) 중동
32 (9) CIS
35 (10) 수출둔화의 지역별 특성 분석

37 3. 산업구조 변화
37 (1)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39 (2) 한국 수출의 산업별 구조변화와 최근 동향
44 (3) 대중 수출의 산업적 특성
49 (4) 장단기 수출 둔화 산업
50 (5)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53 4. 해외투자 진출
53 (1)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58 (2)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62 (3) 기업 내 무역 현황
64 (4) 시사점
66 5. 가격경쟁력 변화
66 (1) 제조비용 종합
74 (2) 시사점

Ⅲ. 시사점과 대응전략 / 75

75 1. 시사점
77 2. 대응전략

【별첨】 2012~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 / 80

그림 목차

<그림 1>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입과 경제성장률 현황 ---- 3
<그림 2> 2012년 주요국 수출 증가율(%) ---- 5
<그림 3> 2013년 주요국 수출 증가율(%) ---- 5
<그림 4> 2012년 주요국 수입 증가율(%) ---- 6
<그림 5> 2013년 주요국 수입 증가율(%) ---- 6
<그림 6> 한국의 수출 현황 ---- 7
<그림 7> 한국 경제성장률과 교역 추이 ---- 7
<그림 8>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전개과정 ---- 9
<그림 9>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성장률 비교 ---- 10
<그림 10> 세계와 한국의 교역 및 경제성장률 추이비교 ---- 11
<그림 11> 1990~2015년 세계무역 및 GDP 성장률 10년 이동평균값 추이 ---- 11
<그림 12> '12~'13년 권역별 수출증감액 현황 ---- 15
<그림 13> '12~'13년 국가별 수출증감액 현황 ---- 15
<그림 14> 중국 수입시장 동향 ---- 18
<그림 15> 미국 수입시장 동향 ---- 20
<그림 16> EU 수입시장 동향 ---- 22
<그림 17> 일본 수입시장 동향 ---- 23
<그림 18> 아세안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율 비교 ---- 27
<그림 19> 중남미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 증가율 비교 ---- 30
<그림 20> 중동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중동 수출 증가율 비교 ---- 32
<그림 21> CIS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CIS 수출 증가율 비교 ---- 35
<그림 22> 우리 수출의 성질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 39
<그림 23> 우리 수출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 41
<그림 24> 우리 수출의 세부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 43
<그림 25>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 53
<그림 26> 수출물가지수(2011년=100)의 추이 ---- 66
<그림 27> 제조비용 변화(2011년 대비 2013년 말 현재) ---- 68
<그림 28> 달러대비 주요국의 환율 변화 추이 ---- 69
<그림 29> 달러.엔화.위안화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 70
<그림 30> 달러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수출입증가율 추이 ---- 70

<그림 31> 엔화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증가율 추이 ---- 71
<그림 32> 위안화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증가율 추이 ---- 72
<그림 33> 원자재 가격(2005년=100) 변동 및 한국의 수출입 추이 ---- 73
<그림 34> 제조업 임금인상률과 한국 수출입 추이 ---- 74
<그림 35> 우리나라 수출의 단기적 호·부진 요인 ---- 76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입과 경제성장률 현황 ---- 3
<표 2> 항목별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 ---- 4
<표 3>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 4
<표 4> 2013년 세계 상품교역 주요 교역국 현황 ---- 5
<표 5> 우리나라 무역수지 동향 (억달러) ---- 6
<표 6> 세계 및 주요권역 경제성장률 현황 ---- 8
<표 7> 세계교역과 경제성장률 추이 ---- 10
<표 8> 한국의 주요권역별 수출현황 ---- 14
<표 9> 우리나라의 주요시장별 수출액 비중 추이 ---- 15
<표 10> 최근 2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감소 대상국 상위 10개국 ---- 16
<표 11> 한국의 對중국 수출 추이 ---- 17
<표 12> 중국의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 17
<표 13> 한국의 對미국 수출 추이 ---- 18
<표 14> 한-미 FTA 수혜 vs 비수혜 품목 對미국 수출 추이 ---- 19
<표 15> 주요 품목별 對미국 수출 증감액 ---- 19
<표 16> 미국의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 20
<표 17> 한국의 對EU 수출 추이 ---- 20
<표 18> 우리나라의 對EU 수출대금 유로화 결제 현황 ---- 21
<표 19> EU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 21
<표 20> 한국의 對일본 수출추이 ---- 22
<표 21> 일본의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 23
<표 22> 우리나라의 對일본 엔화 결제 현황 ---- 24
<표 23> 일본의 對한국 수입금액 증감(엔화 기준) ---- 24

<표 24>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추이 ---- 25
<표 25> 한국의 아세안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 25
<표 26> 한국의 아세안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 26
<표 27> 아세안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 26
<표 28>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 추이 ---- 28
<표 29>한국의 중남미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 28
<표 30> 한국의 중남미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 29
<표 31> 중남미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 29
<표 32> 한국의 對중동 수출 추이 ---- 30
<표 33> 한국의 중동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 31
<표 34> 한국의 중동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 31
<표 35> 중동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 32
<표 36> 한국의 對CIS 지역 수출 추이 ---- 33
<표 37> 한국의 CIS 최근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 33
<표 38> 한국의 CIS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 34
<표 39> CIS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 34
<표 40> 주요 지역별 수출·수입 증가율 차이 발생 원인 분석 ---- 36
<표 41> 한국 산업의 산출구조 변화 추이 ---- 37
<표 42> 한국 제조업의 산출구조 변화 추이 ---- 38
<표 43> 부품소재산업의 제조업에서의 위상 ---- 38
<표 44> 우리 수출의 성질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 39
<표 45> 우리 수출의 성질별 증가율 변화 추이(2005～2013) ---- 40
<표 46> 우리 수출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 40
<표 47> 우리 수출의 산업 대분류별 증가율 변화 추이(2005～2013) ---- 41
<표 48> 우리 수출의 세부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 42
<표 49> 주종 수출품목의 수출증감 현황 ---- 44
<표 50> 對중국 수출액 중 성질별 비중 변화 추이 ---- 45
<표 51> 한국의 對中 수출액 중 부품소재 비중변화 추이 ---- 46
<표 52>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추이 ---- 46
<표 53> 對중국 수출액 중 산업 대분류별 비중 변화 추이 ---- 47
<표 54> 세부 산업별 대 중국 수출액에서 각 항목 비중 변화 추이 ---- 48
<표 55> 장단기 수출 둔화 산업군 및 산업 ---- 49
<표 56>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 ---- 52
<표 57> 해외직접투자 비교 ---- 54

<표 58>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 55
<표 59> 주요 제조업종의 비중 추이 ---- 55
<표 60> 주요 국가 및 지역별 투자 비중 추이 ---- 56
<표 61> 기업규모별 투자 비중 추이 ---- 57
<표 62> 투자목적별 비중 추이 : 투자금액 기준 ---- 58
<표 63> 제조업 국제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59
<표 64> 주요 업종별 對현지법인 수출액/투자잔액 비율의 추이 ---- 60
<표 65> 주요 지역별 對현지법인 수출/투자잔액 비율의 추이 ---- 61
<표 66> 현지법인 매출입 추이 ---- 62
<표 67> 對현지법인 수출 비중 추이 ---- 63
<표 68> 일본 및 미국 현지법인 매출의 對총수출 비율 추이 ---- 64
<표 69> 제조업종의 비용 지수 변화 추이 ---- 67
<표 70> 원/달러 평균 환율 및 한국의 수출입 현황 ---- 70
<표 71> 원/100엔 평균환율 및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 현황 ---- 71
<표 72> 원/위안화 평균환율 및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현황 ---- 72
<표 73> 주요원자재 평균가격 추이 ---- 73
<표 74> 제조업 10인 이상 기업의 명목임금 인상률(%) ---- 74
<표 75> 우리나라 부문별 서비스수출 증가 추이 ---- 78
<표 76> 우리나라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 교역 비교(2012년 기준) ---- 79
<표 77> 향후 수출확대를 위한 대응전략 ---- 79

요 약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오던 수출은 지난 2012~2013년 감소 또는 한 자릿수 증가세로 점차 둔화 조짐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점검

○ **(세계경제와 교역)**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및 이에 따른 교역 감소는 우리나라 수출 둔화에 직접적 영향

○ **(주요 권역별 경제와 교역)**
- 글로벌 경제위기 진원지인 對선진국 수출 감소가 우리 수출 감소의 주요인
- 향후 우리 수출에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회복은 긍정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일본 엔저, 신흥국 금융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

○ **(산업구조 변화)**
- 최근 수출 둔화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수출 산업 구조변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기부진 등 단기적 영향이 더 큼
- 중국의 현지생산 확대와 같은 수출구조 변화의 조짐 등은 위협 요인

○ **(해외투자 진출)**
-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수출은 최근 증가 추세로, 특히 개도국과 성장 산업에서 수출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큼
- 지난 2년간 해외직접투자는 우리 수출에 안정성 측면에서 기여

○ **(가격경쟁력 변화)** 원화의 급격한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생산이 확대될 우려

□ 최근의 수출둔화는 세계경기 침체와 교역둔화 측면에서는 일시적이나, 산업구조 변화 및 해외 투자의 측면은 장기적인 주목 필요

- 이에 따라, 수출여건 변화에 따른 주력시장 관리, 금융불안국 모니터링, 해외투자와 수출간 선순환,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 등의 노력 필요

Ⅰ 최근 한국 수출 현황과 문제점

1. 수출 현황과 중요성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18%의 증가율로 매년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역 증가는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동조세를 보이며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표 1>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입과 경제성장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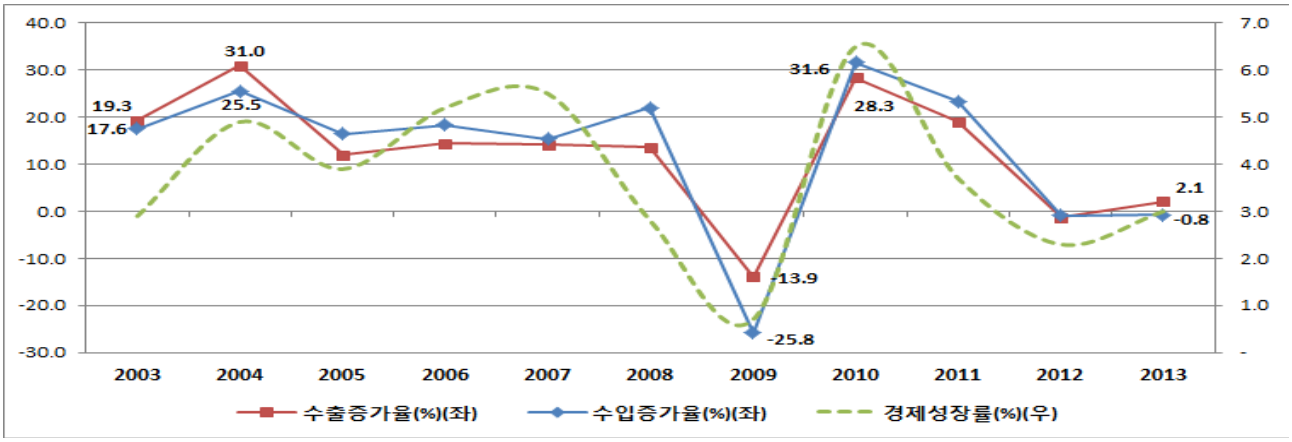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금액	325,465	371,489	422,007	363,534	466,384	555,214	547,870	559,632
	증가율	14.4	14.1	13.6	-13.9	28.3	19.0	-1.3	2.1
수입	금액	309,383	356,846	435,275	323,085	425,212	524,413	519,584	515,586
	증가율	18.4	15.3	22.0	-25.8	31.6	23.3	-0.9	-0.8
교역액	금액	634,848	728,335	857,282	686,619	891,596	1,079,627	1,067,454	1,075,218
	증가율	16.3	14.7	17.7	-19.9	29.9	21.1	-1.1	0.7
경제성장률		5.2	5.5	2.8	0.7	6.5	3.7	2.3	3.0

자료원 : 무역협회, 통계청

그러나 최근 2년(2012~2013년) 수출 증가세의 둔화는 예년의 추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성장의 적신호가 되고 있다. 우리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입과 경제성장률 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대만 해도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수출의 지속 확대로 2000년대에는 수출이 내수를 앞질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경제성장 기여율이 수출은 2000년 57.9%에서 2010년 91.3%로 33.4% 포인트 상승한 반면, 소비와 투자는 해당연도에 각각 18.9%, 15.6% 포인트 감소해 수출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다.

최근 수출 감소를 보였던 2012년과 2013년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수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내수 대비 상회 수치를 기록하여, 수출이 여전히 한국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2> 항목별 경제성장 기여율 추이

(단위 :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제성장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내수(소비)	80.4	76.9	62.3	74.8	43.4	48.3	62.9	47.1
- 내수(투자)	83.9	56.3	41.7	17.0	26.1	6.9	-6.3	41.2
- 수출	**7.9**	**46.7**	**57.9**	**76.1**	**91.3**	**203.1**	**121.8**	**80.9**

주 : 2001~2013년은 국민계정 2010년 기준, 1990~2000년은 국민계정 2005년 기준
자료원 : 한국은행 국민계정, 무역협회

수출의 확대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수 증가로 취업유발 효과도 가져왔다.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은 1990년 360만 명(총 취업자의 22.5%)에서 2012년 600만 명(총 취업자의 25.9%)으로 증가했다.

<표 3>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단위 : 백만명)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취업자수*	15.9	17.2	18.7	20.3	21.4	22.2	23.0
-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7.7	8.2	9.8	11.2	11.8	12.2	12.5
- 투자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4.6	5.1	4.3	4.5	4.3	4.4	4.5
-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3.6**	**3.9**	**4.6**	**4.6**	**5.2**	**5.6**	**6.0**

주 : 전업환산 기준으로 통계청 취업자수와 다소 상이
자료원 : 무역협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이와 같이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높아졌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만이 우리 경제성장 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수출둔화 현상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최근 수출부진 양상과 원인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3년 상품교역액 1조 700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2.9%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로써 한국은 2011년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3년까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2013년은 한국 교역이 둔화(0.7%)된 반면 홍콩이 호조(10.5%)를 보임에 따라 우리 교역순위는 2012년 8위에서 2013년 9위(수출 7위, 수입 9위)로 하락했다.

<표 4> 2013년 세계 상품교역 주요 교역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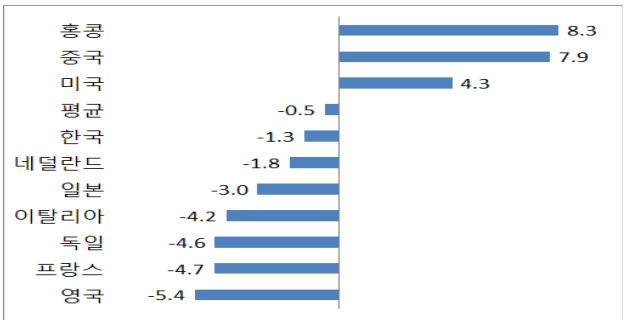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A)	수입액(B)	교역액 (A+B)	시장 점유율	'12년 순위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22,096	19,504	41,600	11.2	2위	7.6
2	미국	15,790	23,314	39,103	10.5	1위	0.7
3	독일	14,526	11,876	26,402	7.1	3위	2.7
4	일본	7,147	8,326	15,473	4.2	4위	-8.2
5	프랑스	5,796	6,805	12,601	3.4	6위	1.3
6	네덜란드	6,641	5,908	12,549	3.4	5위	0.8
7	영국	5,411	6,543	11,955	3.2	7위	2.7
8	홍콩	5,355	6,223	11,578	3.1	9위	10.5
9	**한국**	**5,596**	**5,156**	**10,752**	**2.9**	**8위**	**0.7**
10	이탈리아	5,176	4,773	9,949	2.7	10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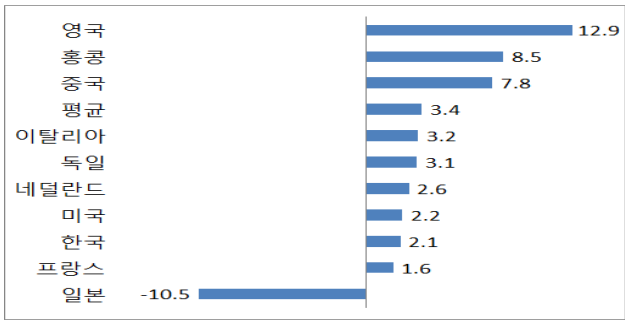
자료원 : WTO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교역국의 최근 수출 실적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1.3%)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과 일본의 상대적 부진으로 10개국 중 수출 증가 4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은 2.1%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수출 증가 순위는 8위로 하락했다.

<그림 2> 2012년 주요국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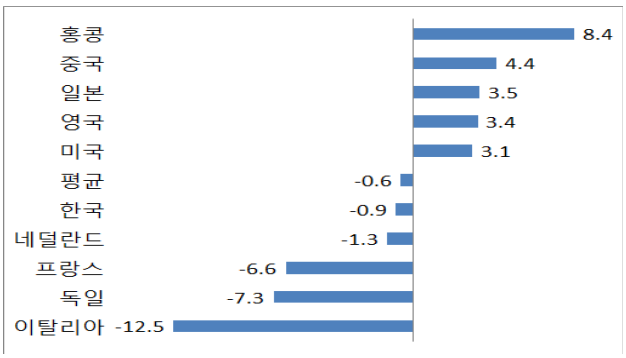
<그림 3> 2013년 주요국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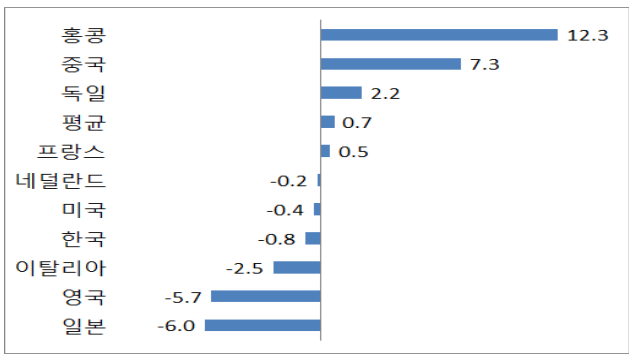
자료원 : WTA(World Trade Atlas)

우리 수입 또한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부진해지면서 2012~2013년 증가율이 각각 -0.9%, -0.8%로 감소했다. 하지만 수출 둔화보다 수입 둔화가 더 심해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2년 282.9억 달러에서 2013년 441.9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12년 주요국 수입 증가율(%)



<그림 5> 2013년 주요국 수입 증가율(%)



자료원 : WTA

<표 5> 우리나라 무역수지 동향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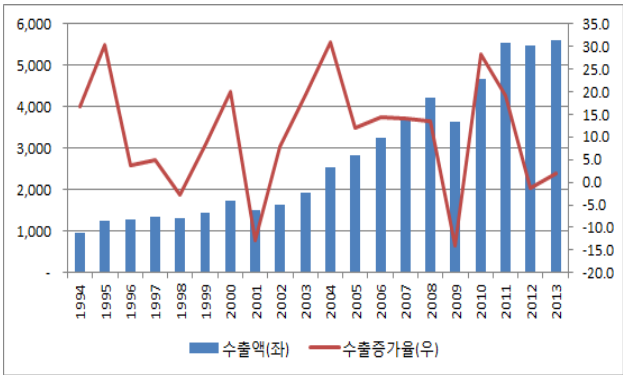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무역 수지	160.8	146.4	-132.7	404.5	411.7	308.0	282.9	**441.9**
월 평균 수지	13.4	12.2	-11.1	33.7	34.3	25.7	23.6	**36.8**

자료원 : 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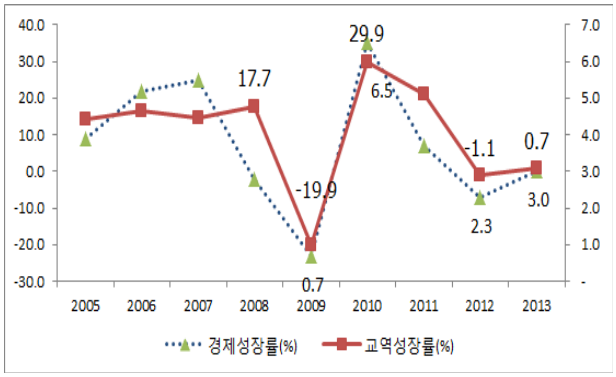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수출 확대로 세계 교역액 순위권에 든 가운데, 최근 2012~2013년 기간 중 수출 둔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출 증가율이 2012년 -1.3%, 2013년 2.1%로 과거의 높은 수출 성장률[1]에 비해 더디게 나타나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1) 2009년을 제외한 2003~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 평균 성장률은 19.0%에 달함

<그림 6> 한국의 수출 현황



<그림 7> 한국 경제성장률과 교역 추이



자료원 : 관세청, IMF

우리의 최근 수출 둔화에 대한 원인은 단순히 '세계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 교역의 감소'라고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이고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중장기적 추세인지에 대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최근 수출둔화의 원인을 △세계경제와 교역, △주요 권역별 경제와 교역, △산업구조 변화, △해외투자 진출, △가격경쟁력 총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별 분석

1. 세계 경제와 교역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수출둔화

세계경기 정체와 무역성장 둔화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시작됐고, 2012~2013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도 2010년 5.2%에서 2012년과 2013년 3.2%, 3.0%로 점차 하락하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표 6> 세계 및 주요권역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p)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	5.2(5.6)	3.9(-1.3)	3.2(-0.7)	3.0(-0.2)
선진국	3.0(6.4)	1.7(-1.3)	1.4(-0.3)	1.3(-0.1)
- EU	2.0(6.4)	1.7(-0.3)	-0.3(-2.0)	0.2(0.5)
- 미국	2.5(5.3)	1.8(-0.7)	2.8(1.0)	1.9(-0.9)
- 일본	4.7(10.2)	-0.5(-5.2)	1.4(1.9)	1.5(0.1)
신흥국	7.5(-4.4)	6.3(-1.2)	5.0(-1.3)	4.7(-0.3)
- 중국	10.4(1.2)	9.3(-1.1)	7.7(-1.6)	7.7(0.0)
- 중동	5.5(-2.5)	3.9(-1.6)	4.1(0.2)	2.2(-1.9)
- 중남미	6.0(7.3)	4.6(-1.4)	3.1(-1.5)	2.7(-0.4)
- CIS	4.9(11.3)	4.8(-0.1)	3.4(-1.4)	2.1(-1.3)

자료원 : IMF

경기침체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시작해 중국·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들의 경제성장의 부진 심화로 이어졌다.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선진국이 2010년 3.0%에서 2013년 1.3%로 총 1.7% 포인트 하락하고 신흥국은 2010년 7.5%에서 2013년 4.7%로 총 2.8% 포인트 하락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8>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전개과정

선진국			신흥국	
2008년	2009년	⇨	2011년	2014년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동·북아프리카** '아랍의 봄' 사태	美 테이퍼링으로 **신흥** **시장 금융리스크 가중**

미국發 금융위기(2008년)

- 미국 주택경기 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금융부문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 경기침체 초래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과거보다 빠르게 세계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특히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비중이 높은 유럽금융기관의 부실문제 가시화

유럽 재정위기(2009년)

- 2009년 10월 그리스 재정불안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로 확산
- 재정위기 여파로 유로존 재정긴축과 실물경기 둔화 심화

* EU 경제성장률(%) : ('10)2.0 → ('11)1.7 → **('12)-0.3**

'아랍의 봄' 사태(2011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증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집권세력에 대한불만이 민주화 시위로 전개
- 2011년 1월 튀니지를 시작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 내전·소요사태 발생

* 중동 경제성장률 (%) : ('10)5.5 → ('13)2.2

미국 양적완화 축소(2014년)

- 미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2008년 11월부터 양적완화(QE)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미국경제 회복세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2014년 1월부터 양적완화축소(테이퍼링) 단행
- 양적완화축소는 매월 자산매입규모를 100억 달러씩 축소하는 방식으로, 월별 자산매입규모는 2013년 12월 850억 달러에서 2014년 7월 현재 350억 달러로 축소
- 이러한 양적완화 조치로 신흥시장 금융권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이탈해 안전성이 큰 선진국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에 취약한 Fragile 5(인도·남아공·터키·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의 불안 가중

* 신흥국 경제성장률(%) : ('10)7.5 → ('13)4.7

이러한 글로벌 경기둔화는 2012~2013년 세계교역 부진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수출입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교역이 활발했던 2010~2011년은 우리 교역 또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과 2013년은 세계교역이 예년대비 크게 둔화되었고 우리나라 교역액도 이에 따라 각각 -1.1%, 0.7%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 교역액 성장률(%) : (세계)('10)21.8 → ('11)19.5 → ('12)0.2 → ('13)1.7
(한국)('10)29.9 → ('11)21.1 → ('12)-1.1 → ('1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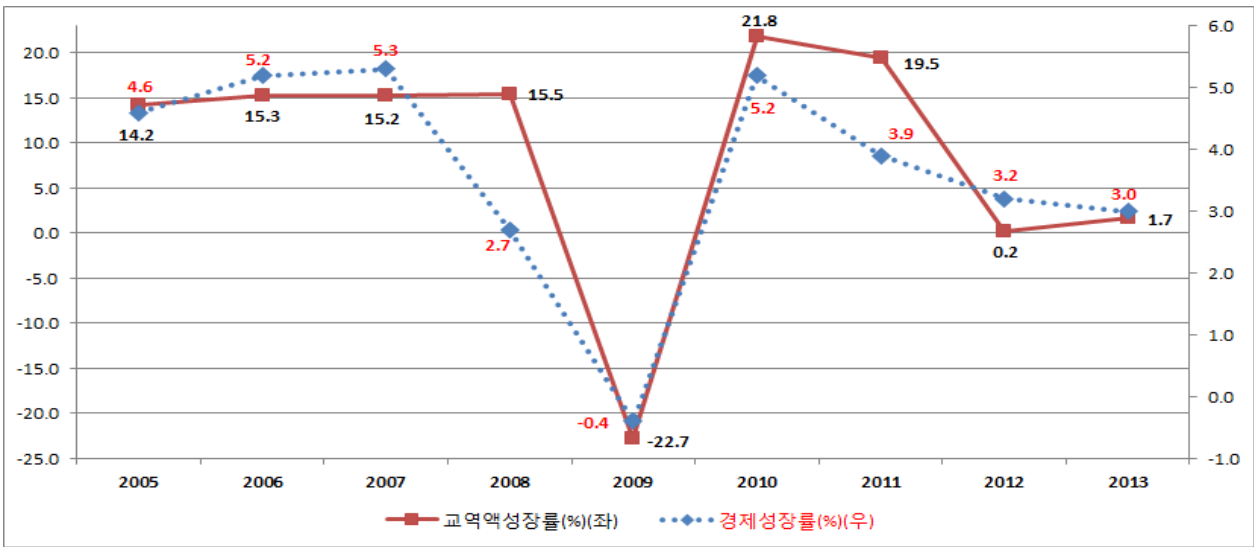
<표 7> 세계교역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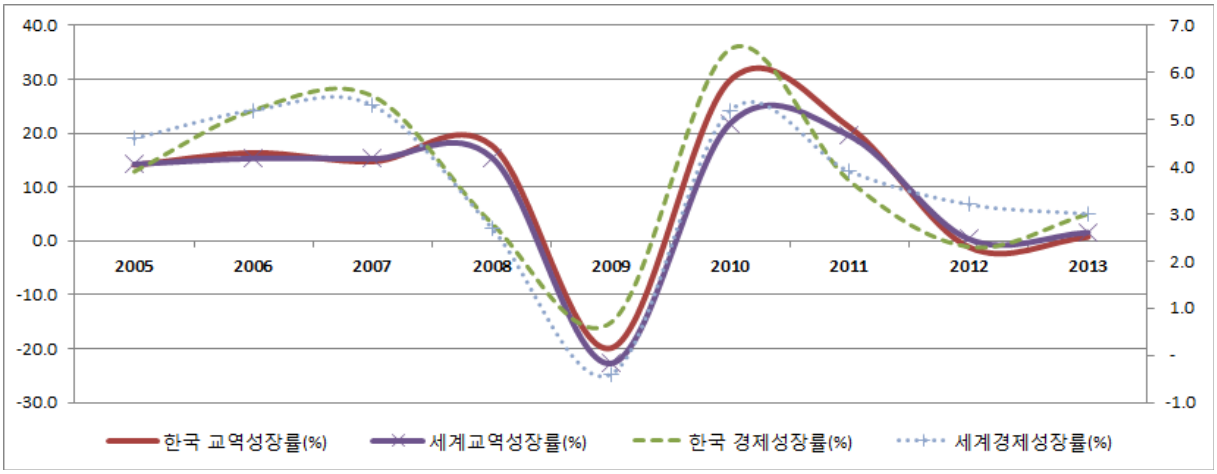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금액	124,140	151,630	181,590	181,700	185,330
	증가율	-22.5	22.1	19.8	0.1	2.0
수입	금액	127,110	154,490	184,290	185,000	187,520
	증가율	-22.9	21.5	19.3	0.4	1.4
교역액	금액	251,250	306,120	365,880	366,700	372,850
	증가율	-22.7	21.8	19.5	0.2	1.7
경제성장률		-0.4	5.2	3.9	3.2	3.0

자료원 : WTO, IMF

<그림 9>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성장률 비교



<그림 10> 세계와 한국의 교역 및 경제성장률 추이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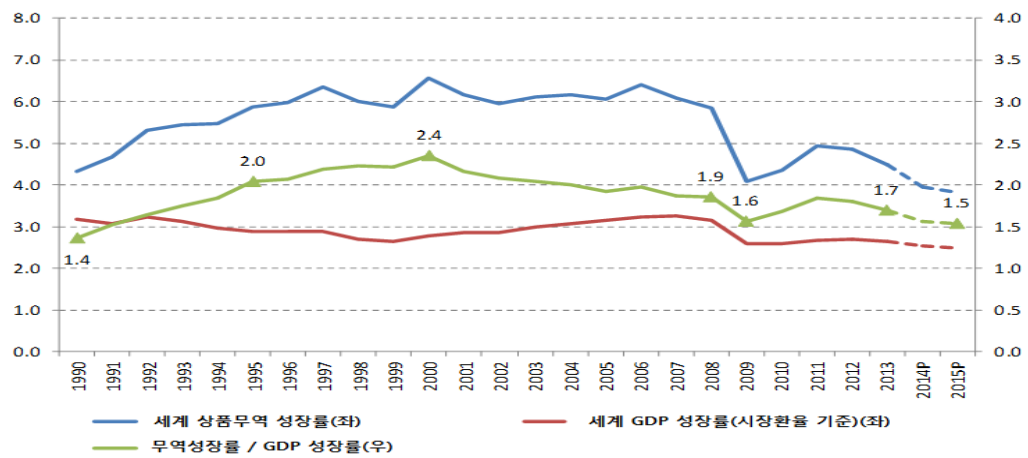
자료원 : WTO(교역액), IMF(경제성장률)

□ 세계 경제성장의 무역확대 효과 감소

세계교역 성장은 2012~2013년 중 0.2%와 1.7%의 성장률로 크게 둔화되어 세계경제 성장률 수치(3.2%, 3.0%)에도 못 미쳤다. WTO는 이러한 2년 연속 교역부진 현상에 대해 이제는 수출주도 성장모형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근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전의 세계교역 성장률과 세계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2011년 기간 중 세계교역 성장률은 연평균 7%이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3.4%(WTO, IMF)로, 1990년대 이래 세계교역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2대1 법칙). 그러나 그 폭이 금융위기 이후에 점차 축소되면서 2013년에는 1.7배까지 하락했다.

<그림 11> 1990~2015년 세계무역 및 GDP 성장률 10년 이동평균값 추이



WTO는 이러한 세계적 교역성장 둔화의 원인에 대해 세계경기 부진의 문제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에 대한 우려, 세계 교역상품의 변화,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세계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2대 1 법칙'의 유지는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위험성 높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SCM)

- 2000년대 들어 기상이변, 정치·경제적 불안, 수송인프라 붕괴 등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타를 가하는 대형 사건들이 급증
  * 대형 기상이변 연평균 발생건수(건) : 80년대 12.7 → 90년대 19.2 → 2000년대 24.5
- 공급망 일부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중단이나 신제품 출시 지연 등 피해상황에 직면하고, 연관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피해 초래
-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자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개도국으로 진출했던 제조업 생산을 다시 국내로 유인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강화 추세

연도	악재	피해기업 및 내용
2011	태국 홍수	(혼다) 공장침수로 26만대 생산차질 (델) HDD부품난으로 1분기 PC 380만대 생산차질
2011	일본 지진	(혼다) 7주간 영국 공장 50% 생산 중단 (도요타, 소니) 신제품 출시 지연
2010	아이슬란드 화산	(BMW, 닛산) 전자부품 수송 지연으로 7,000대 생산 차질
2001	미국 9.11 테러	(포드) 캐나다 생산부품의 수송지연으로 미 조립공장 생산 중단(생산목표치 13% 미달성)
2000	필립스 공장화재	(에릭슨) 부품공급 차질로 4억 달러 매출 손실

자료원 : SERI CEO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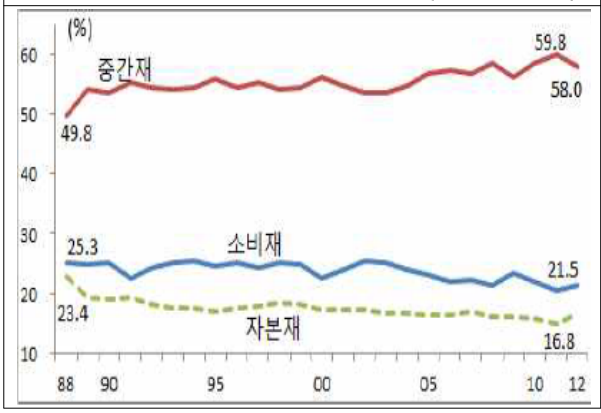
◇ 은밀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by-stealth)의 확산

-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간 스탠드스틸(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무역조치가 은밀히 남발되고 있음
- 2008년 G20 정상회담 직후부터 '13년 9월까지 도입된 무역제한조치는 총 2,657건이며 이중 G20가 59%에 달하는 1,557건 도입(자료원 : 14th GTA Report)
- 과거 보호조치는 관세장벽 강화에 집중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존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경쟁법,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등으로 외연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 세계 교역상품 구조의 변화

- 지난 20년간 세계교역 구조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중간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재 및 자본재 비중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
- 중간재의 경우 고가의 산업용 중간재보다는 음식료·연료 중간재 비중이 증가 추세
- 자본재와 산업용 중간재는 세계경기에 민감한 품목들로서 장단기 탄력성이 높아 세계경제 둔화기에 최종재 수요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하는 현상 발생

가공단계별 세계교역 비중(금액기준)



산업용중간재 세계교역 비중(금액기준)

자료원 : WTO, UNcomtrade, 무역협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둔화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교역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결과다. 이러한 둔화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교역부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금융에서 발발하여 실물로 전이된 위기는 실물경제에서 자체 발생한 위기보다 충격이 크고 회복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2012~2013년까지 이어져 교역 둔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IMF 등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2014년부터는 회복세로 반전하고 교역량도 증가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제는 세계교역이 저절로 지속 증가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오히려 교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것이다.

2. 주요 권역별 경제와 교역

(1) 개관

□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수출둔화에 큰 비중

세계경제 침체가 선진국에서 시작해 신흥국으로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신흥국보다 선진국에 대한 감소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2012~2013년 對신흥국 수출은 2011년 대비 135억 달러 증가했으나 對선진국 수출은 80억 달러 감소했다.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나머지 국가들로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선진국의 경우 최근 2년간 대미 수출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EU·일본에 대한 수출이 대폭 하락하여 전체 선진국 수출은 마이너스로 성장했다.

<표 8> 한국의 주요권역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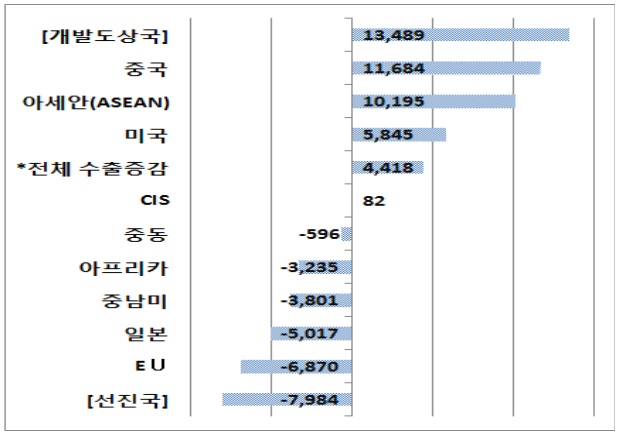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2~2013년
	금액	증감률(증감액)	금액	증감률(증감액)	증감률(증감액)
계	547,870	-1.3(-7,344)	559,632	2.1(11,762)	0.8(4,418)
선진국	**229,873**	**-1.3(-3,009)**	**224,898**	**-2.2(-4,975)**	**-3.4(-7,984)**
미국	58,525	4.1(2,317)	62,052	6.0(3,528)	10.4(5,845)
EU(2013, 28국)	49,371	-11.4(-6,356)	48,857	-1.0(-514)	-12.3(-6,870)
일본	38,796	-2.2(-884)	34,662	-10.7(-4,134)	-12.6(-5,017)
신흥국	**309,997**	**-0.1(-226)**	**323,712**	**4.4(13,715)**	**4.3(13,489)**
중국	134,323	0.1(138)	145,869	8.6(11,547)	8.7(11,684)
아세안(ASEAN)	79,145	10.2(7,344)	81,997	3.6(2,852)	14.2(10,195)
인도	11,922	-5.8(-732)	11,376	-4.6(-546)	-10.1(-1,278)
CIS	15,761	7.7(139)	15,704	-0.4(-57)	0.5(82)
중남미	36,747	-8.4(-3,378)	36,328	-1.1(-419)	-9.5(-3,797)
중동	36,616	11.4(3,733)	32,288	-11.8(-4,328)	-1.8(-596)
아프리카	9,185	-36.2(-5,211)	11,165	21.6(1,980)	-22.5(-3,231)

자료원 : 관세청

권역별로는 2년간 EU·일본·중남미·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부진했는데, 2012년은 EU·아프리카·중남미, 2013년은 중동·일본·EU 순으로 둔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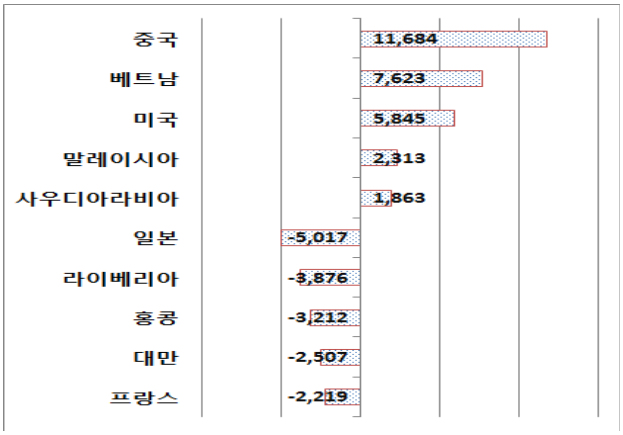
<그림 12> '12~'13년 권역별 수출증감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그림 13> '12~'13년 국가별 수출증감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한편 우리 수출이 양호하게 나타난 신흥국의 경우, 특히 아세안이 전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9.6%에서 2013년 14.7%로 확대되면서 중국 다음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부상했다.

<표 9> 우리나라의 주요시장별 수출액 비중 추이

(단위 : %)

지역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21.8	21.3	22.1	21.7	23.9	25.1	24.2	**24.5**	**26.1**
미국	14.5	13.3	12.3	11.0	10.4	10.7	10.1	**10.7**	**11.1**
EU	15.4	14.9	15.1	13.8	12.8	11.5	10.0	**9.0**	**8.7**
일본	8.4	8.2	7.1	6.7	6.0	6.0	7.1	**7.1**	**6.2**
아세안	9.6	9.9	10.4	11.7	11.3	11.4	12.9	**14.4**	**14.7**
중남미	5.3	6.3	6.9	7.9	7.4	7.8	7.2	**6.7**	**6.5**
중동	4.3	4.4	5.3	6.3	6.6	6.1	5.9	**6.7**	**5.8**
CIS	1.9	2.2	3.0	3.2	1.8	2.4	2.6	**2.9**	**2.8**

자료원 : 무역협회

국가별로는 중국·베트남·미국·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라이베리아·홍콩·대만 등에 대한 수출액은 크게 감소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은 성장한 가운데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최근 2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감소 대상국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2012~2013년 수출증가 대상국			2012~2013년 수출감소 대상국		
순위	국가명	증감액	순위	국가명	증감액
1	중국	11,684	1	일본	-5,017
2	베트남	7,623	2	라이베리아	-3,876
3	미국	5,845	3	홍콩	-3,212
4	말레이시아	2,313	4	대만	-2,507
5	사우디아라비아	1,863	5	프랑스	-2,219
6	싱가포르	1,450	6	브라질	-2,133
7	필리핀	1,445	7	인도네시아	-1,996
8	호주	1,399	8	몰타	-1,659
9	앙골라	1,024	9	독일	-1,593
10	네덜란드	885	10	이란	-1,587

자료원 : 무역협회

(2) 중국

□ 여러 악재에도 2013년 중국의 1위 수입대상국 지위 유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가로, 2013년 우리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1%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예년에 비해 2012년 0.1%, 2013년 8.6%로 둔화되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전년대비 회복세(8.6%)를 보인 것은 현지 핸드폰 공장으로 부품수출이 증가하는 등 가공무역 활성화가 기여하는 바가 컸다.

수출품목 중 2012년 건설광산기계, 석유제품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전년대비 각각 12억 달러(-51.1%), 10억 달러(-9.3%)에 달하여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2013년은 반도체, 전자응용기기의 수출이 각각 38억 달러(21.2%), 27억 달러(52.5%) 증가해 수출이 대폭 상승하였다.

한편,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은 중국내 생산 확대로 점차 감소 추세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만과 함께 높은 수준의 가공무역 수출비중을 유지[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對중국 가공무역 수출비중은 2013년 기준 47.6%

<표 11> 한국의 對중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中수출액	61,915	69,459	81,985	91,389	86,703	116,838	134,185	134,323	145,869
증가율	24.4	12.2	18.0	11.5	-5.1	34.8	14.8	0.1	8.6
수출비중	21.8	21.3	22.1	21.7	23.9	25.1	24.2	24.5	26.1

자료원 : 무역협회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중국의 수입도 세계경기 부진으로 2년째 한 자릿수 증가로 정체되었다. 중국 내 한국산 점유율은 4년째 9%대에 머무른 가운데 2013년에는 한국이 중국의 수입 대상 1위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국의 당초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대일 수입이 감소(2012년 -8.6%, 2013년 -8.7%)한 영향도 있다.

<표 12> 중국의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수입시장	對세계(A)	17.7	19.9	20.8	18.3	-11.3	38.9	24.9	4.4	7.3	15.7
	對韓(B)	23.7	16.8	15.8	7.8	-8.9	35.2	17.1	3.0	9.8	13.4
	차이(B-A)	5.9	-3.1	-4.9	-10.5	2.3	-3.7	-7.8	-1.3	2.5	-2.3
한국의 점유율		11.6	11.3	10.9	9.9	10.2	9.9	9.3	9.2	9.4	10.2
중국 경제성장률		11.3	12.7	14.2	9.6	9.2	10.4	9.3	7.7	7.7	10.2

자료원 : WTA, IMF

2005~2013년 중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 평균치(13.4%)는 전체 수입 증가율 평균치(15.7%)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도 2005·2009·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對韓 수입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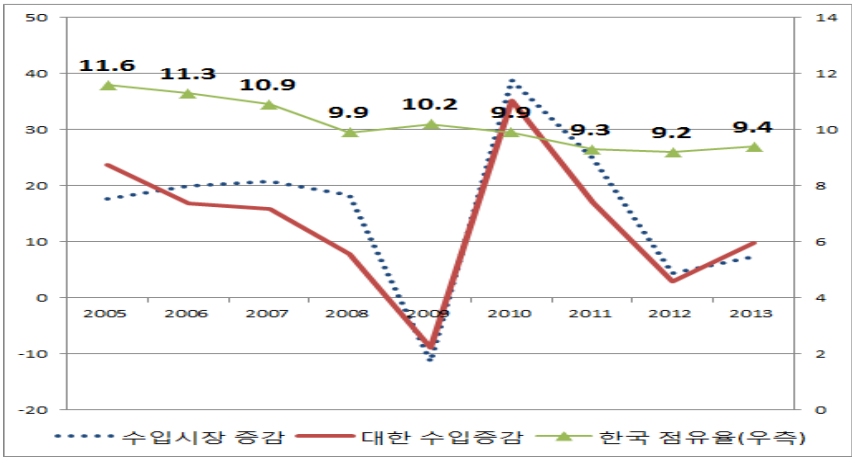
중국 수입에서 한국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11.6%에서 차츰 감소해 2013년 9.4%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이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상위 10대 수입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3]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호주·사우디·브라질·남아공·앙골라 등 자원대국의 비중이 증가세[4]를 나타냈다.

3) 주요 10대 수입국 점유율(%) : ('04)67.9 → ('08)64.1 → ('12)59.6 → ('13)59.4

4) 수입점유율(%, '04년→'13년) : 호주(2.1→4.7), 사우디(1.3→2.7), 브라질(1.5→2.8)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은 중국과의 분업 구조의 특징과 중국의 수입 둔화, 이들의 수입선 변화 등 영향을 받았다.

<그림 14> 중국 수입시장 동향



(3) 미국

□ 한-미 FTA 효과로 수출 양호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 경기침체 가운데 한-미 FTA('12.3.15일 발효) 효과로 2012년 4.1%, 2013년 6.0%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1.1%로 차츰 확대 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2위의 지위를 유지했다.

<표 13> 한국의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美수출액	41,343	43,184	45,766	46,377	37,650	49,816	56,208	58,525	62,052
증가율	-3.5	4.5	6.0	1.3	-18.8	32.3	12.8	4.1	6.0
수출비중	14.5	13.3	12.3	11.0	10.4	10.7	10.1	10.7	11.1

자료원 : 무역협회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품목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자동차(34.8억 달러) 및 자동차부품(11.4억 달러), 석유제품(10억 달러) 등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이 28.3% 증가한 반면,

비수혜품목은 7.9% 증가했다. 이는 한-미 FTA 효과가 우리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 한-미 FTA 수혜 vs 비수혜 품목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출액(비중)			수출증가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발효 2년	연평균
수 혜	16,646(30.53)	20,851(35.52)	21,359(34.33)	25.3	2.4	**28.3**	**13.3**
비수혜	37,868(69.47)	37,851(64.48)	40,866(65.67)*	-0.05	8.0	7.9	3.9
전 체**	54,514(100)	58,702(100)	62,225(100)	3.9	5.7	9.8	4.8

자료원 : USITC DataWeb 통계자료를 추출하여 KOTRA 자체 분석

* 주1 : '16년 2.5% 관세철폐 예정인 자동차(HS 8703, '13년 기준 對美 수출 19.3%)가 포함

** 주2 : '13년 미국의 對韓 수입액이 10,000 달러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여 실제 對美 수출액과 차이

<표 15> 주요 품목별 對미국 수출 증감액

(단위: 억 달러)

품목명	수출증감액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자동차	1,681	1,800	3,481
자동차부품	624	521	1,145
제트유 및 등유	340	668	1,008
무선통신기기부품	126	389	515
철강관	298	-39	259
건설중장비	351	-169	182
직접회로반도체	-313	493	180
냉장고	41	58	99
무선전화기	-3,650	1,441	-2,209
타이어	118	-307	-189

자료원 : 무역협회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은 2009년부터 미국 전체 수입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상회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미국의 전체 수입이 0.4% 감소했으나 對韓 수입은 5.9% 증가하여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은 2.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추세는 미국 수입시장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한-미 FTA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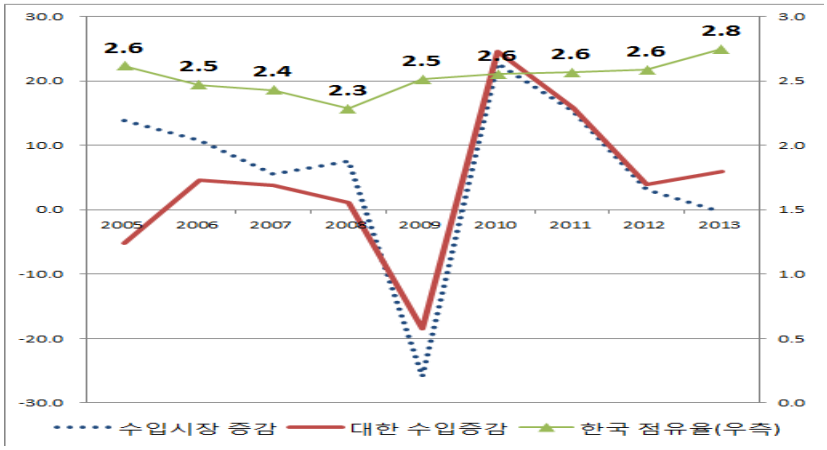
<표 16> 미국의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수입시장	對세계(A)	13.9	10.8	5.6	7.5	-25.9	22.7	15.4	3.1	-0.4	5.9
	對韓(B)	-5.2	4.6	3.8	1.1	-18.4	24.6	15.9	4.0	5.9	4.0
	차이(B-A)	-19.0	-6.2	-1.7	-6.4	**7.4**	**1.9**	**0.6**	**0.9**	**6.3**	-1.8
한국의 점유율		2.6	2.5	2.4	2.3	2.5	2.6	2.6	2.6	**2.8**	2.5
미국 경제성장률		3.1	2.7	1.8	-0.3	-2.8	2.5	1.8	2.8	1.9	1.5

자료원 : WTA, IMF

<그림 15> 미국 수입시장 동향



(4) 유럽

□ 유럽 재정위기 및 선박 수주감소로 수출 부진

최근 2년간 對EU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2012년 11.4% 감소, 2013년 1.0% 감소했다. 전체 우리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대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3년 8.7%까지 위축된 상황이다.

<표 17> 한국의 對EU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EU수출액	43,659	48,450	55,982	58,375	46,608	53,507	55,727	49,371	48,857
증가율	15.4	11.0	15.5	4.3	-20.2	14.8	4.1	**-11.4**	**-1.0**
수출비중	15.4	14.9	15.1	13.8	12.8	11.5	10.0	**9.0**	**8.7**

자료원 : 무역협회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

최근 2년간 對EU 수출감소는 우리 주력품목인 선박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액이 68억 달러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프랑스·독일·그리스 등 유럽 선주들의 발주가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남유럽 재정위기로 줄어들면서 인도시점인 2012~2013년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對EU 선박 수출은 2012년 36.8%(-46억 달러) 감소, 2013년 28.2%(-22억 달러) 감소했다.

또한 우리의 EU에 대한 유로화 결제 비중이 매년 지속 증가했는데, 여기서도 對EU 수출액 감소 현상을 일부 해명할 수 있다. 유로화의 대미 환율이 하락((‘11)1.39달러→(‘13)1.33달러)하면서 달러 환산시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18> 우리나라의 對EU 수출대금 유로화 결제 현황

(단위 : %,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결제비중	39.80	37.20	37.40	40.20	45.20	50.80
유로 환율	1.47	1.40	1.33	1.39	1.29	1.33

자료원 : 한국은행

EU 수입시장에서 對韓 수입액은 한-EU FTA(‘11.7.1일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2~2013년 기간 중 -3.7%, -2.2%로 오히려 감소했고, 한국제품의 비중 또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2년간 EU의 對韓 수입 증가율은 EU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경기침체 가운데 한-EU FTA의 효과가 다소 발휘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9> EU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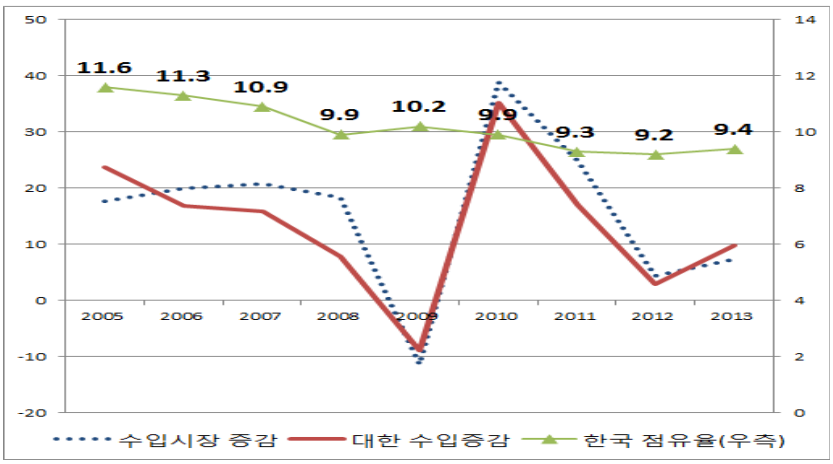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수입 시장	對세계(A)	14.7	16.1	15.9	17.1	-27.0	20.4	18.6	-3.9	-3.4	7.6
	對韓(B)	11.9	20.2	10.0	3.0	-22.7	16.0	-3.4	**-3.7**	**-2.2**	3.2
	차이(B-A)	-2.8	4.1	-5.9	-14.2	4.3	-4.4	-22.0	0.2	1.2	-4.4
한국의 점유율		2.9	3.0	2.9	2.5	2.7	2.6	2.1	2.1	2.1	2.5
EU 경제성장률		2.4	3.6	3.4	0.6	-4.4	2.0	1.7	**-0.3**	**0.2**	**1.0**

자료원 : WTA, IMF

주 : 유로화 기준

결국 2012~2013년 對EU 우리 수출 부진은 기본적으로 유럽 경기침체에 따른 EU의 수입시장 축소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선박 수출의 급감, 유로화 결제시 환산 달러액 감소 등과 같은 단기적인 대외여건으로부터 상당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EU 수입시장 동향



(5) 일본

□ 엔저로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및 채산성 악화

2012~2013년 한국의 대일 수출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특수에 따른 기저효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각각 -2.2%, -10.7%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1%에서 2013년 6.2%로 하락했다.

<표 20> 한국의 對일본 수출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日수출액	24,027	26,534	26,370	28,252	21,771	28,176	39,680	38,796	34,662
증가율	10.7	10.4	-0.6	7.1	-22.9	29.4	40.8	-2.2	-10.7
수출비중	8.4	8.2	7.1	6.7	6.0	6.0	7.1	7.1	6.2

자료원 : 무역협회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한편 일본의 對韓 수입 증가율은 일본 전체 수입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하회했다. 2005~2013년 기간 중 일본의 평균 수입 증가율(8.3%) 대비 대한 수입 증가율(7.2%)은 1.1% 포인트 낮은 상태이다.

일본의 한국산 수입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라 현지 화력발전용 원료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시 상승세(39.0%)를 탔다. 그러나 그 이후 2012~2013년 일본의 대한 수입은 각각 1.7%, -11.5%의 증가율로 전환하면서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순위는 6위(2012년)에서 7위(2013년)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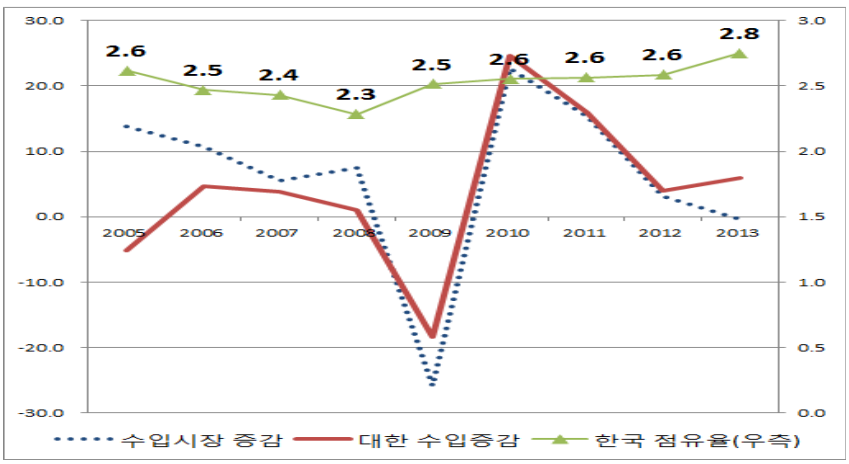
<표 21> 일본의 최근 수입증가율 동향

(단위 :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 균
수입 시장	對세계(A)	13.3	12.1	7.5	22.6	-27.6	25.8	23.3	3.5	-6.0	8.3
	對韓(B)	10.7	11.9	-0.1	8.1	-25.5	**30.4**	**39.0**	1.7	-11.5	7.2
	차이(B-A)	-2.6	-0.3	-7.6	-14.5	2.1	4.6	15.7	**-1.8**	**-5.5**	-1.1
한국의 점유율		4.7	4.7	4.4	3.9	4.0	4.1	4.7	4.6	4.3	4.4
일본 경제성장률		1.3	1.7	2.2	-1.0	-5.5	4.7	-0.5	1.4	1.5	0.6

자료원 : WTA, IMF

<그림 17> 일본 수입시장 동향



최근 2년간 엔저로 우리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대일 수출 감소액이 50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3위를 유지했다. 해당 금액은 우리의 2012~2013년 국별 수출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액수다. 특히, 철강과 반도체의 대일 수출[5]은 수입수요 감소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5) 對日철강판 수출증가율(%) : ('12) -14.4(-4억 달러) → ('13) -21.5(-5억 달러)
對日 반도체 수출증가율(%) : ('12) -14.1(-4억 달러) → ('13) -15.0(-4억 달러)

또한 일본으로 엔화 결제 비중이 대일 수출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엔저에 따른 달러 환산 수출액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엔/달러 환율은 2011년 77.7엔에서 2012년 86.6엔, 2013년 105.3엔을 기록해 엔화 가치가 지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동일 단가의 제품 수출했을 때 엔화 결제로 인한 달러 환산액은 2012년 -10.3%에서 2013년 -17.8%까지 수출 금액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표 22> 우리나라의 對일본 엔화 결제 현황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엔화 결제금액	13,757	13,247	13,915	15,770	12,940	16,515	20,599	19,943	16,259
엔화 결제비중	57.3	49.9	52.8	55.8	59.4	58.6	51.9	51.4	46.9
엔/달러 환율	118.0	119.0	114.0	90.8	92.1	81.5	77.7	86.6	105.3
원/엔 환율	930.7	821.5	789.8	1,076.6	1,363.1	1,320.6	1,391.3	1,413.1	1,123.4
원/달러 환율	1,011.6	929.8	936.1	1,259.5	1,164.5	1,134.8	1,151.8	1,070.6	1,055.4

자료원 : 한국은행

이에 따라 달러기준으로 일본 수입시장의 한국산 비중이 2012년 4.6%에서 2013년 4.3%로 감소 수치를 보인 반면, 엔화 기준으로는 일본의 대한 수입 증가율이 2012년 2.0%에서 2013년 8.1%로 상승세를 보였다.

<표 23> 일본의 對한국 수입금액 증감(엔화 기준)

(단위 : 백만 엔,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2,695,288	3,178,253	3,209,558	3,052,017	2,051,039	2,503,979	3,170,051	3,233,704	3,493,859
증가율	13.1	17.9	1.0	-4.9	-32.8	22.1	26.6	2.0	8.1

자료원 : 일본관세협회

한편,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증가[6]로 인한 부품소재 수입수요 감소, 엔저에 따른 우리제품 가격경쟁력 하락 등은 대일 수출에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 ('01) 24.6 → ('07) 30.6 → ('13) 34.6

(6) 아세안(ASEAN)

□ 해외투자 증가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 유지

2012~2013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은 베트남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활발한 현지 투자의 영향으로 10.2%, 3.6%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14.7%까지 상승했다.

<표 24>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아세안수출액	27,432	32,066	38,749	49,283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증가율	14.2	16.9	20.8	27.2	-16.8	29.8	35.0	**10.2**	**3.6**
수출비중	9.6	9.9	10.4	11.7	11.3	11.4	12.9	**14.4**	**14.7**
아세안 경제성장률	5.1	5.7	6.3	4.8	1.7	6.9	4.5	**6.2**	**5.2**

자료원 : 무역협회, IMF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별로 對베트남·말레이시아 수출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對인도네시아·브루나이·태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취약 5개국(Fragile 5)'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2013년 17.1%나 감소(-23.9억 달러)했다.

<표 25> 한국의 아세안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7,344(10.2)**	**2,852(3.6)**	**10,196**
인도네시아	391(2.9)	**-2,387(-17.1)**	-1,996
브루나이	-476(-81.0)	-10(-8.4)	-486
태국	-238(-2.8)	-149(-1.8)	-387
베트남	**2,481(18.4)**	**5,142(32.2)**	7,623
말레이시아	**1,448(23.1)**	**865(11.2)**	2,313
싱가포르	2,049(9.8)	-599(-2.6)	1,450
필리핀	872(11.9)	572(7.0)	1,444

자료원 : 무역협회

對아세안 수출품목별로는 중국·인도 등 주변국 정제시설 증설 영향으로 2013년 경유가 17.7억 달러 감소했고, 조선경기 침체로 선박은 11억 달러 감소하였다. 반면 반도체와 같은 전자부품의 수출은 베트남 등에 우리 전자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2012~2013년 직접회로 반도체의 對아세안 수출이 30억 달러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표 26> 한국의 아세안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7,344(10.2)**	**2,852(3.6)**	**10,196**
선박	-486(-8.0)	**-1,101(-19.8)**	-1,587
열연강판	-94(-3.9)	-532(-23.5)	-626
철구조물	208(22.2)	-737(-64.3)	-529
금	-67(-6.8)	-404(-43.7)	-471
제트유및등유	-276(-38.7)	-122(-28.0)	-398
집적회로반도체	1,369(17.0)	1,666(17.7)	3,035
경유	3,040(30.9)	**-1,772(-13.8)**	1,268
휘발유	575(15.8)	247(5.9)	822
개별소자반도체	219(44.0)	324(148.4)	543
기타 중전기기	248(118.8)	271(59.0)	519

자료원 : 무역협회

2012~2013년 아세안의 수입은 각각 6.0%, 1.9% 증가율로 예년 대비 다소 부진했다. 2013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영향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에 대한 중국·브라질 등 대형 신흥국의 수요가 줄어 수입 여력 또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아세안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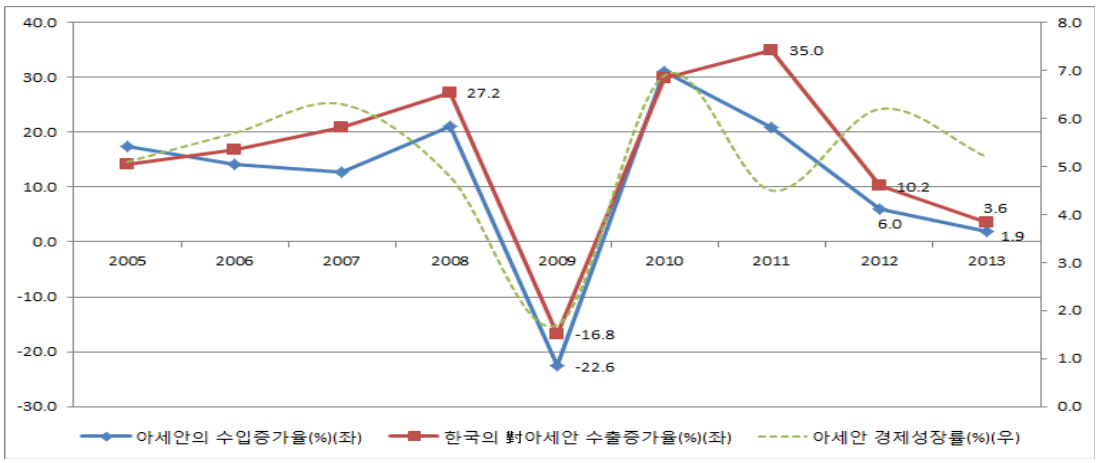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세안	**수입증가율**	**31.1**	**21.0**	**6.0**	**1.9**
인도네시아	수입증가율	40.1	30.8	8.0	-2.6
	對韓수입증가율	62.4	68.8	-7.9	-3.2
	한국 점유율	5.7	7.3	6.2	6.2
말레이시아	수입증가율	33.0	13.9	4.8	4.8
	對韓수입증가율	55.7	-14.7	4.9	21.7
	한국 점유율	5.4	4.1	4.1	4.7

자료원 : WTA

국가별로 살펴보면 對韓 수입이 인도네시아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우리의 경유 수출 감소(2012년 -19.4%, 2013년 -44.7%)에 그 원인이 있다. 그 외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기업의 현지투자 확대에 힘입어 對韓 수입이 양호했다.

결국 2013년 들어 나타난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세 정체는 아세안 수입시장 자체가 위축된 결과로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나라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향후 기계장비와 부품소재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아세안의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율 비교



자료원 : UNCTADstat, 무역협회, IMF

(7) 중남미

□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선박 부진으로 수출 감소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중남미 지역의 주종 수출품목인 국제원자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편의국적선 제도를 이용한 선박의 수출 감소 등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각각 8.4%, 1.1% 감소하였다.

<표 28>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중남미수출액	14,987	20,591	25,781	33,267	26,764	36,187	40,131	36,747	36,328
증가율	29.6	37.4	25.2	29.0	-19.5	35.2	10.9	**-8.4**	**-1.1**
수출비중	5.3	6.3	6.9	7.9	7.4	7.8	7.2	**6.7**	**6.5**
중남미 경제성장률	4.7	5.6	5.8	4.3	-1.3	6.0	4.6	**3.1**	**2.7**

자료원 : 무역협회, IMF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

국별로는 對브라질 수출이 2012~2013년 각각 13.0%, 5.8% 감소(총 -21.3억 달러)하여 중남미 수출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브라질의 대외 수출 감소와 내수 경기 악화, 수입규제로 인한 결과다. 브라질은 특히 자국제품 의무 사용 비중 상향, 수입자동차 공업세 인상조치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박 등의 영향으로 바하마・파나마・콜롬비아로의 수출 또한 크게 감소했다.

<표 29>한국의 중남미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3,384(-8.4)**	**-419(-1.1)**	**-3,803**
우루과이	-33(-15.2)	202(109.7)	169
칠레	88(3.7)	-11(-0.5)	77
페루	105(7.7)	-33(-2.2)	72
브라질	**-1,535(-13.0)**	**-598(-5.8)**	**-2,133**
바하마	-1,092(-57.3)	201(24.7)	-891
파나마	179(4.7)	-492(-12.4)	-313
콜롬비아	-146(-9.1)	-126(-8.5)	-272
영령 버진군도	343(47.1)	-566(-52.8)	-223
멕시코	-687(-7.1)	685(7.6)	-2

자료원 : 무역협회

對중남미 수출품목을 보면 선박이 2012~2013년 인도 감소로 전년대비 40억 달러나 감소해 수출 둔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도 현지 생산 증가[7]에 따라 수출액이 16억 달러나 감소했다.

7) 브라질 현대자동차 현지생산(만대) : ('12)2.7 → ('13)16.7
對브라질 자동차 수출증가율(%) : ('12)-51.7 → ('13)-45.2

<표 30> 한국의 중남미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3,384(-8.4)**	**-419(-1.1)**	**-3,803**
반도체	360(88.7)	391(51.1)	751
자동차부품	300(12.8)	315(11.9)	615
영상기기	-443(-28.2)	660(58.5)	217
정전기기	30(12.7)	109(39.5)	139
원동기 및 펌프	69(17.6)	29(6.5)	98
선박 및 부품	-2,917(-27.0)	-1,080(-13.7)	-3,997
자동차	-827(-12.0)	-756(-12.5)	-1,583
석유제품	-92(-6.1)	-726(-51.1)	-818
철강판	51(3.1)	-229(-13.5)	-178

자료원 : 무역협회

최근 2년간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에서 특징적인 점은 선박·자동차·석유제품 등의 부진이 반도체·자동차부품·영상기기 호조세를 상쇄했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의 브라질 현지 생산체제 구축과 미국에서의 직수출이 우리 수출부진의 주요인이다.

한편, 중남미의 수입 증가율은 최근 2년간 4.0%, 2.9%로 예년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對韓 수입은 2012년 브라질·멕시코에서 뚜렷한 부진세를 보였다.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브라질에서는 2010년 4.6%였으나 2013년 4.0%로 떨어졌고, 멕시코에서는 4.2%에서 3.5%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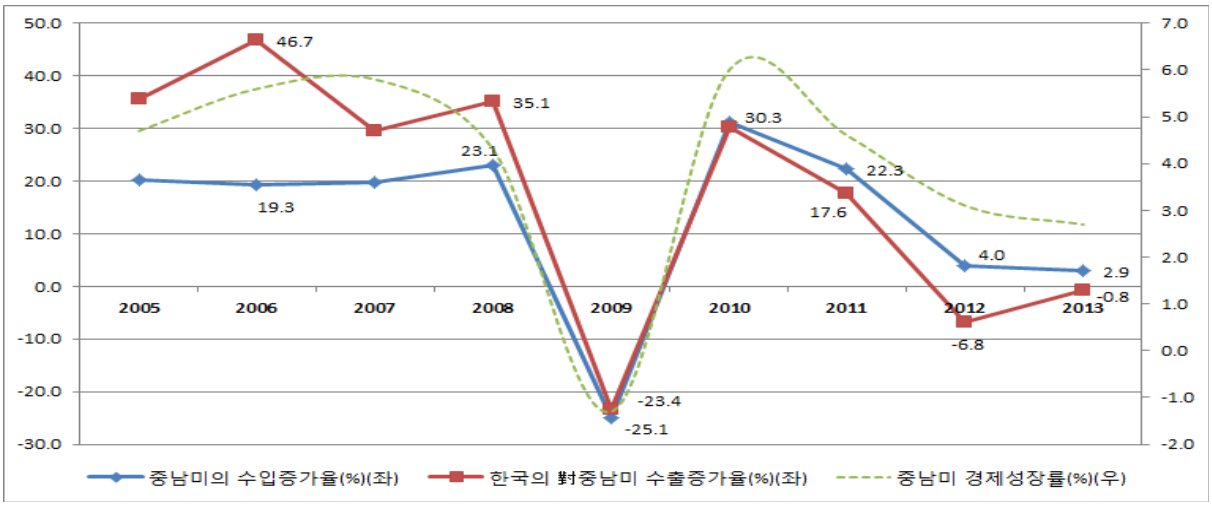
<표 31> 중남미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남미	**수입증가율**	**31.2**	**22.3**	**4.0**	**2.9**
브라질	수입증가율	42.3	24.5	**-1.4**	7.4
	對韓수입증가율	74.8	19.9	**-9.9**	4.3
	한국 점유율	4.6	4.5	4.1	4.0
멕시코	수입증가율	28.6	16.4	5.7	2.8
	對韓수입증가율	16.3	7.3	**-2.4**	1.1
	한국 점유율	4.2	3.9	3.6	3.5

자료원 : WTA

이와 같이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부진은 경쟁력 약화 등의 원인보다 선박경기 위축, 자동차 현지생산의 증가 등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9> 중남미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 증가율 비교



자료원 : UNCTADstat, 무역협회, IMF

주 : 對중남미 수출증가율은 UNCTADstat의 LAIA(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기준으로 재산출한 값

(8) 중동

□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정세로 일시적 수출 정체

한국의 對중동 수출은 2012년 11.4%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현지 원유 생산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중동의 불안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2013년 -11.8% 급격하게 감소했다.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지역은 2011년과 2012년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13년에는 2.2%에 그쳐 예년의 5~6% 성장률에 비해 한층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32> 한국의 對중동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중동수출액	12,241	14,463	19,721	26,647	24,039	28,369	32,884	36,616	32,288
증가율	11.2	18.2	36.4	35.1	-9.8	35.1	15.9	11.4	-11.8
수출비중	4.3	4.4	5.3	6.3	6.6	6.1	5.9	6.7	5.8
중동 경제성장률	6.0	6.8	6.0	5.1	3.0	5.5	3.9	4.1	2.2

자료원 : 무역협회, IMF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국별로는 2013년 對이란 수출이 -28.4%(-17.8억 달러), 對UAE 수출은 -16.4%(-11.2억 달러)로 2013년 중동지역 수출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對UAE 수출

감소의 경우, 우리의 이란 우회 수출이 서방 경제제재로 인해 축소되면서 두바이 중계무역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표 33> 한국의 중동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 계	**3,732(11.4)**	**-4,328(-11.8)**	**-596**
사우디아라비아	2,148(30.8)	-284(-3.1)	1,864
이라크	331(21.6)	107(5.7)	438
카타르	261(55.6)	122(16.7)	383
이란	189(3.1)	-1,776(-28.4)	-1,587
UAE	-406(-5.6)	-1,124(-16.4)	-1,530
시리아	-409(-48.5)	12(2.8)	-397
이스라엘	-286(-15.7)	-68(-4.4)	-354
쿠웨이트	152(10.6)	-451(-28.5)	-299

자료원 : 무역협회

對중동 수출품목별로는 가열난방기·화학기계·철강관 수출이 2013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서방의 이란 교역제재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제재 조치로 對이란 수출 증가율은 2012년 3.1%에서 2013년 -28.4%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고 특히 합성수지·철강판·자동차부품 수출이 큰 폭의 하락세[8]를 보였다.

<표 34> 한국의 중동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3,732(11.4)**	**-4,328(-11.8)**	**-596**
승용차	1,337(18.9)	-84(-1.0)	1,253
칼라TV	12(1.7)	242(33.7)	254
해양구조물	1(2,675.7)	250(28,390.8)	251
석유화학합성원료	-42(-25.8)	273(228.2)	231
화학기계	483(123.0)	-392(-44.7)	91
철강관	-78(-9.5)	-353(-47.6)	-431
선박	-265(-24.4)	-135(-16.3)	-400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154(-25.6)	-182(-40.7)	-336
가열난방기	241(35.5)	-576(-62.6)	-335
합성수지	22(1.7)	-280(-21.2)	-258
철구조물	205(40.0)	-341(-47.6)	-136

자료원 : 무역협회

8) 對이란 수출증가율(%) : 합성수지 ('12)27.5 → ('13)-42.2, 철강판 ('12)-6.1 → ('13)-48.2, 자동차부품 ('12)-42.7 → ('13)-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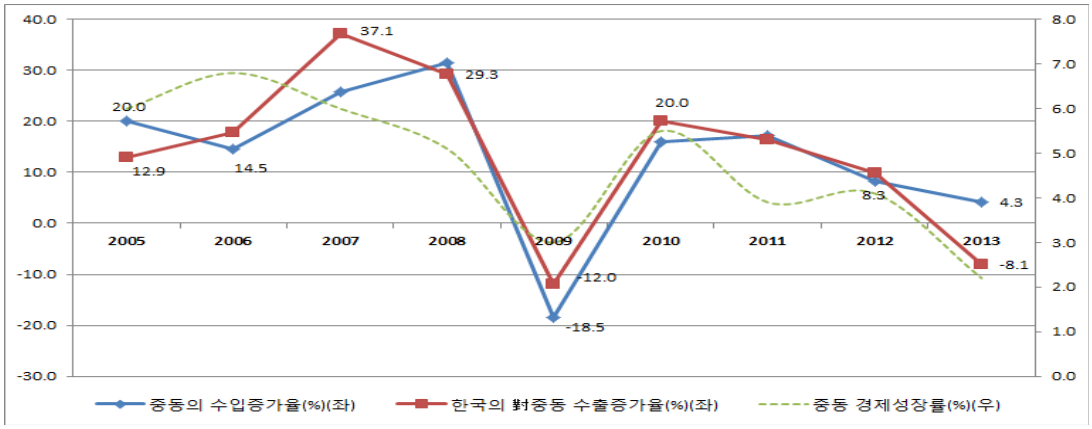
중동지역 전체의 수입 증가율은 2012~2013년 8.3%, 4.3%로 예년대비 낮은 수치였다. 2013년의 경우 중동의 수입은 4.3%로 소폭 증가한 반면, 한국의 對중동 수출은 -11.8%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對중동 수출 시 중동지역의 정치·외교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5> 중동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지역·국가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동	수입증가율	16.1	17.3	8.3	4.3
이란	수입증가율	25.6	-8.8	-7.1	-14.0
	對韓수입증가율	18.7	21.1	5.1	-18.0
	한국 점유율	5.9	7.8	8.8	8.4
이집트	수입증가율	18.3	17.7	8.7	(상반기) 4.5
	對韓수입증가율	53.5	-8.5	-2.0	(상반기) 1.3
	한국 점유율	3.6	2.8	2.5	(상반기) 2.4

자료원 : WTA

<그림 20> 중동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중동 수출 증가율 비교



자료원 : UNCTADstat, 무역협회, IMF

주 : 對중동 수출증가율은 UNCTADstat의 MENA-19개국 기준으로 재산출한 값

(9) CIS

□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와 현지 경기침체로 수출둔화

우리의 對CIS 수출은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의 호조에 따라 2010년 최고 69.6%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현지생산 증가와 러시아 경제여건 악화는 우리의 對CIS 수출을 2012년 7.7%, 2013년 -0.4%까지 급격히 끌어내렸다.

2013년 CIS의 경제성장률은 2.1%로 예년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 둔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한국의 對CIS 지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對CIS수출액	5,468	7,247	11,313	13,637	6,520	11,054	14,629	15,761	15,704
증가율	51.0	32.5	56.1	20.5	-52.2	69.6	32.3	**7.7**	**-0.4**
수출비중	1.9	2.2	3.0	3.2	1.8	2.4	2.6	**2.9**	**2.8**
CIS 경제성장률	6.7	8.8	8.9	5.3	-6.4	4.9	4.8	**3.4**	**2.1**

자료원 : 무역협회, IMF

주 :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CIS가 차지하는 비중

루블화 약세도 對CIS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2012~2013년 루블화는 월평균 환율이 달러당 29.3~33.0루블의 변동 폭을 보이며 약 12.5% 평가절하되고, 2014년 1분기 평균환율은 전년대비 약 10% 상승한(35.2루블) 양상을 보여 루블화 가치하락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가 중에서는 對우크라이나 수출이 불안한 정치와 저조한 경제성장에 따라 2013년 -44.8%(-5.1억 달러)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2013년 4월 시행한 우크라이나 자동차 관세인상 조치는 자동차 수출을 2013년 32.3%나 급감시켰다.

<표 37> 한국의 CIS 최근 수출 호·부진 국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 가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1,132(7.7)**	**-57(-0.4)**	**1,075**
러시아 연방	792(7.7)	52(0.5)	844
카자흐	128(17.0)	189(21.4)	317
우즈베크	48(2.8)	201(11.4)	249
우크라이나	126(12.4)	-514(-44.8)	-388
투르크멘	-49(-20.3)	-53(-27.0)	-102

자료원 : 무역협회

특히 2013년에 나타난 對CIS 지역 수출 둔화는 자동차의 해외생산 증가와 각종 진출장벽에 따른 결과이다. 對러시아 자동차 수출은 현대자동차 현지생산('10년 가동)[9] 증가로 2011년 41.3%에서 2012년 17.0%, 2013년 6.4%로 점차 증가세가

감소했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12.8.22) 이후 대외무역구제제도 등 자국산업 보호 조치 또한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38> 한국의 CIS 수출 호·부진 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수출증감액(증가율)		2012~2013년 총 증감액
	2012년	2013년	
합계	**1,132(7.7)**	**-57(-0.4)**	**1,075**
승용차	754(22.0)	307(7.4)	1,061
자동차부품	311(13.9)	-1(-0.0)	310
아연도강판	95(47.5)	42(14.2)	137
선박	-562(-92.2)	35(74.7)	-527
합성수지	-48(-5.4)	-47(-5.6)	-95
화물자동차	111(18.9)	-183(-26.3)	-72

자료원 : 무역협회

한편 CIS 지역의 수입은 2012~2013년 5.6%, 0.7%로 예년대비 둔화된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는 對韓 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카자흐스탄은 對韓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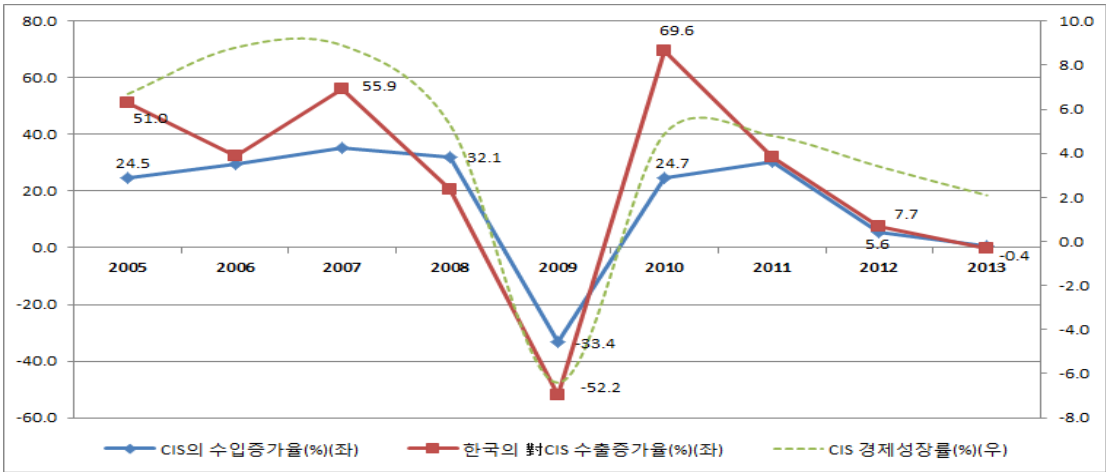
<표 39> CIS 주요국별 수입시장 동향(%)

지역·국가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IS	**수입증가율**	**24.7**	**30.2**	**5.6**	**0.7**
러시아	수입증가율	36.2	31.8	4.2	**-1.2**
	對韓수입증가율	50.5	61.2	**-4.6**	**-9.4**
	한국 점유율	3.3	4.1	3.7	3.4
카자흐스탄	수입증가율	-15.3	-10.8	24.9	13.7
	對韓수입증가율	41.0	22.7	47.9	30.7
	한국 점유율	2.2	3.0	3.6	4.1
우크라이나	수입증가율	33.7	36.0	2.5	**-9.1**
	對韓수입증가율	38.5	57.2	25.2	**-46.3**
	한국 점유율	1.3	1.5	1.8	1.1

자료원 : WTA

9) 러시아 현대자동차 현지생산(만대) : ('11)13.9 → ('12)22.4 → ('13)22.9

<그림 21> CIS의 수입증가율과 한국의 對CIS 수출 증가율 비교



자료원 : UNCTADstat, 무역협회, IMF

(10) 수출둔화의 지역별 특성 분석

주요권역별 교역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2012~2013년의 수출 둔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對선진국 수출 감소[10]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에 대한 수출둔화는 대부분 對EU·일본 수출이 급감한 결과로 나타난데 반해 대미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와 한-미 FTA 효과로 점차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으로의 수출 증가폭이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중국과 아세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도 최근 2년 성장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우리와 분업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우리의 대중 수출은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아세안은 베트남 등 중심의 우리기업 투자 확대로 관련부품의 수출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저조하나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에 있고, 한-미 FTA 효과로 수출 증가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편이다.

우리의 수출 증가율이 낮은 지역 중에서는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함께 받는 지역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대지진 특수가 사라진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엔화 거래비중이 높고 엔화 평가절하로 달러 환산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對중동 수출의 경우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작용으로 크게 감소했다.

10) 우리나라의 對선진국 수출 추이(%) : ('10)25.9 → ('11)76.7 → ('12)-1.3 → ('13)-2.2

향후 미국·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우리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일본의 엔저,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이라크·우크라이나 사태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년 가장 부진했던 對EU 수출의 경우, 앞으로 이들의 경기회복이 우리의 수출 증가 회복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최근 우리의 수출은 경쟁력 하락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보다 경기침체나 정치·외교적 문제, 세계 선박경기 침체, 환율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겠다.

<표 40> 주요 지역별 수출·수입 증가율 차이 발생 원인 분석

지역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A) 대비 對지역 수출 증가율(B) 차이		지역의 전체 수입 증가율(A) 대비 한국의 對지역 수출 증가율(B) 차이	
	B-A (2012) (2013)	원인	B-A (2012) (2013)	원인
중국	(1.4) (6.5)	-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 - 자동차 등 현지생산 확대로 부품수출 확대	(-4.3) (1.3)	- 여전히 높은 가공무역 비중 - 중국 제1의 수입대상국 부상
미국	(5.4) (3.9)	- 한-미 FTA에 따른 효과 - 경제 회복세 지속	(1.0) (6.4)	- 한-미FTA에 따른 효과
EU	(-10.1) (-3.1)	- 경기침체 지속 - 유로화 결제 확대에 따른 달러 환산 금액 감소	(-7.5) (2.4)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선박의 수출 급감
일본	(-0.9) (-12.8)	- 엔화 결제 증가와 엔저에 따른 달러 환산 수출 감소 - 엔저에 따른 수입 둔화	(-5.7) (-4.7)	-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특수효과 상실(원료 수입 등)
아세안	(11.5) (1.5)	-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4.2) (1.7)	- 우리기업의 아세안에 대한 빠른 투자 증가
중남미	(-7.1) (-3.2)	- 경제성장세의 둔화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12.4) (-4.0)	- 브라질 등의 자동차 현지생산 확대 및 수입제한 조치 - 선박 경기둔화로 수주 감소
중동	(12.7) (-13.9)	- 원유생산 감소와 경기침체 - 중동의 불안한 군사 및 정치 상황 - 이란에 대한 교역제재	(3.1) (-16.1)	- 이란 교역제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수출 구조
CIS	(9.0) (-2.5)	- 경제 성장률의 둔화 - 루블화 등의 통화가치 하락 - 보호무역 조치 시행	(2.1) (-1.1)	- 자동차 등 현지생산 증가

3. 산업구조 변화

(1)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우리나라 경제는 상품수출 의존으로 발전한 관계로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전체 국민 총 산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의 경우 이 비중은 50.4%로 2011년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농림어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및 서비스업도 비중은 지속 낮아졌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로 인해 상품 수출이 둔화되면 제조업 생산도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까지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표 41> 한국 산업의 산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림어업	2.2	2.0	1.9	1.8	1.9	1.7	1.6	1.6
광업	0.2	0.2	0.1	0.1	0.1	0.1	0.1	0.1
제조업	45.5	45.8	46.1	47.8	47.2	49.0	51.0	50.4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7	2.7	2.7	2.8	2.7	2.9	3.0	3.2
건설업	7.1	6.9	6.8	6.5	6.6	5.9	5.4	5.2
서비스업	42.3	42.4	42.4	41.0	41.4	40.3	38.9	39.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 한국은행

우리나라 산업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품 수출의 핵심인 제조업 산출구조를 살펴보면, 수출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제품 업종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해당 업종들이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3%에 달했다. 2005년 이후 제조업 내 산업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전기·전자, 음식료품 등에 대한 의존도가 약간 하락한 반면, 수송기계,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비중은 다소 상승했다.

<표 42> 한국 제조업의 산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7.0	6.6	6.3	6.2	6.7	5.9	5.5	5.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4.8	4.5	4.3	4.2	4.6	4.5	4.5	4.9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2.9	2.7	2.6	2.5	2.6	2.5	2.2	2.2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2	6.8	6.8	8.5	6.5	7.1	8.6	9.2
화학제품 제조업	13.7	13.4	13.5	13.7	13.3	13.7	14.0	14.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2.6	2.5	2.5	2.7	2.5	2.1	2.1
1차 금속제품 제조업	8.9	8.7	9.4	10.2	9.2	9.9	10.3	9.8
금속제품 제조업	5.7	5.8	5.9	6.0	6.0	5.7	5.4	5.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9	7.0	7.1	6.9	6.5	7.0	6.9	6.8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24.4	23.8	22.7	22.3	25.0	23.7	22.9	22.0
정밀기기 제조업	1.5	1.9	2.2	1.1	1.2	1.3	1.3	1.3
운송장비 제조업	14.4	15.1	15.7	15.0	14.7	15.0	15.0	15.2
기타 제조업	0.9	1.0	1.1	0.9	1.0	1.3	1.2	1.2

자료원 : 한국은행

2000년대 들어 한국 제조업은 이미 산업간 구조변화보다 산업내 구조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최종재보다 부품소재의 생산이 빠르게 성장했고, 국내 생산 제품의 고급화 및 고품질화, 고기술화가 진행되었다. 2011년 기준 우리 제조업 생산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고, 부가가치나 고용은 이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범용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현지화와 역수입이 진행되고 있어 부품소재에 있어서도 국내 부문은 보다 핵심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3> 부품소재산업의 제조업에서의 위상

구분	2001	2005	2010	2011
생산 (십억 원, %)	307,657 (56.1)	471,207 (58.9)	798,238 (59.6)	902,693 (60.1)
부가가치 (십억 원, %)	118,372 (57.3)	177,131 (60.9)	274,227 (62.6)	301,990 (62.9)
고용 (천 명, %)	1,349 (59.4)	1,556 (63.9)	1,691 (64.9)	1,774 (66.4)

자료 : 통계청 · 산업연구원

(2) 한국 수출의 산업별 구조변화와 최근 동향

□ 원자재 및 자본재, 중화학제품 중심의 수출구조 변화

성질별로 보면 우리 수출은 원자재와 자본재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 수출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해온데 반해, 소비재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이는 우리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고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최종소비재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부품소재와 자본재의 수출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다. 비록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소비재 중에서는 내구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13.1%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2013년 원자재 비중이 감소(36.23%→34.49%)하고 소비재 비중이 증가(14.99%→15.46%)하여 장기적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최근의 수출부진은 과거에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원자재 및 자본재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44> 우리 수출의 성질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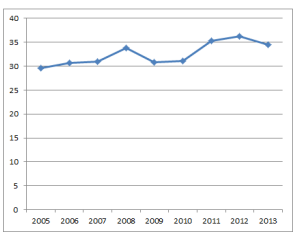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원자재	29.59	30.65	30.95	33.82	30.82	31.14	35.23	**36.23**	34.49
자본재	43.85	45.94	50.56	49.36	52.93	53.51	49.70	48.69	**49.96**
소비재	26.40	23.24	18.43	16.75	16.17	15.27	15.00	14.99	**15.46**
- 직접소비재	1.07	0.92	0.89	0.92	1.12	1.04	1.09	1.15	1.10
- 내구소비재	23.55	20.89	16.31	14.73	13.87	13.11	12.90	12.71	**13.09**
- 비내구소비재	1.78	1.43	1.22	1.11	1.17	1.11	1.01	1.13	1.27
기타	0.16	0.16	0.07	0.07	0.08	0.08	0.07	0.09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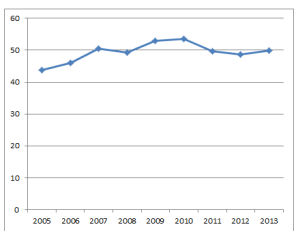
자료원 : 무역협회

<그림 22> 우리 수출의 성질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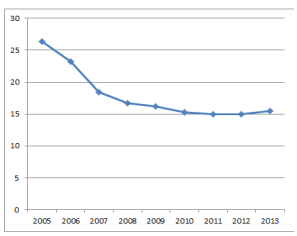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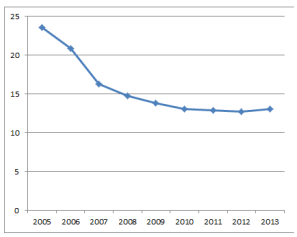
자본재



소비재



(내구소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은 비내구소비재를 제외하면 최근 2년간 대부분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인 가운데, 소비재의 수출 증가율은 2013년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해 예년대비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원자재와 자본재는 각각 2013년, 2012년에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해 이들의 수출 견인 역할이 많이 취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우리 수출의 성질별 증가율 변화 추이(2005~2013)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원자재	15.6	18.5	15.2	24.2	-21.5	29.6	34.7	1.5	-2.8
자본재	16.7	19.9	25.6	10.9	-7.6	29.7	10.6	-3.3	4.8
소비재	1.8	0.7	-9.5	3.3	-16.9	21.2	17.0	-1.4	5.4
- 직접소비재	0.8	-1.8	11.2	16.4	5.4	19.5	24.1	3.8	-1.8
- 내구소비재	3.2	1.5	-10.9	2.6	-18.9	21.3	17.1	-2.8	5.2
- 비내구소비재	-13.6	-7.8	-2.6	2.9	-8.7	21.0	9.0	10.4	14.5
기타	13.8	14.4	-53.4	27.4	-5.3	21.9	7.7	31.2	-3.2
전체	12.0	14.4	14.1	13.6	-13.9	28.3	19.0	-1.3	2.1

자료원 : 무역협회

우리나라는 자본재, 원자재, 내구소비재 등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고, 산업 분류별로는 중화학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보였다. 2013년 기준 상품수출의 91.3%가 중화학제품이고,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2005년 이후에도 중화학제품의 비중은 늘고 경공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화학제품 중에서도 기계와 소재 부문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IT제품의 비중은 감소했다.

<표 46> 우리 수출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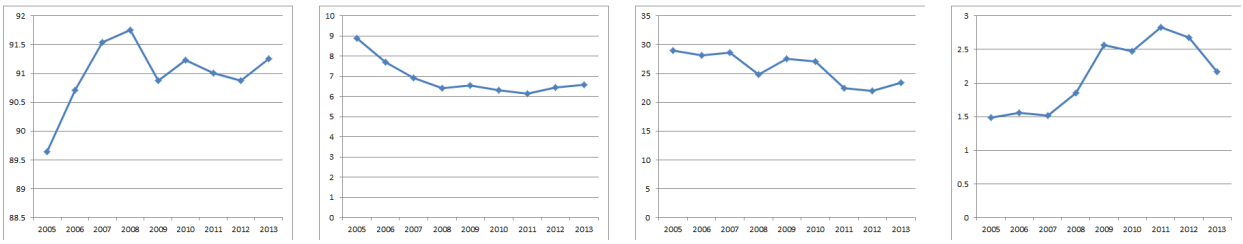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차산품	1.49	1.56	1.52	1.85	2.57	2.47	2.83	2.68	2.17
공산품	98.51	98.44	98.48	98.15	97.43	97.53	97.17	97.32	97.84
- 경공업제품	**8.88**	7.72	6.94	6.41	6.55	6.30	6.16	**6.45**	**6.58**
- 중화학제품	89.64	90.71	91.54	91.75	90.88	91.23	91.01	90.88	91.25
· IT제품	**29.01**	28.12	28.67	24.81	27.59	27.10	22.44	21.95	**23.39**
· 기타	60.63	62.59	62.88	66.94	63.29	64.13	68.57	68.93	67.87

자료원 : 무역협회

다만, 지난 2년간 단기적으로 경공업과 IT제품의 수출비중이 오히려 상승해 장기적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인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세부산업별 수출변화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재나 부품소재, 내구소비재 등은 경기변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면 자본재나 부품소재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가계에서는 내구소비재의 수요를 미루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23> 우리 수출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중화학제품 경공업제품 IT제품 1차산품



2012년과 2013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산업구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3년의 경우 그동안 수출 증가율이 부진했던 IT제품의 수출이 전체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표 47> 우리 수출의 산업 대분류별 증가율 변화 추이(2005~2013)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차산품	-38.6	20.4	10.7	38.4	19.8	23.1	36.8	-6.7	-17.4
공산품	13.5	14.3	14.2	13.2	-14.5	28.4	18.6	-1.2	2.7
- 경공업제품	-1.3	-0.4	2.6	4.9	-12.0	23.5	16.3	3.2	4.3
- 중화학제품	15.2	15.8	15.2	13.8	-14.7	28.8	18.8	-1.5	2.6
· IT제품	6.4	10.9	16.4	-1.7	-4.2	26.0	-1.4	-3.5	8.8
· 기타	19.9	18.1	14.7	20.9	-18.6	30.0	27.3	-0.8	0.6
전체	12.0	14.4	14.1	13.6	-13.9	28.3	19.0	-1.3	2.1

자료원 : 무역협회

□ 조선 및 철강 등이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

세부품목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장기추세로 전자제품・섬유류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전자부품・광산물(석유제품)・조선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은 최고 21.74%('05)에서 10.36%('12)까지, 섬유류는 4.90%('05)에서 2.85%('13)까지 하락했다.

전자제품의 경우, 해외생산구조가 정착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결과다. 전자부품은 2010년까지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최근 부품까지 해외생산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전자산업의 위상은 최근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수출규모가 적은 기타 생활용품, 잡제품 등 경공업제품들의 비중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8> 우리 수출의 세부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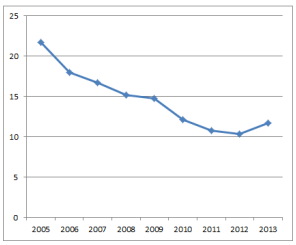
(단위 : %)

세부산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림수산물	1.20	1.04	1.02	1.03	1.26	1.19	1.25	1.32	1.27
광산물	**5.69**	6.79	6.93	9.55	7.40	7.74	10.48	11.44	**10.17**
화학공업제품	**10.51**	10.46	10.77	10.87	10.94	11.07	11.72	11.92	**12.3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2.60	2.39	2.31	2.21	2.36	2.42	2.44	2.67	2.75
섬유류	4.90	4.07	3.62	3.16	3.20	2.98	2.87	2.85	2.85
생활용품	0.94	0.82	0.71	0.61	0.63	0.58	0.55	0.63	0.68
철강	5.88	5.97	6.20	7.08	6.33	6.19	6.93	6.75	5.81
비철 금속	1.68	2.35	2.29	1.97	1.70	1.82	1.79	1.67	1.69
기타 금속	0.26	0.23	0.21	0.22	0.22	0.20	0.21	0.24	0.26
일반기계	8.13	7.80	8.88	9.32	7.83	8.46	8.96	9.31	9.14
자동차	13.35	13.26	13.38	11.61	10.21	11.66	12.32	13.11	13.35
조선	**6.23**	6.80	7.48	10.23	**12.41**	10.53	10.19	**7.26**	**6.64**
기타 수송기계	0.35	0.44	0.42	0.42	0.45	0.53	0.40	0.46	0.50
전자제품	**21.74**	18.00	16.68	15.17	14.73	12.11	10.78	10.36	**11.75**
전자부품	**14.37**	17.25	16.94	14.11	17.74	**20.06**	16.72	17.20	**17.81**
전기기기	1.66	1.84	1.84	1.98	2.19	2.11	2.07	2.49	2.63
잡제품	0.51	0.51	0.32	0.47	0.40	0.35	0.31	0.34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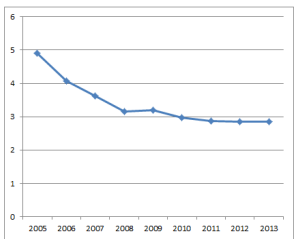
자료원 : 무역협회

<그림 24> 우리 수출의 세부 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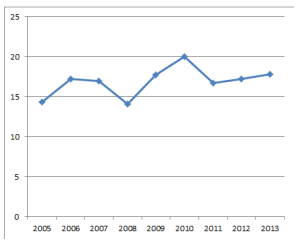
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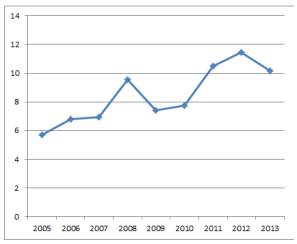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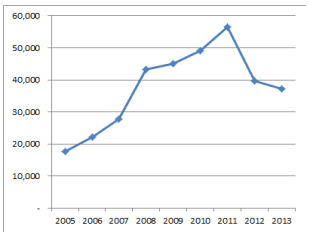
전자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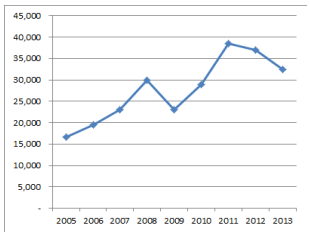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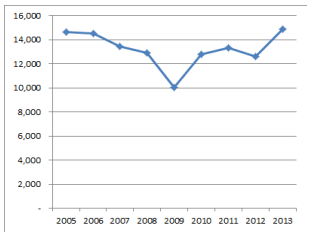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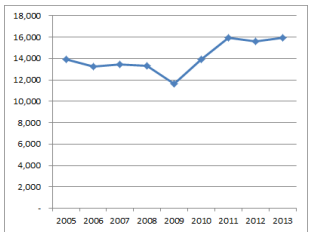
철강



가전



섬유



그러나 최근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조선과 철강이다. 조선의 경우, 장기 추세로 상승곡선을 타다가 최근 2년간 수출 증가율이 각각 -29.8%, -6.5%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세계적 조선경기 하락에 따른 것으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수주 감소가 2012년 이후 반영된 결과이다. 조선의 수출 부진은 세계적 조선 시황의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산업은 주기적으로 활황과 불황을 경험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 조선산업의 불황은 주기적 불황기에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영향을 주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철강 수출 둔화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철강 잉여 생산능력은 5억 톤으로 전체 수요의 30% 수준인데, 이 중의 절반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물 수출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석유제품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을 포함한 광산물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4%까지 상승했지만 2013년 들어 10%대로 하락하면서 수출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로 최근 2년간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세부품목 중 해외생산이 크게 증가한 디스플레이의 수출은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결국 최근의 수출 둔화의 주요인은 선박·철강·액정디바이스·컴퓨터·석유제품 등의 부진이다. 장기적 추세로 수출 비중이 하락한 가전제품이나 섬유는 오히려 2011년 대비 2013년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9> 주종 수출품목의 수출증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수출증감액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2012	2013	계
선박류	39,753	-29.8	37,168	-6.5	**-16,835**	**-2,585**	**-19,420**
철강제품	36,971	-3.9	32,497	-12.1	**-1,513**	**-4,474**	**-5,987**
액정디바이스	28,160	1.3	25,971	-7.8	351	**-2,189**	**-1,838**
컴퓨터	8,462	-7.6	7,763	-8.3	**-694**	**-699**	**-1,393**
섬유류	15,595	-2.1	15,955	2.3	-337	360	23
무선통신기기	22,751	-16.7	27,578	21.2	**-4,574**	4,827	253
일반기계	47,914	4.6	46,415	-3.1	2,097	**-1,499**	598
석유제품	56,098	8.7	52,787	-5.9	4,498	**-3,311**	1,187
가전	12,635	-5.2	14,884	17.8	-693	2,249	1,556
석유화학	45,882	0.6	48,377	5.4	295	2,495	2,790
자동차부품	24,610	6.6	26,079	6.0	1,522	1,469	2,991
자동차	47,201	4.2	48,635	3.0	1,889	1,434	3,323
반도체	50,430	0.6	57,143	13.3	284	6,713	6,997

자료원 : 무역협회

(3) 대중 수출의 산업적 특성

□ 대중 수출 여건의 변화

우리나라 전체 수출구조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2013년 기준 26.1%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해외투자를 통한 가치사슬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립 완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부품소재·자본재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분업구조가 정착되었지만, 최근 중국의 자본재 및 부품소재산업 성장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이들의 수입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인건비 상승 등 중국 내 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기지를 동남아나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 원동력 상실을 의미하며, 우리 전체 수출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 대중 수출구조의 주요 특징

우리 수출이 성질별로 자본재와 부품소재 위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중국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실제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5.3%에 불과한 반면, 기계류 및 부품 등 자본재 비중은 61%를 상회해 자본재 의존도가 상당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중은 3년 연속 상승세로 자본재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대중 수출은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중국의 내수촉진 정책 및 소비자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재 수요 확대 움직임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다. 한편, 최근 소재부문이 포함된 원자재의 비중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표 50> 對중국 수출액 중 성질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원자재	39.8	40.8	38.8	40.8	36.6	33.8	37.6	36.1	33.6
자본재	52.4	51.6	54.7	52.6	57.2	60.7	56.7	58.9	61.1
소비재	7.7	7.4	6.5	6.7	6.2	5.5	5.7	5.0	5.3
- 직접소비재	0.4	0.3	0.4	0.5	0.5	0.5	0.7	0.6	0.6
- 내구소비재	5.9	5.6	5.0	5.2	4.8	4.0	4.2	3.5	3.7
- 비내구소비재	1.4	1.4	1.2	1.0	0.9	1.0	0.9	0.9	0.9
기타	0.11	0.1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자료원 : 무역협회

※ 비중은 항목별 對중국 총 수출액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대중국 수출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다. 우리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011년 71.2%까지 달했다. 2013년에도 대중국 수출에서 부품소재 비중은 64.4%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2년 해당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도 더 이상 대중 부품소재 수출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재부문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부품도 2011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이 범용소재는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반면, 첨단소재 부문은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품 부문의 경우 우리 전자부품의 수출 부진으로 전체 대중 수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종합하면 우리의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 부진은 최근 대중 수출, 그리고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한국의 對中 수출액 중 부품소재 비중변화 추이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8.5	60.7	61.8	61.5	60.3	70.7	71.2	**65.7**	**64.4**

자료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또한 우리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 부진은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자체가 위축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최대 59%였지만 2013년 39.2%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여타부문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해당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기도 하다. 특히 최근 2012~2013년 부품소재의 비중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 우리의 대중 부품소재 수출은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해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52>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전체 수입액	부품소재 수입액	부품소재 수입 비중
2005	660,222	389,727	59.0
2006	791,794	315,130	39.8
2007	956,261	539,877	56.5
2008	1,131,469	548,112	48.4
2009	1,003,893	492,151	49.0
2010	1,393,909	635,991	45.6
2011	1,741,624	697,337	40.0
2012	1,817,344	712,948	39.2
2013	1,941,466	760,155	39.2

자료원 : 무역협회

한편, 우리 대중 수출구조의 특성을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주로 공산품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산품 중에서도 특히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94%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 역시 원자재 및 자본재, 부품소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한 결과이다. 최근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수출에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조선의 대중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IT 제품의 비중이 특히 높은데 대중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2013년 36%를 상회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주도했던 IT제품은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표 53> 對중국 수출액 중 산업 대분류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차산품	0.8	0.8	1.0	1.4	1.2	1.5	2.0	1.5	1.3
공산품	99.2	99.2	99.0	98.6	98.8	98.5	98.0	98.5	98.7
- 경공업제품	8.3	7.5	6.5	5.6	5.5	5.1	4.9	4.9	4.9
- 중화학제품	90.9	91.7	92.6	93.0	93.3	93.4	93.1	93.6	93.8
· IT제품	30.2	31.2	35.0	31.5	38.7	39.7	35.0	36.3	36.3
· 기타	60.7	60.4	57.6	61.5	54.6	53.7	58.1	57.2	57.5

자료원 : 무역협회

※ 비중은 항목별 對중국 총 수출액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 범용소재 및 전자부품 등 대중 수출 성장세 둔화

2012년과 2013년에도 대중국 수출에서 자본재 수출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재를 포함한 원자재 분야는 감소하거나 성장세가 둔화됐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에서 원자재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최근 철강, 섬유, 비철금속 등 소재부문의 대중 수출이 크게 둔화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대중 수출에서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1.7%에 달했지만, 2010년 35.1%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전자제품의 비중 또한 2013년 13.1%이었는데 과거 17%대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최근 한중 분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전자제품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향후 대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중 수출에서 화학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9.3%로 전자부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도 화학공업의 생산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있고, 석유생산국가에서 저렴한 원료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14년 타격이 우려된다.

<표 54> 세부 산업별 對 중국 수출액에서 각 항목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농림수산물	0.6	0.5	0.6	0.6	0.6	0.6	0.8	0.8	0.8
광산물	5.5	7.5	6.6	9.6	5.6	6.1	8.5	7.8	6.0
화학공업제품	18.9	19.4	20.0	19.5	19.4	17.9	19.4	19.3	19.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2.1	2.1	2.0	1.9	2.0	2.0	2.0	2.2	2.4
섬유류	4.8	4.1	3.4	2.9	2.6	2.3	2.2	2.0	1.9
생활용품	1.1	1.1	0.9	0.7	0.7	0.5	0.5	0.5	0.5
철강	6.9	5.1	4.2	4.8	5.2	4.0	3.9	3.3	3.1
비철금속	2.8	4.0	3.7	3.0	2.7	2.5	2.5	2.4	2.0
기타금속	0.2	0.2	0.2	0.2	0.2	0.2	0.2	0.2	0.2
일반기계	12.9	10.6	11.4	12.3	8.6	10.3	10.5	8.9	9.3
자동차	5.4	4.7	3.8	3.2	4.1	4.6	5.0	4.5	5.0
조선	0.2	0.3	0.6	1.8	1.8	1.4	1.4	1.0	1.2
기타 수송기계	0.1	0.1	0.0	0.1	0.0	0.1	0.0	0.0	0.0
전자제품	19.1	17.6	17.5	14.9	12.9	9.4	8.9	10.8	13.1
전자부품	16.0	19.1	21.9	21.4	30.5	35.1	31.2	33.0	31.7
전기기기	3.4	3.6	3.1	2.9	3.0	2.8	2.8	3.2	3.4
잡제품	0.2	0.2	0.1	0.1	0.1	0.1	0.1	0.1	0.1

자료원 : 무역협회

※ 비중은 항목별 對중국 총 수출액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한편, 2012년과 2013년 대중 수출에서 석유제품을 비롯한 광산물, 섬유류, 철강, 비철금속 등은 수출 둔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섬유류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및 비철금속의 경우 중국도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영향이 지대한 주요산업으로는 화학공업 제품, 비철금속, 전자부품, 전기기기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화학공업제품과 전자부품 분야는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의 대중 수출의 위축은 우리 전체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장단기 수출 둔화 산업

장기적인 트렌드로 산업별 수출을 살펴보면 섬유류, 기타 생활용품·잡제품 등 경공업 및 IT제품의 수출은 둔화되어왔다. 성질별로는 소비재 비중은 하락하고 부품소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증가를 보여 왔다.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화학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수출의 94% 가량을 차지했지만, 경공업제품은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하락했다. 부품소재 또한 대중 수출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수출이 둔화된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장기적 트렌드와는 달리 세부산업별로는 경공업과 IT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여타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질별로는 소비재 비중은 상승하고 원자재 비중이 하락하였다.

<표 55> 장단기 수출 둔화 산업군 및 산업

장기적 성장둔화 트렌드	단기적 위축
- 소비재 - 경공업제품 - 전자제품 - 섬유 - 기타 생활용품·잡제품	- 자본재 및 원자재 - 중공업 제품(IT분야 이외) - 전자부품 - 조선 - 철강 - 석유제품 - 섬유 - 부품소재

특히 전반적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이 최근에 현실화된데 기인한다. 철강 수출 또한 위축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공급과잉과 수요위축으로 인한 결과이다. 석유제품을 포함한 광산물의 수출 감소, 전자부품의 성장세 둔화 또한 수출둔화의 주요 요인이다.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섬유·화학·철강 등의 소재와 부품 중에서는 특히 일반기계부품, 조립금속부품, 정밀기기부품, 전자부품 등의 수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던 중화학공업 제품과 부품소재가 더 이상 수출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 단기적 원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최근의 수출 둔화

결론적으로 산업구조 측면의 장기적 트렌드와 최근의 수출 둔화 동향은 서로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2012년과 2013년 수출 부진은 장기적 산업구조 문제라기보다 단기적으로 나타난 세계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특히 경기 침체로 우리 조선 수출 급격한 감소, 철강 등 소재산업의 부진,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둔화, 일본 특수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큰 폭 증가했던 석유제품 수출 감소 등은 모두 최근 발생한 현상이다.

□ 높은 수출 증가세 회복은 불투명

장기 트렌드와는 별도로 최근의 변화에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조선 산업의 부진은 세계 조선시황이 악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회복기가 도래하면 일정부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조선 산업이 부상하면서 과거와 같이 우리 주도적 시장 지배구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경공업제품·가전·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자동차와 같은 제품도 최근 들어 국내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어 이에 따른 수출도 부진해지고 있다.

소재산업의 경우, 우리 제품의 주요 수요국인 중국이 급속도로 공급능력을 자체 확대하면서 최근 수출 둔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은 중국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돌입해 성장둔화와 투자부진 등으로 우리 제품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화학산업은 중국이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해 일정기간 수출 확대가 기대되나, 중국과 원유 생산국들이 공급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감에 따라 향후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부품·자동차부품 등의 경우도 우리 수출제품이 빠른 속도로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 2014년 대형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전자 부품의 중국공장이 본격 가동되거나 가동될 계획에 있고, 국내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부품의 91%를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결국 최근의 수출둔화는 조선시황 악화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약화 또한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전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으로도 대규모 수요 발굴이 가능하다. 과거엔 해외에서 시작한 수출주도 산업을 우리가 추격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따라잡을 만한 산업부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는 추격전략으로 성공했지만 앞으로는 선도전략이 필요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동차·휴대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의 산업구조는 완제품은 직접 수출보다 해외생산하고, 이를 위한 부품소재 및 장비 등은 수출하는 구조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수출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예에서 보듯 범용소재나 부품의 경우 중국 등에서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차별화된 제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아직 중국 등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든 일본·독일·미국 주도의 첨단 핵심소재나 첨단부품, 핵심장비 등의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부품이나 소재, 일부 완제품 모두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융·복합은 최근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T 융합뿐만 아니라 문화와의 융합, 소재간의 융합 등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 생산기지의 재조정을 통한 수출 확대 전략

완제품 및 모듈 부품의 글로벌 생산기지는 중국을 탈피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국의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부품소재가 현지화 되면서 우리의 수출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국 투자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동남아 등 다른 시장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남아 등 신규

시장은 아직 기술 수준이 낮아 일정기간 우리 부품소재의 수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표 56>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

품목	수출변화 양상	향후 전망
반도체	장단기로 큰 문제없음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 및 수출 위축
석유제품	단기적 급상승에 이은 하락	국내외 수급상황에 영향을 받음
자동차	최근 증가율 둔화로 전환	국내 생산능력 한계로 수출증가세 크게 둔화
석유화학	최근 증가율 둔화로 전환	중국, 산유국의 생산능력 확대로 수출 위축
일반기계	최근 증가율 둔화로 전환	세계적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 높은 증가세 기대
선박류	최근 큰 폭 감소	세계 선박경기에 따라 변화 가능, 중국 등의 변수로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은 쉽지 않음
철강제품	최근 큰 폭 감소	중국 등의 공급과잉으로 성장세 둔화
무선통신기기	장기적 하락 추세, 작년 스마트폰 보급 확대	스마트폰도 해외생산이 확대되면 수출 감소 전망
자동차부품	급성장에서 증가율 둔화	자동차 해외생산이 확대되면 일정정도 수출 증가 기대
액정디바이스	감소로 전환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감소 전망
섬유류	지속적인 위축	산업용 섬유 및 특수 섬유 등에서 성장 기대
가전	지속적인 위축	전반적으로 위축추세 지속, 그러나 스마트 가전 등에서 성장 기대
컴퓨터	지속적인 위축	해외 생산으로 지속적인 위축 상황

4. 해외투자 진출

(1)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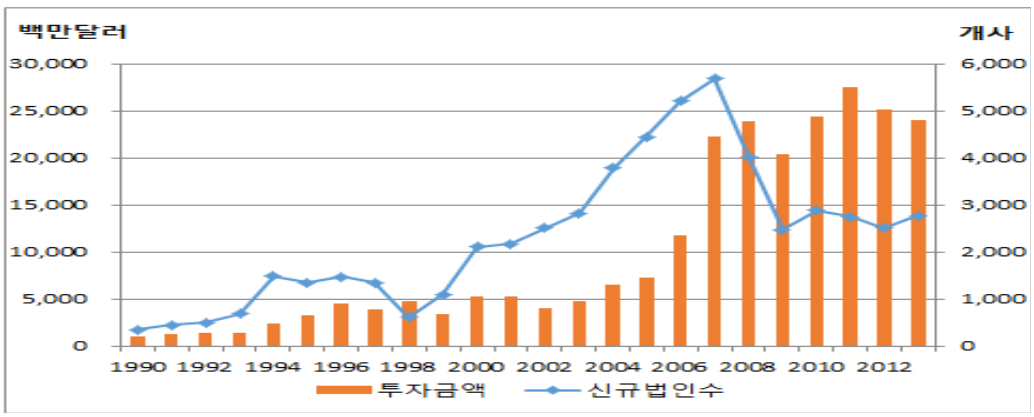
□ 개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223억 달러로 신기록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GDP 대비 2%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해외직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0억 달러 내외였다가 2004년 65억 달러, 2005년 72억 달러, 2006년 118억 달러로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부진했던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4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신설법인 수는 2007년 5,690개사까지 이르기도 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3,000개사에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신규 법인의 창출은 한계에 달했고 손회사 창설, 기존회사 투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조정과 같이 한 단계 높은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과 매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지법인 매출은 2005년 1,972억 달러에서 2012년 6,74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해 우리나라 수출액을 상회했다. 한국이 과거의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 즉, 현지생산과 영업을 통한 글로벌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5>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자료원 : 수출입은행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개방국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액의 대GDP 비율은 2007년에서 2013년 기간 평균이 한국 2.0%, 일본(2012년까지) 1.9%, 미국 2.6% 그리고 네덜란드는 5.1%이다. 투자스톡의 대GDP 비율로 보면, 2013년 한국은 16.8%, 일본(2012년)은 한국보다 조금 높은 17.7%, 미국은 36.6%로 한국의 2배 이상이며 네덜란드는 138.4%로 8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7> 해외직접투자 비교

(단위: %)

연도	해외직접투자 / GDP				해외직접투자 스톡 / GDP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2005년	0.8	0.5	1.0	19.9	4.6	23.4	8.5	104.6
2006년	1.2	2.1	1.2	11.4	5.2	24.6	10.4	122.9
2007년	1.9	3.7	1.7	7.2	7.1	28.6	12.6	125.5
2008년	2.2	2.4	2.8	7.9	10.5	29.6	14.2	105.7
2009년	2.1	2.2	1.6	3.6	14.4	32.6	15.0	125.8
2010년	2.3	2.4	1.1	8.9	14.1	33.1	15.4	129.2
2011년	1.9	2.8	1.9	4.8	15.4	34.5	16.5	122.7
2012년	2.1	2.6	2.1	-0.7	17.9	35.8	17.7	133.8
2013년	1.5	2.4	-	4.3	16.8	36.6	-	138.4

자료원 : IMF, 한국은행

주 : 국제수지기준 통계임

□ 업종별 및 지역별 구조

업종 대분류별로 해외직접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도소매업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광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광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5.9%에 불과하였으나 자원가격 상승과 해외자원 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에 30%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22.7%로 하락했다.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200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20.5%에 달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10% 이하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분야에서 허용되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한했으나, 이러한 제한이 풀리고

다른 업종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도소매업 투자 비중은 낮아진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부분 기간 중 제조업보다 낮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결과로 분석된다.

<표 58>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2004년 누계	0.9	5.9	51.8	20.5	20.9
2005년	0.4	6.7	51.6	14.7	26.6
2006년	0.4	12.3	48.2	9.8	29.3
2007년	0.4	9.2	37.4	11.5	41.5
2008년	0.4	16.7	30.7	14.8	37.4
2009년	0.5	26.7	22.6	8.3	41.9
2010년	0.5	30.0	29.6	5.1	34.8
2011년	0.5	27.5	32.6	7.8	31.6
2012년	0.6	29.0	31.5	6.1	32.8
2013년	0.4	22.7	39.5	7.8	29.6

자료원 : 수출입은행

제조업의 투자 구조에서는 주요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2013년을 제외한 2005~2012년 기간 중 전자부품, 영상 및 통신장비 업종이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까지의 누적 비중(33.3%)보다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역사가 오래되어 과거 상당부분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9> 주요 제조업종의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식음료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통신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2004년 누계	3.9	11.6	5.9	3.3	6.6	8.5	33.3	1.7	2.4	11.1
2005년	5.7	10.5	6.3	3.2	8.1	4.0	23.2	2.5	3.6	19.3
2006년	5.1	6.9	8.9	2.7	4.1	4.9	26.4	4.2	2.8	17.1
2007년	7.3	5.2	7.1	2.8	6.2	3.5	25.2	3.9	4.2	19.9
2008년	7.2	5.1	5.6	2.0	9.3	2.5	12.6	5.8	5.8	22.0
2009년	5.0	4.8	5.9	4.8	7.6	3.8	16.5	6.7	8.3	20.4
2010년	3.7	5.1	22.9	1.6	6.3	3.2	24.7	3.3	6.7	9.4
2011년	2.5	6.5	6.0	1.3	21.3	3.7	22.7	2.5	7.7	12.3
2012년	2.9	5.1	4.9	1.1	10.9	3.7	21.9	3.4	4.9	17.7
2013년	4.1	3.9	4.6	0.7	8.5	1.8	40.2	4.7	2.4	14.2

자료원 : 수출입은행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는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2004년까지 누계 기준 비중인 11.1%를 2010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속 상회했다. 이러한 자동차 업계의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지위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의 최대 투자국 중국과 미국에 대한 2012년 투자 비중은 2004년까지 누계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투자 대상국이 다변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중국의 경우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대중국 투자는 2005년 39.2%까지 달하기도 했으나, 2008~2012년까지 2004년 누계 비중인 20.7%를 계속 하회했다.

<표 60> 주요 국가 및 지역별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중국	ASEAN		NAFTA		MERCOSUR	EU	CIS
		베트남	ASEAN	미국	NAFTA			
2004년 누계	20.7	2.5	12.6	25.5	27.5	1.0	14.9	1.4
2005년	39.2	4.5	10.2	17.4	18.9	2.4	7.9	1.0
2006년	29.5	5.0	11.7	15.9	19.7	1.0	9.3	3.3
2007년	23.9	5.8	14.1	16.2	17.4	1.2	14.6	2.7
2008년	16.0	5.8	15.5	21.3	23.3	2.7	10.2	5.4
2009년	10.8	3.0	10.4	17.5	29.7	0.7	21.7	3.1
2010년	15.0	3.5	18.0	13.9	19.2	4.4	23.4	2.1
2011년	13.4	3.8	17.9	21.7	27.0	4.3	13.4	0.9
2012년	14.4	3.8	17.6	17.5	22.2	3.9	11.9	1.3
2013년	21.0	4.6	15.8	14.2	18.9	2.2	11.3	1.3

자료원 : 수출입은행

주요 권역별로 보면, 아세안(ASEAN)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평균 15.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7년 전체 투자의 5.8%를 기록해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제4위 국가로 부상했다.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3년 4.6%로 다시 회복했다. CIS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6~2010년 기간 중 평균 3.3% 수준으로 그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08년 5.4%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며 2013년 1.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 및 투자목적별 구조

기업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금액, 신설법인 수 등에서 대기업 비중이 2009년 이후 대부분 2004년 누계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 주도의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확대도 이에 기여했다.

<표 61> 기업규모별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기타 (비영리단체 등)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2004년 누계	73.8	14.9	23.2	56.3	0.6	7.2	2.3	21.5	0.1	0.2
2005년	58.9	7.3	31.6	35.6	1.7	10.1	7.9	47.1	0.0	0.0
2006년	65.5	6.9	27.0	36.6	1.1	8.4	6.4	48.1	0.0	0.0
2007년	69.5	8.2	24.3	39.3	0.7	7.1	4.7	45.3	0.7	0.1
2008년	72.7	11.1	23.2	45.2	0.4	4.8	3.5	38.9	0.2	0.1
2009년	83.5	12.9	14.9	46.2	0.2	4.4	1.3	36.5	0.0	0.0
2010년	84.4	14.7	13.5	45.4	0.3	4.1	1.8	35.7	0.0	0.1
2011년	82.5	15.6	14.0	45.4	0.2	3.9	1.1	34.9	2.2	0.3
2012년	84.0	15.4	13.4	43.9	0.2	3.9	1.7	36.6	0.7	0.3
2013년	78.8	14.8	19.1	48.7	0.2	2.6	1.4	33.6	0.4	0.3

자료원 : 수출입은행

투자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에서 2005년 이후 투자금액 비중이 2004년까지 누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출촉진의 경우 투자금액 비중이 2013년 기준 20% 이하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제3국 진출의 비중은 2004년 투자 누계 기준으로 0.5%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높아져 2013년에는 8.5%에 달하였다. 이는 무역의 자유화로 진출대상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여건이 좋은 인접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2> 투자목적별 비중 추이 : 투자금액 기준

(단위: %)

연도	자원 개발	수출 촉진	보호무역 타개	저임 활용	원자재 확보	선진기술 도입	현지시장 진출	제3국 진출
2004누계	16.3	50.6	2.7	9.1	1.1	3.4	16.1	0.6
2005년	11.3	31.0	2.9	15.0	1.2	2.1	32.6	3.8
2006년	17.1	24.6	1.7	12.1	0.6	1.4	36.6	5.9
2007년	10.8	28.1	0.7	6.8	0.2	2.0	46.7	4.7
2008년	18.5	18.8	0.5	7.4	0.0	0.6	46.8	7.4
2009년	28.3	16.8	0.3	5.6	0.0	3.2	37.4	8.3
2010년	31.4	8.6	0.2	5.1	0.0	2.9	45.2	6.6
2011년	28.9	17.1	0.3	7.2	0.0	1.7	35.8	9.0
2012년	31.6	11.0	0.2	3.9	0.1	5.6	39.2	8.5
2013년	27.5	20.2	0.2	2.8	0.0	2.6	38.3	8.5

주 : 기타를 제외한 비중임

(2)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실증 연구에서 수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입과 대체관계인가 혹은 보완관계인가의 여부는 오랜 기간 동안 학문적 검증의 대상이 되었는데, 보완관계라는 쪽의 결과가 더 많았다. 다만, 해외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형태, 투자목적,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수출을 확대시키는 반면, 선진국으로의 투자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은행(1995)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으로의 수출을 증대시키지만, 전세계 투자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섬유・의복, 1차 금속,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업종의 국제직접투자와 수출과는 정(+)의 관계, 비금속업종은 부(-)의 관계이지만, 신발・가죽과 석유・화학업종의 경우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동과 강인수(1995)의 분석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특히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Ryou(1995)는 1987년, 1990년, 1993년의 횡단면 통계를 사용하여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회귀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제직접투자가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시키지만 수입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개도국에 대한 국제 직접투자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보다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병기외(2007년)의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10%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업종군별로는 성장산업(기계장비, 수송장비, 석유 및 석탄과 화학제품, 전자통신, 제1차 금속 등을 포함)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확대시킨 결과가 나왔다. 반면 사양산업(섬유, 신발 및 가죽, 기타 제조업, 조립금속, 비금속광물, 목재 및 종이와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 및 담배 등을 포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업종별로는 수송장비와 기계에서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자통신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외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63> 제조업 국제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구분		효 과	중심 재화
수출	수출대체효과	해외생산 제품이 투자국 및 제3국 시장에서 수출품을 대체하므로 수출 감소	소비재
	수출유발효과	해외생산 거점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조달하여 수출 증가	자본재
		해외생산에 필요한 부품·중간재의 수출 증가	자본재, 중간재
		모기업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투자국에 대한 모기업의 수출 증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모기업 생산품)
수입	수입전환효과	국내생산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사용 원재료, 부품 등의 감소로 수입 감소	자본재, 중간재
	역수입효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수입되므로 수입 증가	소비재
		생산공정 일부를 해외 이전하여 생산 거점으로부터 중간재·부품 등을 공급받기에 본국의 수입이 증가	자본재, 중간재

자료원 : 산업연구원

수출유발효과로는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생산설비 수출, 해외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중간재의 수출, 그리고 모기업 인지도 상승에 따른 모기업 수출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생산설비 수출이나 모기업 인지도에 따른 효과는 해외직접투자 초기 단계에는 크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법인이 부품 및 중간재를 모기업과 국내기업에 의존하는 성향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해진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규모의 효과로 인해 수출유발효과는 지속될 수 있다.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러한 효과는 지속 가능해 보이는데, 다음에서 살펴볼 기업 내 무역 현황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다.

수출대체효과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투자국과 제3국 시장에서 모기업의 수출품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우위 변화 과정에 따라서 외국기업이 생산할 제품이 대체되면 우리의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표 64> 주요 업종별 對현지법인 수출액/투자잔액 비율의 추이

(단위: %)

업종	2008	2009	2010	2011	2012
제조업	**1.32**	**1.20**	**1.39**	**1.65**	**1.88**
식음료	0.02	0.05	0.06	0.16	0.18
섬유	0.41	0.25	0.45	0.59	0.27
의복	0.54	0.47	0.58	0.37	0.48
신발	1.16	1.44	1.61	1.41	1.34
화학	0.45	0.44	0.48	0.74	1.09
고무/플라스틱	0.71	1.22	0.70	0.69	1.05
1차금속	0.69	0.57	1.12	0.96	0.90
금속제품	2.31	1.74	2.25	2.71	1.78
전기전자	2.32	2.11	2.46	3.17	3.30
정밀기기	3.61	1.32	1.95	0.98	1.19
전기장비	1.03	1.19	1.10	1.78	1.83
일반기계	1.55	1.15	1.44	0.85	0.80
자동차	1.26	1.25	1.48	1.89	1.74
도·소매업	6.86	5.95	6.20	6.34	5.46
광업	0.00	0.04	0.07	0.03	0.02
全산업	**2.13**	**1.79**	**1.77**	**1.73**	**1.67**

자료원 : 수출입은행
주 : 달러화 기준

이러한 수출효과를 대현지법인 수출액을 투자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업종별로는 2012년 중 도·소매업 투자가 5.46%로 전 산업

비율인 1.67%를 크게 상회했으며 제조업은 1.88%로 약간 높은 수준이다. 즉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잔액 1달러당 5.46달러의 수출이 발생하였다는 의미인데, 수출입이 투자의 목적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효과가 낮은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가 3.30%로 가장 높고 이어 전기장비와 자동차가 각각 1.83%와 1.74% 순이다. 광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0.02%로 수출촉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2008년 1.32%에서 2012년 1.88%로 상승해 투자로 인한 수출촉진효과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전 산업의 경우 2008년 2.13%에서 2012년 1.67%로 하락하였는데, 수출효과가 낮은 광업의 투자 비중이 높아진데다 수출효과가 높은 도·소매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소매업의 비율이 6.86%에서 5.46%로 낮아진 것은 제조업이 직접 무역거래에 참여하고 신규투자도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5> 주요 지역별 對현지법인 수출/투자잔액 비율의 추이

(단위: %)

지역	2008	2009	2010	2011	2012
아 시 아	**2.10**	**1.62**	**1.84**	**1.97**	**2.01**
중국	1.26	1.11	1.31	1.79	1.71
ASEAN	2.48	1.49	2.00	1.75	1.95
유 럽	**2.51**	**2.64**	**2.31**	**1.76**	**1.45**
EU	2.56	2.68	2.24	1.78	1.28
북 미	**2.19**	**1.81**	**1.56**	**1.67**	**1.62**
미국	2.07	1.96	1.77	1.92	1.86
캐나다	7.23	0.82	0.71	0.69	0.68
중 남 미	**0.88**	**0.86**	**1.09**	**0.79**	**0.87**
전 지 역	**2.13**	**1.79**	**1.77**	**1.73**	**1.67**
선진국	2.30	2.15	1.87	1.71	1.65
개도국	1.99	1.47	1.68	1.74	1.68

자료원 : 수출입은행

對현지법인 수출액의 대투자 잔액 비율을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아시아 지역이 2.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미, 유럽 순이다. 중남미는 0.87%로 아시아의 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시아에는 제조업 현지법인이 집중되어 있고 중남미는 광업 및 서비스업 현지법인이 많아 산업별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미의 경우 지리적으로 먼 위치에 있다는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해외직접투자는 현지법인과의 거래 등으로 수출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개도국, 업종별로는 성장산업에서 수출 확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면 수출 확대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여 국내 가치사슬에서 공동화가 유발될 경우는 국내 생산과 수출 공급 능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3) 기업 내 무역 현황

우리나라의 對현지법인 수출은 2008년 1,270억 달러에서 2012년 2,04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수출입은행 통계로 전수조사 아님[11]).

<표 66> 현지법인 매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기업	매출	3,361	3,555	4,448	5,068	6,226
	對현지법인 수출	1,220	1,236	1,358	1,625	1,924
	對현지법인 수입	536	499	714	840	1,190
	수지	684	737	644	785	734
중소기업	매출	220	240	330	451	494
	對현지법인 수출	49	66	89	116	114
	對현지법인 수입	54	58	91	121	104
	수지	-6	8	-3	-5	10
전체 현지법인	매출	3,587	3,807	4,788	5,535	6,741
	對현지법인 수출	1,270	1,303	1,449	1,744	2,041
	對현지법인 수입	591	559	807	962	1,296
	수지	679	744	642	781	745
전체 수출에서 현지법인 수출의 비중		30.1	35.9	31.1	31.4	37.3

자료원 : 수출입은행

對현지법인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0.1%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35.9%로 높아졌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1.1%와 31.4%로 하락한 후 2012년 다시 37.3%로 증가하였다.

11)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주요 현지법인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수조사의 현황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해 추세 분석에 유용

2012년은 우리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데 반해 현지법인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2,041억 달러로 17.0% 증가해 그 비중도 상승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효과도 작용했다. 전체 수출이 13.9% 감소한 2009년에도 법인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안정적임을 의미하며, 수출 확대가 매우 높은 시점에는 일반적인 (arms' length) 수출이 크게 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행태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했으나, 현지법인으로 수출 비중은 2011년 63.2%에서 2012년 77.6%로 증가하였다.

<표 67> 對현지법인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한 국		일 본	
	對현지법인 수출비중	수출증가율	對현지법인 수출비중	수출증가율
2012년	37.3	-1.3	77.6	-2.7
2011년	31.4	19.0	63.2	-2.7
2010년	31.1	28.3	68.8	24.4
2009년	35.9	-13.9	77.9	-33.1
2008년	30.1	13.6	75.2	-3.5

자료원 : 수출입은행, 일본 경산성

주 : 對현지법인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입 차지하는 비중임

해외법인으로 수출과 직결된 해외법인 매출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2008년 85.0%에서 2012년 123.0%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일본과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전 산업 기준 312.2%, 제조업 기준으로는 154.3%에 이르고, 미국은 2009년 전 산업 469.4%, 제조업이 209.9%에 달한다.

특히 일본은 수출이 부진했던 2009년과 2012년 매출의 총수출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해외현지법인 매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법인과의 거래로 수출을 안정화시키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 수출의 안정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산업이 일정 수준 발전한 이후엔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수출도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전체 수출에서 해외법인으로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향후 안정적 투자확대를 통하여 수출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68> 일본 및 미국 현지법인 매출의 對총수출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일 본		미 국	
	全산업	제조업	全산업	제조업
2012년	312.2	154.3	-	-
2011년	278.0	134.7	-	-
2010년	271.8	132.5	-	-
2009년	305.2	146.1	-	-
2008년	248.9	112.5	469.4	209.9
2007년	281.4	132.3	474.9	213.8
2006년	283.2	131.8	461.7	213.0
2005년	281.4	133.0	480.9	225.8
2004년	265.9	129.4	469.3	223.0
2003년	266.1	130.2	458.0	216.4
2002년	264.8	123.9	425.0	201.0
2001년	275.3	130.6	404.0	183.8
2000년	249.8	108.8	371.6	173.0
1999년	250.8	106.9	375.4	184.5

자료원 : 일본 경산성, 미국 BEA

주 : 일본 및 미국 양국 모두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로 미국의 경우는 전수조사(benchmarking survey)에 기초한 추정치이나 일본은 샘플링에 의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하지만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체 통계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

(4) 시사점

종합적으로 한국은 여타국에 비해 아직 해외직접투자 누적 액수가 크지 않아 향후의 수출 확대와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최근 수출이 부진하였던 2012년과 2013년에도 우리의 對해외법인 수출은 실제로 한국 전체 수출의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방국가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매출은 2007년 이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는 역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누출에 따라 국내 생산제품의 수출 감소 및 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중국에 대한 투자 부진은 최근 투자환경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출 정체, 특히 부품 및 소재의 수출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내수 지향형으로 변화하고, 저임금 활용형 투자 기반이 동남아로 이전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형 제품 개발과 이에 대한 생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부진과 해외직접투자는 수출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경우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둔화가 추세적 현상으로 정착되지 않으려면 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상협력 채널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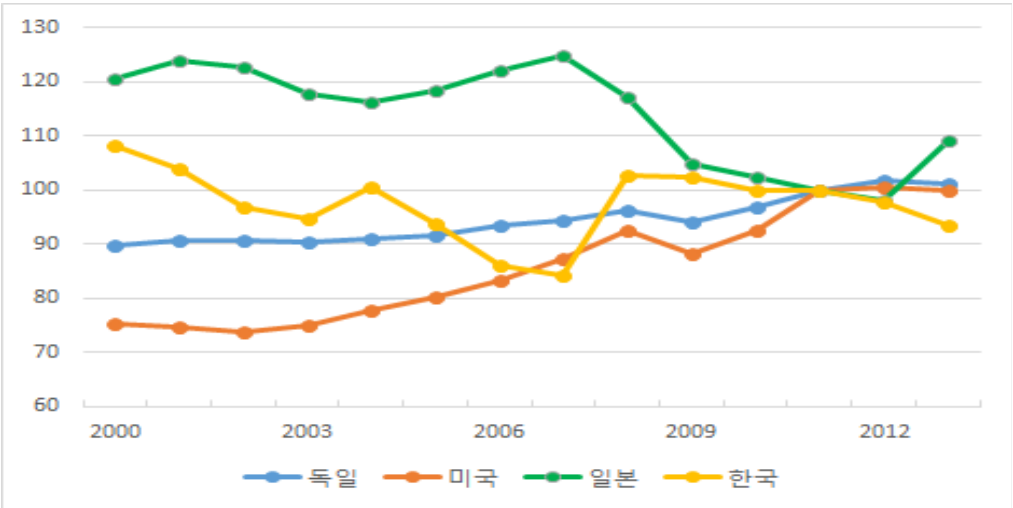
5. 가격경쟁력 변화

대외교역에서 수출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제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원자재 가격·임금인상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과 최근 2년 우리 수출동향을 점검하면서 가격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히 검토해 본다.

(1) 제조비용 종합

달러화 표시 공산품의 수출 물가는 2009년 이후 원화 강세와 더불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는 2012년 이후에는 원화 강세가 수출 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가 한계에 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제품경쟁력으로는 가격경쟁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량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아울러 수출 물가의 정체는 해외생산을 강화시켜 기업의 시장점유 유지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국내 수출의 구조적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6> 수출물가지수(2011년=100)의 추이



자료원 : IMF

수출물가지수를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보면, 2011년 이후 한국 지수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수출물가지수는 2012년 전년대비 6.5% 하락한데 비해 독일은 1% 상승하였고, 일본은 0.1%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국의 제조업 제조비용지수는 2012년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였으나 2013년 오히려 1.9포인트 하락하였다. 해당 지수로 임금과 노동생산성 변화를 포함한 노동비용, 환율이 포함된 수입물가(수입중간재)와 국산중간재(환율, 수입중간재 등)가 제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가격경쟁력 평가가 가능하다[12].

<표 69> 제조업종의 비용 지수 변화 추이

부문		지수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원화가격지수	원화가격지수	환율지수	115.2	104.3	100.0	101.7	98.8
		수출물가지수	89.0	95.6	100.0	96.0	94.6
		원화가격지수	102.5	99.7	100.0	97.6	93.4
제조비용지수	노동	노동생산성지수	88.6	97.6	100.0	101.6	101.7
		명목임금지수	91.4	99.5	100.0	106.0	111.0
		노동관련지수	103.1	102.0	100.0	104.4	109.2
		인건비 비중	6.0	6.0	6.0	6.0	6.0
		노동관련 지수변화	-0.1	-0.1	-0.1	0.3	0.3
		기여율	6.0	-2.3	-2.0	35.3	-14.9
	수입	수입물가지수	74.1	85.9	100.0	97.6	93.1
		원화수입물가지수	85.4	89.6	100.0	99.3	92.0
		수입재료비 비중	19.7	19.7	19.7	19.7	19.7
		원화수입물가지수 변화	-0.9	0.8	2.0	-0.1	-1.4
		기여율	99.9	29.1	34.1	-19.5	**74.4**
	금융	금융비용지수	131.7	105.7	100.0	85.5	72.3
		금융비용 비중	1.1	1.1	1.1	1.1	1.1
		금융비용지수 변화	-0.3	-0.3	-0.1	-0.2	-0.1
		기여율	33.4	-10.3	-1.1	-22.1	7.7
	국산 중간재	도매물가지수	90.3	93.7	100.0	100.7	99.1
		국산재료비 비중	54.6	54.6	54.6	54.6	54.6
		도매물가지수 변화	-0.1	1.9	3.4	0.4	-0.9
		기여율	11.0	65.6	57.1	51.1	45.7
	기타	소비자물가지수	93.4	96.2	100.0	102.2	103.5
		기타 비중	18.6	18.6	18.6	18.6	18.6
		기타 변화	0.0	0.0	0.0	0.0	0.0
		기여율	-2.7	1.0	0.6	3.0	-0.7
	제조비용지수	제조비용지수	91.1	94.0	100.0	100.7	98.8
		제조비용지수 변화	-0.9	2.9	6.0	**0.7**	**-1.9**

자료원 : 산업연구원 자체 도출

12) 제조비용지수(CI_t)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됨. 참조 하병기(1991)

$$CI_t = \frac{W_t}{W_o}\cdot\delta_L\cdot\frac{l_o}{l_t} + \frac{PM_t}{PM_o}\cdot\delta_M + \sum_{i=1}^{n}\frac{PD_t^i}{PD_o^i}\delta_i$$

W: 임금 l: 노동생산성 PM: 수입물가지수 t: 해당연도, o: 기준연도

PD_i : 중간재 i의 가격지수 δ_i: 중간재 i의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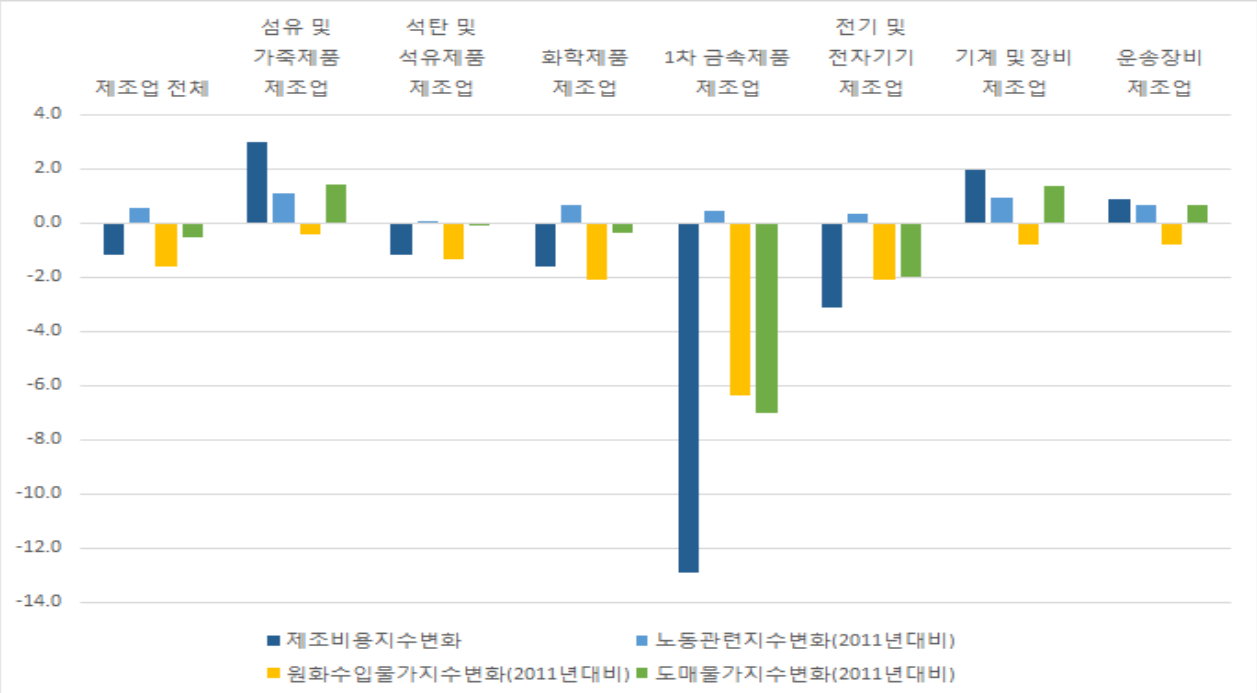
$$\delta_L + \delta_M + \sum_{i=1}^{n}\delta_D = 1$$

노동비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비용 상승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2012년 이후는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명목 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데 기인한다.

수입 재료비의 경우 전체 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 불과하나, 환율 변화가 심한 시기에 기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환율 변화가 제조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원화가 평가절상 되면서 제조비 하락의 74.4%가 수입재료비 하락에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제조비용 변화(2011년 대비 2013년 말 현재)

(단위 : %)



자료원 : 산업연구원 자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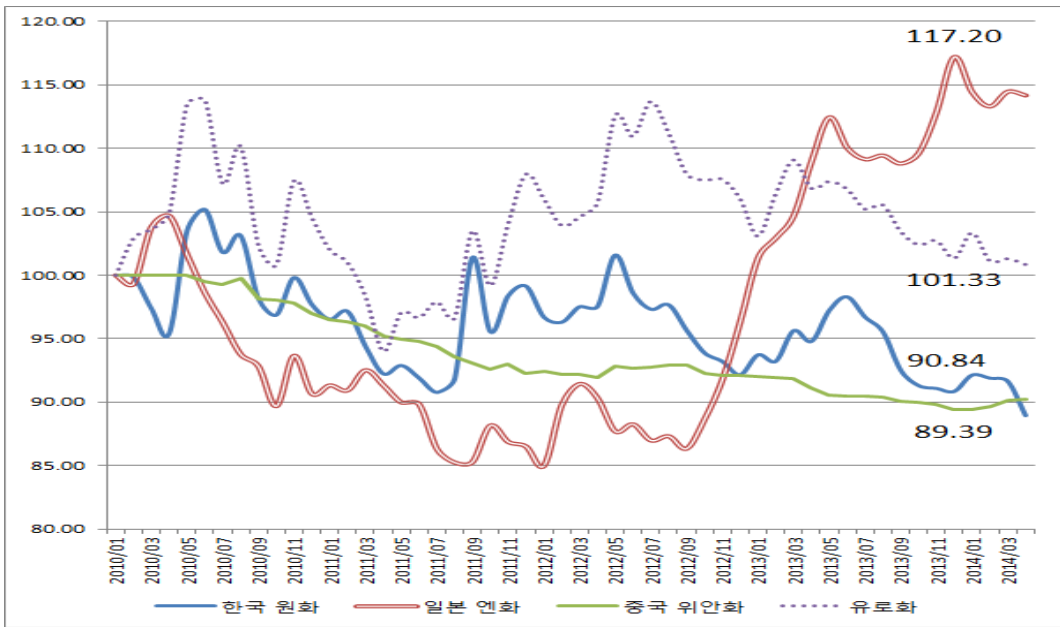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수출 주도 업종인 기계 및 장비 분야에서 제조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여타 업종은 하락하였다. 이는 업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호황 업종의 경우 임금과 수입물가의 상승률이 높은데 기인한다. 2013년 섬유 및 가죽제품의 제조비용은 2011년에 비해 3.0% 상승해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해당 업종은 낮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다른 업종들에 비해 제조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제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원자재 가격과 임금인상률에 대한 최근 2년의 동향을 간략히 점검해 보겠다.

□ 환율

2010년 이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엔화나 유로화 대비 절상 폭이 높았다. 2010년 1월 주요통화의 1월 대미 환율을 100으로 볼 때 2013년 12월 기준으로 엔화는 117.20으로 가치가 하락하였고, 유로화는 101.3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원화는 90.84, 위안화는 89.39로 평가절상되었다. 통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이 한국과 중국의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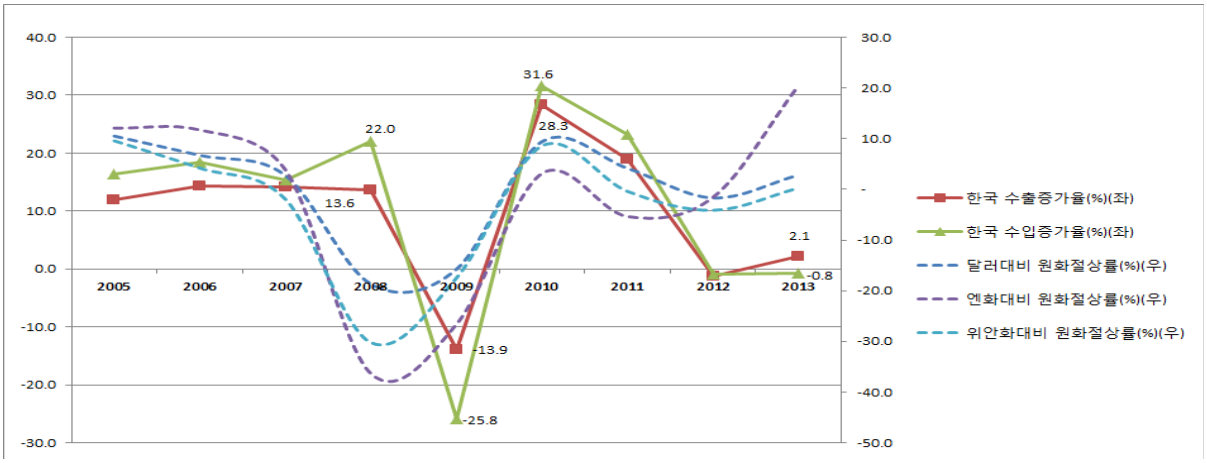
<그림 28> 달러대비 주요국의 환율 변화 추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한국 모기업의 대중국 현지법인 부품 소재 수출까지 악영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업과 현지법인과의 거래는 일반 수출과 달리 환율 민감도가 일반 수출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평가절상이 추세적으로 될 경우 해외생산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조 조정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환율 변화와 수출증가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2012년과 2013년 원화 절상수준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수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달러.엔화.위안화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원-달러 환율은 수출에서 주로 달러화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원화 절상시 수출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국 제품과의 경쟁은 제한적이어서 엔화와 위안화 등 여타 통화와의 환율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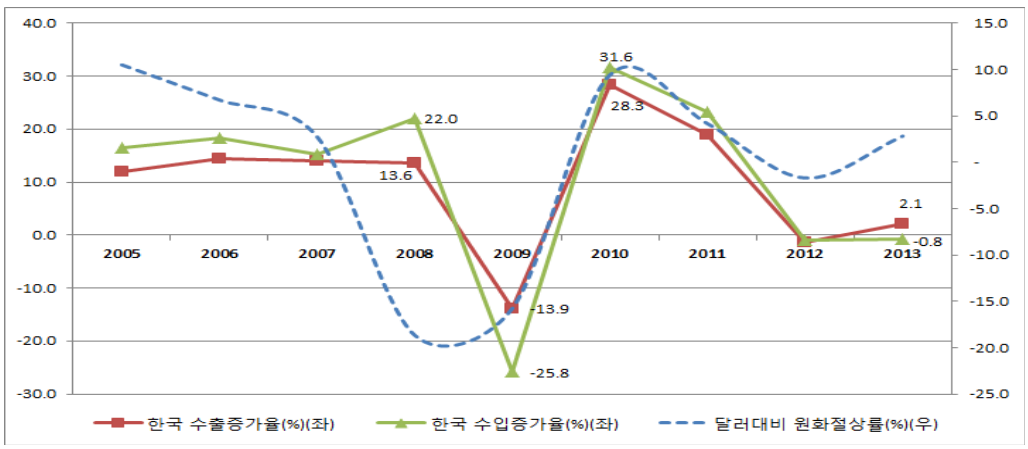
<표 70> 원/달러 평균 환율 및 한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원,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환율(원)	1,024.31	955.51	929.20	1,102.59	1,276.40	1,156.26	1,108.11	1,126.88	1,095.04
원화절상률(%)	10.5	6.7	2.8	-18.7	-15.8	9.4	4.2	-1.7	2.8
수출액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466,384	555,214	547,870	559,632
증가율	12.0	14.4	14.1	13.6	-13.9	28.3	19.0	-1.3	2.1
수입액	261,238	309,383	356,846	435,275	323,085	425,212	524,413	519,584	515,586
증가율	16.4	18.4	15.3	22.0	-25.8	31.6	23.3	-0.9	-0.8

자료원 : 한국은행, 무역협회

<그림 30> 달러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수출입증가율 추이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은 자동차·전자 등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에서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원화가 평가절상되는 과정에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으로부터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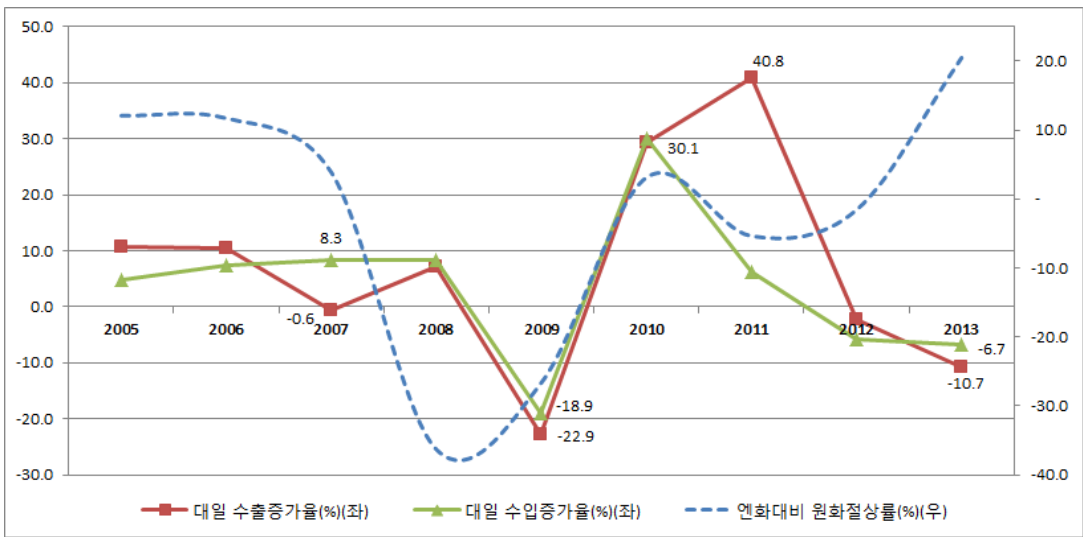
<표 71> 원/100엔 평균환율 및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 현황

(단위 : 원,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환율(원)	930.66	821.49	789.75	1,076.63	1,363.13	1,320.56	1,391.31	1,413.14	1,123.41
원화절상률(%)	12.1	11.7	3.9	-36.3	-26.6	3.1	-5.4	-1.6	20.5
수출액	24,027	26,534	26,370	28,252	21,771	28,176	39,680	38,796	34,662
증가율	10.7	10.4	-0.6	7.1	-22.9	29.4	40.8	-2.2	-10.7
수입액	48,403	51,926	56,250	60,956	49,428	64,296	68,320	64,363	60,029
증가율	4.9	7.3	8.3	8.4	-18.9	30.1	6.3	-5.8	-6.7

자료원 : 한국은행, 무역협회

<그림 31> 엔화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증가율 추이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위안화 환율도 우리 수출에서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위안화 환율은 2012~2013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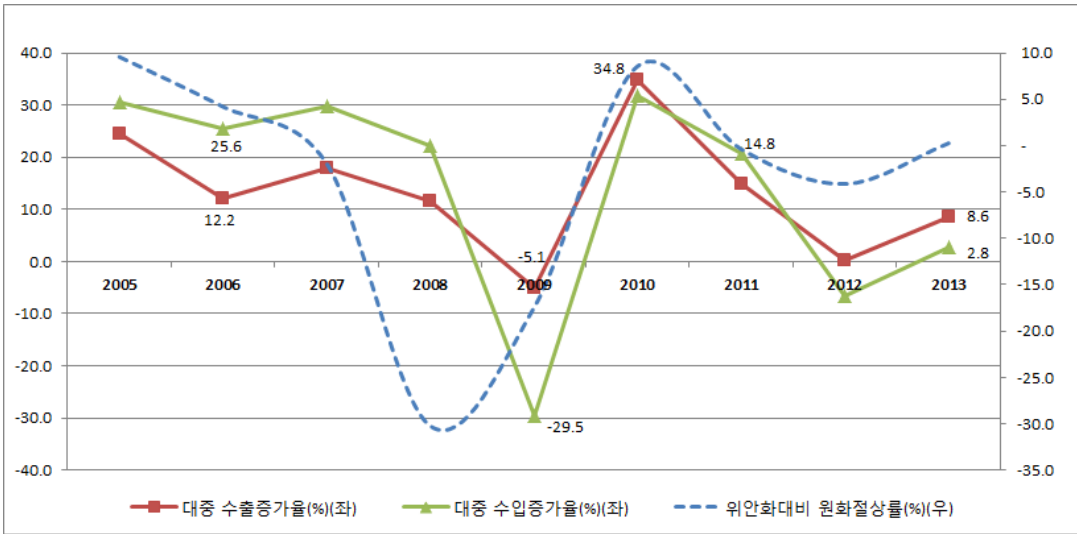
<표 72> 원/위안화 평균환율 및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 원,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환율(원)	125.06	119.81	122.13	159.05	186.85	170.83	171.50	178.58	178.10
원화절상률%	9.6	4.2	-1.9	-30.2	-17.5	8.6	-0.4	-4.1	0.3
수출액	61,915	69,459	81,985	91,389	86,703	116,838	134,185	134,323	145,869
증가율	24.4	12.2	18.0	11.5	-5.1	34.8	14.8	0.1	8.6
수입액	38,648	48,557	63,028	76,930	54,246	71,574	86,432	80,785	83,053
증가율	30.6	25.6	29.8	22.1	-29.5	31.9	20.8	-6.5	2.8

자료원 : 한국은행, 무역협회

<그림 32> 위안화 대비 원화절상률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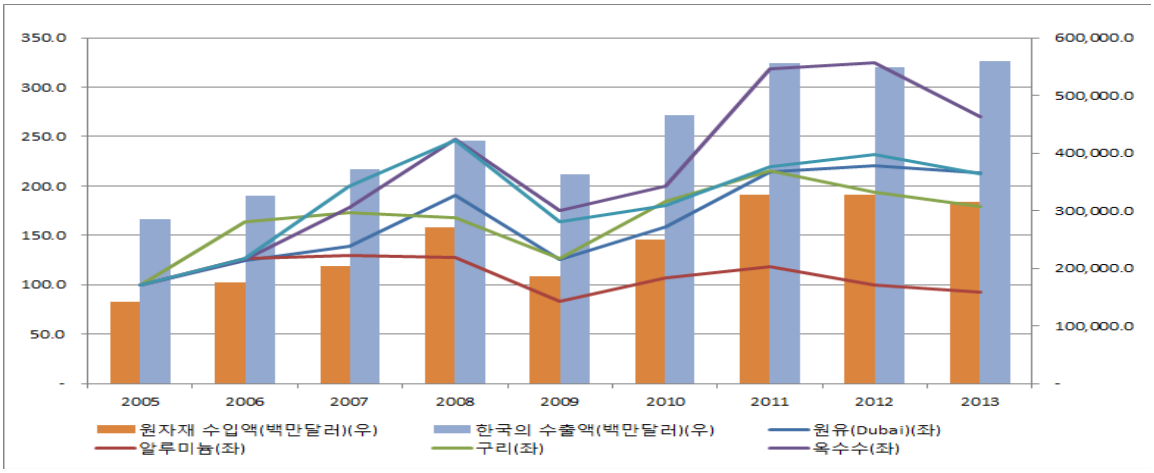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및 임금인상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연평균 기준 2011년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들어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 약세로 전환되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제조비용 상승과 직결되나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제조경쟁력보다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철광석 가격과 같은 특정 산업의 경우 철광석 보유 여부나 공급선에 따라 경쟁력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3> 원자재 가격(2005년=100) 변동 및 한국의 수출입 추이



주 : 2005년 가격을 100 기준으로 계산
자료원 : PETRONET, LME, CME Group(원자재 연평균 가격), 무역협회 등

<표 73> 주요원자재 평균가격 추이

(단위 :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제유가 (Dubai, 달러/B)	49.4	61.6	68.4	94.3	61.9	78.1	106.0	109.0	105.3
증가율	46.8	24.7	11.1	37.9	-34.4	26.2	35.7	2.8	-3.4
국제유가 (Brent, 달러/B)	54.3	65.1	72.8	97.5	61.7	79.7	111.0	111.7	108.7
증가율	41.4	19.9	11.8	33.9	-36.7	29.2	39.3	0.6	-2.7
국제유가 (WTI, 달러/B)	56.5	66.0	72.3	99.9	61.9	79.5	95.1	93.8	98.0
증가율	35.9	16.8	9.5	38.2	-38.0	28.4	19.6	-1.4	4.5
알루미늄(달러/톤)	2,047	2,594	2,662	2,619	1,701	2,198	2,422	2,049	1,888
증가율	-	27.0	3.0	-2.0	-35.0	29.0	10.0	-15.0	-8.0
구리(달러/톤)	4,094	6,688	7,096	6,886	5,185	7,554	8,829	7,945	7,346
증가율	-	63.0	6.0	-3.0	-25.0	46.0	17.0	-10.0	-8.0
옥수수(¢/Bu)	213.5	268.5	381.6	529.0	373.4	427.5	679.1	694.2	576.9
증가율	-16.3	25.8	42.1	38.6	-29.4	14.5	58.9	2.2	-16.9
소맥(¢/Bu)	323.2	410.0	645.2	795.7	529.2	582.0	708.4	749.5	684.6
증가율	-7.4	26.9	57.4	23.3	-33.5	10.0	21.7	5.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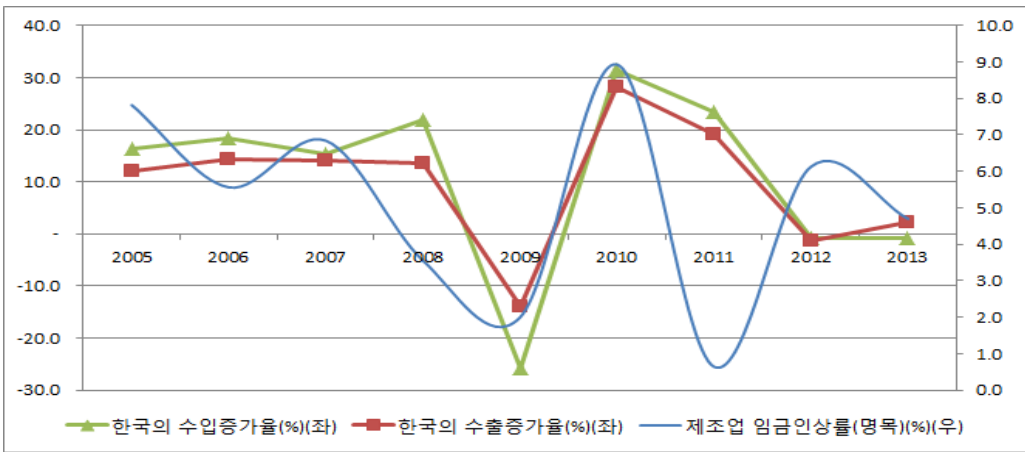
자료원 : 국제금융센터

한편, 제조업 임금 상승은 제조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는 하나, 생산성 향상이 임금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의 명목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74> 제조업 10인 이상 기업의 명목임금 인상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9	7.8	5.6	6.8	3.6	2.0	8.9	0.6	6.1	4.7

<그림 34> 제조업 임금인상률과 한국 수출입 추이



주 : 10인 이상 제조업 종사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상승률 기준
자료원 : 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무역협회

(2) 시사점

최근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 수출 감소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달러표시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엔화 약세로 인하여 우리 경쟁 대상국 일본제품의 가격하락에 맞추어 가격인하를 실시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을 제외하면 생산성 대비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려 이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환율의 수출 물가로 전가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원화의 급격한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지출 비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추이로 고평가된 환율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환율 추세화에 대응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에 힘쓸 필요가 있다. 최근 노동 부문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어 적정한 대응책 또한 요구된다.

Ⅲ 시사점과 대응전략

1. 시사점

최근 수출둔화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와 교역둔화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나 해외투자의 측면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이전과 같은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세계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높았던 교역 증가의 구조가 최근 변화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수출 여건은 주요권역·주요상품별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 최근 수출둔화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선박 수주 회복 여부가 수출 증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선박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중국의 급성장 등에 따라 과거와 같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국내 성장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쟁력 향상은 향후 세계경제 회복기에도 우리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 수출을 견인해왔던 자동차만 하더라도 국내 생산이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수출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엔화약세로 인해 우리 주력산업 부문까지 일본 가격경쟁력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절상으로 달러 표시 가격을 인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 기업 채산성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성 대비 인건비 상승은 국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의 증가를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수출대체효과보다 수출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만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빼앗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수출부진이 세계경제의 침체, 단기적인 환율변화 등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구조 및 생산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는 최근 1~2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이다.

<그림 35> 우리나라 수출의 단기적 호·부진 요인

요인		최근 현황	향후 전망
세계경제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3.2 → 3.0)	세계경제·교역 회복세로 반전 ('14) 3.6 → ('15) 3.9 성장의 무역견인효과 위축
지역 요인	미국	한-미 FTA 효과	1분기 이상한파로 경기부진 후 2분기부터 회복 예상, 테이퍼링·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일본	엔저	2014.4월 소비세 인상, 엔화 약세 지속
	EU	유럽 재정위기 영향 경기침체	한-EU FTA, EU 경기회복
	중국	가공무역 활성화	산업구조조정·내수활성화 (리밸런싱)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
	신흥 시장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가(베트남 등) 이란 경제제재 등은 불안요인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해외투자의 지속 증가
주요 품목 요인	선박	세계 조선시황 하락에 따른 수주 부진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예정 중국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품질 등 수출 경쟁력 향상	해외 생산 증대와 국내 생산 능력의 한계
	화학	중동,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과 단가하락	세계 수요 소폭 증가 중동, 중국 등 증설 지속
	철강	중국의 공급과잉과 수요위축	중국의 잉여생산능력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자	첨단전자제품 수요 확대 중국 등의 전자부품 경쟁력 강화	핵심전자부품 해외 이전 가속 스마트폰 등 첨단전자제품에서의 중국 경쟁력 향상
해외투자 진출		해외투자 증가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증가	對아세안 증가, 對중국 감소
가격경쟁력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원고 및 엔저 현상 등	원고 및 엔저 지속 예상 가격인하 여력 부족

2. 대응전략

현재의 수출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여건 변화에 따라 주력시장에 대한 특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FTA가 체결된 미국이나 EU 시장에 대해서는 FTA 활용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내수 중심 성장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 힘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공략과 더불어 중국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자본재 및 부품소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엔저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꾸준한 시장관리 및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불안 국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8대 금융불안국(Edgy 8[13])은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출의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란, 이라크,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에 대한 정보파악도 필요할 것이다. 이란의 경제제재와 같은 변수는 이란의 정치상황, 미국의 외교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보다 수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의 주력 수출산업인 조립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소재분야도 이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현재 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부품 및 첨단소재 분야는 여전히 신흥국 대상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주력제품의 융·복합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또한 절실하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환율절상과 임금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기업차원의 새로운 생산방식과 설비 도입이 필요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노동현장의 생산성 향상도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유연성 등이 확보되면 기존 주력산업 중에서도 국내투자 확대도 가능하다.

해외투자와 수출의 선순환이 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편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자동차・가전제품 등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 연관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지만 가치사슬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전략을

13) Fragile 5(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남아공·터키) + 헝가리·폴란드·칠레

수립해야할 것이다. 이에 과거와 같은 제조업 수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중 제조부문 이외에 서비스부문의 무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주로 제조업 수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부문에 집중되어있다. 향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및 지식 관련 서비스 수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75> 우리나라 부문별 서비스수출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8	2009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서비스수출	57,213	91,333	72,752	90,900	103,533	101,507	8.5
운송	26,027	44,942	28,864	37,185	41,670	36,858	5.1
여행	5,725	9,751	9,804	12,476	13,429	14,272	13.9
건설	7,003	13,686	14,553	15,478	19,709	19,052	15.4
보험서비스	274	466	340	518	490	652	13.2
금융서비스	1,350	2,151	1,580	1,795	1,838	1,783	4.0
지식재산권사용료	2,115	2,434	3,255	4,399	3,903	4,232	10.4
통신・컴퓨터・정보	725	946	883	1,319	1,518	2,103	16.4
기타사업서비스	10,053	13,095	10,137	13,598	16,295	17,378	8.1
개인・문화・여가	229	341	380	521	675	726	17.9
서비스수출/상품수출 비중	**17.6**	**21.6**	**20.0**	**16.4**	**18.9**	**18.1**	-

자료원 : 한국은행

또한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다변화하여 해외투자의 유발효과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중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완제품 및 모듈 부품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탈피하고 동남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빠른 기술이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부품소재가 현지화 되면서 부품소재 수출이 가능한 동남아 등으로 새로운 시장진출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해외투자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U턴)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표 76> 우리나라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 교역 비교(2012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구분	투자액	매출액	한국 수출액	한국 수입액	수지
해외투자(A)	252	6,741	2,042	1,296	746
외국인투자(B)	98	4,490	1,106	1,110	△4
비교(A/B)	2.6	1.5	1.8	1.2	-

자료원 : KOTRA, 수출입은행

<표 77> 향후 수출확대를 위한 대응전략

구분	세부전략
수출시장관리	-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방안 추진 - 중국 내수시장 공략(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용 부품소재) - 인도, 중동, 중남미, CIS 등 리스크 국가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조기 대응
산업구조조정	- 소재 및 IT, 문화, 감성 등과의 융합을 통한 기존제품의 차별화 및 고부가화 - 핵심부품 및 첨단소재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노력 추진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
투자전략	- 수출 유발효과가 큰 동남아 등 신흥지역 투자확대 - 외국인 투자유치 지속
가격경쟁력	- 노사간 합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의 유연성 확보 - 자동화, 생산공정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 새로운 교대제 도입 등을 통한 공장 가동시간 제고

【별첨】 2012~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동향

자료원 : 무역협회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3	559,632	2.1	515,586	-0.8	44,047
2012	547,870	-1.3	519,584	-0.9	28,285
2011	555,214	19.0	524,413	23.3	30,801
2010	466,384	28.3	425,212	31.6	41,172
2009	363,534	-13.9	323,085	-25.8	40,449
2008	422,007	13.6	435,275	22.0	-13,267
2007	371,489	14.1	356,846	15.3	14,643
2006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005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4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3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2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1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0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999	143,685	8.6	119,752	28.4	23,933
1998	132,313	-2.8	93,282	-35.5	39,031
1997	136,164	5.0	144,616	-3.8	-8,452
1996	129,715	3.7	150,339	11.3	-20,624
1995	125,058	30.3	135,119	32.0	-10,061

2. 2012~2013년 우리나라의 대륙·경제권별 수출

1) 대륙권별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

대륙권별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47,870**	**-1.3**	**559,632**	**2.1**
아시아	318,235	1.3	324,163	1.9
유럽	68,300	-9.0	69,205	1.3
북미	63,353	3.6	67,255	6.2
중남미	36,747	-8.4	36,328	-1.1
중동	36,616	11.4	32,288	-11.8
동구	26,139	3.0	26,247	0.4
대양주	15,393	-9.8	19,173	24.6
서남아시아	14,722	-5.8	14,009	-4.8
아프리카	9,185	-36.2	11,165	21.6

2) 경제권별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

경제권별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47,870**	**-1.3**	**559,632**	**2.1**
APEC	395,862	2.1	407,625	3.0
개발도상국	309,997	-0.1	323,712	4.4
아셈	282,808	-0.1	294,782	4.2
선진국	229,873	-1.3	224,898	-2.2
브릭스	167,628	-0.8	178,083	6.2
OECD	171,827	-2.8	176,358	2.6
ASEAN	79,145	10.2	81,997	3.6
NAFTA	72,395	2.2	76,983	6.3
EU	49,371	-11.4	48,857	-1.0
EC	48,827	-11.4	48,251	-1.2
OPEC	43,950	5.4	38,675	-12.0
GCC	19,540	13.1	17,791	-9.0
CIS	15,761	7.7	15,704	-0.4
SAPTA	14,722	-5.8	14,009	-4.8
MERCOSUR	11,603	-12.9	11,352	-2.2
CER	10,716	15.6	11,054	3.2
COMESA	3,749	37.1	3,538	-5.6
EFTA	1,495	-17.8	2,441	63.3
CACM	1,158	5.7	1,092	-5.7

3. 2012~2013년 국가별 수출(상위 5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47,870**	**-1.3**	**559,632**	**2.1**
1	중국	134,323	0.1	145,869	8.6
2	미국	58,525	4.1	62,052	6.0
3	일본	38,796	-2.2	34,662	-10.7
4	홍콩	32,606	5.3	27,756	-14.9
5	싱가포르	22,888	9.8	22,289	-2.6
6	베트남	15,946	18.4	21,088	32.2
7	대만	14,815	-18.6	15,699	6.0
8	인도네시아	13,955	2.9	11,568	-17.1
9	인도	11,922	-5.8	11,376	-4.6
10	러시아	11,097	7.7	11,149	0.5
11	멕시코	9,042	-7.1	9,727	7.6
12	브라질	10,286	-13.0	9,688	-5.8
13	호주	9,250	13.3	9,563	3.4
14	사우디아라비아	9,112	30.8	8,828	-3.1
15	필리핀	8,211	11.9	8,783	7.0
16	말레이지아	7,723	23.1	8,588	11.2
17	태국	8,221	-2.8	8,072	-1.8
18	독일	7,510	-21.0	7,908	5.3
19	마샬군도	3,934	-44.2	7,453	89.4
20	아랍에미리트 연합	6,862	-5.6	5,738	-16.4
21	터키	4,552	-10.2	5,658	24.3
22	네덜란드	5,059	9.3	5,512	9.0
23	카나다	4,828	-2.0	5,203	7.8
24	영국	4,897	-1.5	4,727	-3.5
25	이란	6,257	3.1	4,481	-28.4
26	슬로바키아	4,624	12.7	4,407	-4.7
27	폴란드	3,677	-10.3	3,601	-2.1
28	라이베리아	3,804	-48.5	3,513	-7.6
29	프랑스	2,599	-54.5	3,488	34.2
30	파나마	3,977	4.7	3,485	-12.4
31	이탈리아	3,262	-20.6	3,126	-4.2
32	남아프리카	2,188	-2.9	2,698	23.3
33	칠레	2,469	3.7	2,458	-0.5
34	벨기에	2,257	0.1	2,241	-0.7
35	헝가리	1,157	-21.6	2,114	82.6
36	이라크	1,866	21.6	1,973	5.7
37	우즈베크	1,767	2.8	1,968	11.4
38	체코공화국	1,786	4.3	1,683	-5.8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39	스페인	1,668	-10.1	1,682	0.8
40	버뮤다	1,372	-14.2	1,601	16.6
41	나이지리아	854	-65.7	1,571	84.0
42	노르웨이	1,062	59.3	1,539	45
43	이집트	1,807	4.6	1,535	-15.1
44	뉴질랜드	1,465	32.7	1,491	1.7
45	이스라엘	1,532	-15.7	1,464	-4.4
46	페루	1,473	7.7	1,440	-2.2
47	방글라데시	1,459	-10.4	1,427	-2.2
48	슬로베니아	1,408	10.3	1,414	0.4
49	콜롬비아	1,468	-9.1	1,342	-8.5
50	요르단	1,396	14.0	1,317	-5.7

4. 2012~2013년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상위 100개 품목, MTI 4단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47,870**	**-1.3**	**559,632**	**2.1**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43,838	0.8	50,479	15.2
2	7411	승용차	42,388	3.6	44,283	4.5
3	7461	선박	37,346	-31.0	34,002	-9.0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30,135	-0.1	27,387	-9.1
5	7420	자동차부품	24,610	6.6	26,079	6.0
6	2140	합성수지	19,558	-	21,369	9.3
7	1332	경유	22,682	12.5	20,586	-9.2
8	8121	무선전화기	12,097	-19.8	13,175	8.9
9	1333	제트유및등유	12,540	7.7	11,801	-5.9
10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8,021	-16.8	11,608	44.7
11	1331	휘발유	7,650	21.3	7,546	-1.4
12	2110	기초유분	7,871	17.6	7,500	-4.7
13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5,407	7.4	7,107	31.5
14	7251	건설중장비	7,662	-8.7	6,664	-13.0
1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5,591	9.6	6,223	11.3
16	8211	칼라TV	4,412	-20.4	6,016	36.4
17	8142	경보신호기	4,874	80.6	5,634	15.6
1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4,859	1.7	5,228	7.6
19	8343	인쇄회로	4,279	26.8	5,182	21.1
20	8313	개별소자반도체	4,928	0.2	4,954	0.5
2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822	-16.1	4,914	1.9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2	6134	아연도강판	4,650	4.2	4,726	1.6
23	8352	축전지	4,583	-1.1	4,627	1.0
24	6133	냉연강판	5,029	-6.7	4,536	-9.8
25	6132	열연강판	5,656	-9.6	4,442	-21.5
26	1336	윤활유	4,612	-1.8	4,369	-5.3
27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4,452	-18.7	4,205	-5.5
28	3203	타이어	4,573	8.7	4,198	-8.2
29	7152	광학기기부품	4,133	9.4	4,177	1.1
30	4360	편직물	4,070	-3.9	4,088	0.4
31	1334	나프타	3,412	-6.4	4,066	19.2
32	8499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2,844	70.7	4,003	40.7
33	7111	원동기	4,087	3.4	3,955	-3.2
34	8500	전선	3,684	4.6	3,588	-2.6
35	7412	화물자동차	4,050	7.6	3,538	-12.6
36	8149	기타전자응용기기	1,852	23.9	3,306	78.5
37	6141	철강관	3,724	8.4	3,298	-11.5
38	7112	펌프	3,075	14.0	3,176	3.3
39	2150	합성고무	3,735	-7.7	2,967	-20.6
40	7901	기타기계류	2,962	-1.9	2,932	-1.0
41	6222	동조가공품	2,481	-17.4	2,588	4.3
42	8230	냉장고	2,450	-1.3	2,481	1.3
43	6152	철구조물	2,870	6.7	2,465	-14.1
44	8423	배전및제어기	1,816	33.1	2,462	35.6
45	8132	보조기억장치	1,776	9.2	2,319	30.6
46	1335	중유	3,506	-5.9	2,317	-33.9
47	3103	필름류	1,894	1.5	2,132	12.6
48	1339	기타석유제품	1,697	19.2	2,103	24.0
49	7211	섬유기계	2,156	2.1	1,939	-10.0
50	6131	중후판	2,403	-13.0	1,883	-21.6
51	7462	해양구조물	483	7,038.50	1,868	286.9
52	7131	공기조절기	1,821	13.2	1,787	-1.9
53	1112	은	2,555	8.6	1,780	-30.3
54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179	-27.3	1,770	50.1
55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743	-9.4	1,769	1.5
56	4342	폴리에스터직물	1,781	-0.9	1,759	-1.2
57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515	-13.8	1,750	15.5
58	6221	동괴및스크랩	1,853	5.9	1,727	-6.8
59	8269	기타조명기기	1,304	61.2	1,687	29.4
60	8342	연결부품	1,315	22.7	1,658	26.1
61	8151	계측기	1,376	18.1	1,627	18.3
62	7472	항공기부품	1,292	6.4	1,622	25.6
63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1,805	16.2	1,582	-12.4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64	7512	밸브	1,711	37.7	1,564	-8.6
65	8136	컴퓨터부품	1,566	-10.0	1,545	-1.3
66	7532	플라스틱금형	1,430	10.0	1,531	7.1
67	4490	기타섬유제품	1,444	6.1	1,502	4.1
68	2262	의약품	1,446	14.0	1,501	3.8
69	8421	변압기	1,689	0.4	1,486	-12.0
70	6172	주철	1,651	26.7	1,444	-12.6
71	7290	기타산업기계	1,086	-11.7	1,413	30.1
72	7902	기타기계류부품	1,362	11.6	1,392	2.2
73	7121	운반하역기계	1,108	-1.7	1,389	25.4
74	2522	인쇄용지	1,362	-5.2	1,366	0.3
75	7216	화학기계	1,632	49.2	1,297	-20.5
76	1111	금	3,016	-1.8	1,286	-57.4
77	6171	주단강	1,410	3.0	1,254	-11.1
78	8362	센서	1,156	38.7	1,226	6.1
79	8127	무선교환기및중계기	1,042	10.0	1,209	16.0
80	8333	축전기	1,093	-13.5	1,203	10.0
81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081	14.4	1,202	11.2
82	2275	화장품	951	19.1	1,182	24.2
83	8131	컴퓨터	1,726	23.7	1,162	-32.7
84	7133	가열난방기	1,792	28.0	1,143	-36.2
85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915	-3.0	1,143	24.8
86	4399	기타의직물	1,054	-3.9	1,122	6.5
8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965	4.7	1,113	15.4
88	8147	의료용전자기기	1,059	19.8	1,112	5.0
89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1,737	-23.5	1,077	-38.0
90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204	-12.8	1,061	-11.9
91	4111	폴리에스텔섬유	1,045	-4.4	1,060	1.4
92	8412	전동기	1,083	16.2	1,049	-3.2
93	6261	아연괴및스크랩	996	-5.3	987	-0.9
94	5290	기타가구	914	17.0	980	7.2
95	736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287	-57.9	971	238.0
96	2212	안료	770	29.3	968	25.8
97	3319	기타가죽	893	7.2	965	8.1
98	4412	직물제의류	799	5.8	953	19.3
99	4411	편직제의류	900	2.5	943	4.8
100	6142	철강선	960	-13.8	926	-3.6

5. 2012~2013년 주요 권역·국가의 품목별 수출(상위 20개 품목, MTI 4단위 기준)

1) 중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134,323	0.1	145,869	8.6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4,496	13.7	18,540	27.9
2	8361	평판디스플레이	19,972	1.1	18,039	-9.7
3	2140	합성수지	7,113	-3.6	7,726	8.6
4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4,560	19.8	6,213	36.2
5	7420	자동차부품	4,458	1.3	5,570	25.0
6	8142	경보신호기	3,625	215.5	5,427	49.7
7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3,792	-7.9	5,026	32.5
8	2110	기초유분	3,956	22.1	4,462	12.8
9	1333	제트유및등유	3,792	-5.8	3,323	-12.4
10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3,669	-19.2	2,754	-24.9
11	7152	광학기기부품	2,775	13.5	2,539	-8.5
12	8343	인쇄회로	1,998	22.3	2,406	20.4
13	8313	개별소자반도체	2,741	14.0	2,371	-13.5
14	8149	기타전자응용기기	1,366	47.4	2,271	66.3
15	8499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1,682	80.8	2,203	31.0
16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721	9.3	2,063	19.9
17	8352	축전지	2,388	-7.2	1,908	-20.1
18	7411	승용차	1,512	-35	1,728	14.3
19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378	-9.3	1,622	17.7
20	1339	기타석유제품	1,099	3.6	1,394	26.9

2) 미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8,525	4.1	62,052	6.0
1	7411	승용차	10,313	19.5	12,113	17.5
2	7420	자동차부품	5,642	12.4	6,163	9.2
3	8121	무선전화기	4,440	-45.1	5,881	32.5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2,093	-13.0	2,586	23.6
5	1333	제트유및등유	1,885	22.0	2,553	35.4
6	6141	철강관	1,763	20.3	1,724	-2.2
7	3203	타이어	1,611	7.9	1,304	-19.1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8	8230	냉장고	1,046	4.1	1,104	5.5
9	7251	건설중장비	1,149	43.9	980	-14.7
10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586	27.4	975	66.3
11	7111	원동기	847	26.5	938	10.7
12	7211	섬유기계	1,043	-6.3	909	-12.8
13	7472	항공기부품	742	0.0	826	11.3
14	2140	합성수지	604	27.1	730	20.9
1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630	13	695	10.4
16	7462	해양구조물	464	270,296.5	586	26.3
17	2110	기초유분	1,087	-4.1	568	-47.8
18	1336	윤활유	664	-12.7	565	-14.9
19	7112	펌프	533	11.1	537	0.8
20	6132	열연강판	610	0.4	448	-26.6

3) EU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9,371**	**-11.4**	**48,857**	**-1.0**
1	7411	승용차	5,128	-9.5	5,737	11.9
2	7461	선박	7,918	-36.8	5,684	-28.2
3	7420	자동차부품	3,701	-0.3	3,616	-2.3
4	8121	무선전화기	2,554	42.4	2,780	8.9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3,924	3.3	2,736	-30.3
6	1333	제트유및등유	2,193	119.8	1,970	-10.2
7	2140	합성수지	1,434	18.1	1,882	31.3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1,163	-16.5	1,148	-1.3
9	8211	칼라TV	618	-30.9	1,132	83.3
10	7251	건설중장비	833	-17.6	887	6.5
11	1332	경유	194	-84.3	844	335.0
12	3203	타이어	744	-10.2	761	2.3
13	6134	아연도강판	632	3.0	641	1.4
14	8269	기타조명기기	413	50.3	592	43.4
15	7111	원동기	544	19.6	532	-2.3
1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12	-4.3	515	0.5
17	8352	축전지	316	1.4	513	62.2
18	1336	윤활유	660	-7.8	510	-22.7
1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494	8.0	480	-2.9
20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336	-7.9	366	8.9

4) 일본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8,796**	**-2.2**	**34,662**	**-10.7**
1	1334	나프타	2,203	-7.3	2,705	22.8
2	1333	제트유및등유	1,921	6.4	2,258	17.6
3	8121	무선전화기	2,341	26.0	1,347	-42.5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2,099	-19.5	1,325	-36.9
5	1331	휘발유	1,923	11.7	1,304	-32.2
6	1112	은	1,224	-24.8	885	-27.7
7	2140	합성수지	878	2.4	831	-5.4
8	7420	자동차부품	781	12.7	801	2.6
9	1335	중유	829	-16.4	762	-8.1
10	8313	개별소자반도체	366	4.1	737	101.2
11	6133	냉연강판	786	-10.9	696	-11.5
1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97	-23.1	681	-2.3
13	6132	열연강판	856	-17.8	641	-25.1
14	8127	무선교환기및중계기	368	-20.9	530	44.1
1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575	2.0	503	-12.5
16	1336	윤활유	524	16.4	485	-7.5
17	1332	경유	806	-19.6	473	-41.4
18	1339	기타석유제품	388	53.8	456	17.4
19	2110	기초유분	503	63.6	446	-11.5
20	6172	주철	463	11.0	396	-14.3

5) 아세안(ASEAN)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79,145**	**10.2**	**81,997**	**3.6**
1	1332	경유	12,874	30.9	11,102	-13.8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9,426	17.0	11,092	17.7
3	7461	선박	5,574	-8.0	4,473	-19.8
4	1331	휘발유	4,212	15.8	4,459	5.9
5	2140	합성수지	2,474	5.5	2,862	15.7
6	4360	편직물	1,864	-0.8	1,955	4.9
7	6132	열연강판	2,266	-3.9	1,734	-23.5
8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938	-34	1,652	76.1
9	8361	평판디스플레이	883	-10.6	1,376	55.9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0	8343	인쇄회로	901	43.8	1,138	26.3
11	7411	승용차	1,089	-9.0	1,127	3.4
12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951	12.1	891	-6.3
13	2150	합성고무	1,106	4.6	862	-22.1
14	7420	자동차부품	910	15.1	839	-7.8
1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620	25.6	740	19.3
16	6133	냉연강판	774	-4.5	739	-4.5
17	1336	윤활유	610	31.9	737	20.9
18	8499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458	118.8	729	59
19	6134	아연도강판	670	14.8	723	8.0
2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87	-18.9	706	20.3

6) 중남미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6,747**	**-8.4**	**36,328**	**-1.1**
1	7461	선박	7,811	-26.8	6,723	-13.9
2	7411	승용차	5,327	-12.9	4,582	-14.0
3	7420	자동차부품	2,653	12.8	2,968	11.9
4	8361	평판디스플레이	3,179	1.7	2,929	-7.9
5	8211	칼라TV	1,119	-28.0	1,777	58.8
6	2140	합성수지	1,271	-4.7	1,423	12.0
7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715	-43.3	1,230	72.0
8	8311	집적회로반도체	705	81.2	1,070	51.8
9	7412	화물자동차	721	-4.2	688	-4.6
10	6134	아연도강판	576	-1.6	573	-0.5
11	7251	건설중장비	695	20.1	515	-25.8
12	3203	타이어	536	11.5	496	-7.4
13	6133	냉연강판	559	0.6	480	-14.1
14	1332	경유	1,027	10.0	474	-53.8
15	8121	무선전화기	185	-52.3	434	135.0
1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77	9.3	315	13.4
17	6152	철구조물	127	123.4	289	128.3
18	8500	전선	270	18.9	287	6.0
19	7111	원동기	294	21.0	271	-8.1
2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50	14.3	259	3.7

7) 중동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6,616	11.4	32,288	-11.8
1	7411	승용차	8,418	18.9	8,334	-1.0
2	7420	자동차부품	1,097	-3.4	1,070	-2.4
3	2140	합성수지	1,324	1.7	1,044	-21.2
4	7412	화물자동차	1,075	4.6	1,008	-6.2
5	8211	칼라TV	719	1.7	961	33.7
6	7251	건설중장비	937	15.5	904	-3.5
7	7461	선박	826	-24.4	691	-16.3
8	3203	타이어	665	27.3	682	2.7
9	8121	무선전화기	594	-32.1	678	14.2
10	8500	전선	651	18.8	675	3.6
11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618	15.7	527	-14.8
12	7216	화학기계	876	123.0	484	-44.7
13	8421	변압기	576	17.0	454	-21.2
14	7512	밸브	697	77.9	434	-37.8
15	4342	폴리에스터직물	437	-9.0	421	-3.6
16	8352	축전지	365	5.1	412	13.0
17	7131	공기조절기	656	7.8	401	-38.9
18	7112	펌프	484	15.7	399	-17.6
19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119	-25.8	392	228.2
20	6141	철강관	743	-9.5	390	-47.6

8) CIS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15,761	7.7	15,704	-0.4
1	7411	승용차	4,177	22	4,484	7.4
2	7420	자동차부품	2,549	13.9	2,548	0.0
3	2140	합성수지	840	-5.4	793	-5.6
4	7251	건설중장비	603	10.5	624	3.6
5	7412	화물자동차	695	18.9	512	-26.3
6	8211	칼라TV	375	8.9	368	-1.6
7	6134	아연도강판	294	47.5	336	14.2
8	3203	타이어	256	40.0	279	9.2
9	7111	원동기	274	-5.4	227	-17.0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07	16.0	220	5.9
11	8121	무선전화기	243	25.7	157	-35.4
12	7121	운반하역기계	120	28.9	150	24.7
13	4360	편직물	154	2.9	150	-3.1
14	1336	윤활유	130	7.6	140	7.8
15	7133	가열난방기	105	5.2	134	28.0
16	7481	우주선	0	-	124	-
17	8230	냉장고	151	-1.7	116	-23.0
18	7112	펌프	117	34.5	116	-0.9
19	5290	기타가구	122	8.4	113	-7.6
20	8147	의료용전자기기	129	25.9	105	-18.8

9) 서남아시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14,722**	**-5.8**	**14,009**	**-4.8**
1	7420	자동차부품	1,613	2.5	1,276	-20.9
2	2140	합성수지	1,078	13.3	1,149	6.6
3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400	3.4	688	72.2
4	1336	윤활유	744	-6.0	668	-10.2
5	6133	냉연강판	577	16.7	536	-7.1
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89	19.7	470	21.0
7	2150	합성고무	419	-12.5	429	2.5
8	6134	아연도강판	319	7.0	331	3.6
9	6132	열연강판	452	-26.3	292	-35.5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94	8.8	213	9.7
1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98	11.7	198	-0.1
12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102	-66.5	191	87.7
13	7251	건설중장비	314	5.3	190	-39.3
14	7901	기타기계류	158	-0.4	184	16.6
15	8499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65	119.0	178	175.3
16	2521	신문용지	138	-33.7	172	24.1
17	2262	의약품	172	13.8	171	-0.6
18	7461	선박	366	-36.4	164	-55.0
19	2110	기초유분	210	55.6	162	-22.6
20	6261	아연괴및스크랩	135	16.8	161	18.8

10) 아프리카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9,185	-36.2	11,165	21.6
1	7461	선박	3,790	-57.4	4,058	7.1
2	7411	승용차	1,138	-15.3	1,122	-1.4
3	7462	해양구조물	0	-98.4	1,028	1459178.9
4	1332	경유	395	-20.3	997	152.2
5	2140	합성수지	485	-10.9	586	21.0
6	7251	건설중장비	231	45.3	208	-10.2
7	7412	화물자동차	215	4.6	201	-6.5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17	6.7	199	-8.6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94	23.0	196	1.2
10	4490	기타섬유제품	150	7.6	168	12.0
11	7420	자동차부품	113	44.6	129	14.0
12	8352	축전지	84	-9.6	101	20.4
13	2240	표면활성제	50	23.2	70	40.2
14	3203	타이어	72	24.2	69	-4.2
15	8211	칼라TV	101	-8.0	62	-39.3
16	2410	시멘트	88	-11.7	61	-31.0
17	7901	기타기계류	12	-25.6	60	391.9
18	6141	철강관	16	2.9	58	256.2
19	6152	철구조물	35	6.8	57	64.1
20	6261	아연괴및스크랩	68	84.4	56	-18.1

6. 2012~2013년 주요품목의 국가별 수출(상위 20개국)

1) 직접회로반도체(MTI : 8311)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3,838**	**0.8**	**50,479**	**15.2**
1	중국	14,496	13.7	18,540	27.9
2	홍콩	10,401	-1.9	11,037	6.1
3	싱가포르	4,940	0.6	5,531	12.0
4	대만	3,157	-35.6	3,347	6.0
5	미국	2,093	-13.0	2,586	23.6
6	베트남	2,074	208.0	2,541	22.5
7	필리핀	1,648	2.6	2,235	35.6
8	일본	2,099	-19.5	1,325	-36.9
9	브라질	640	166.6	998	55.9
10	말레이지아	543	-13.0	546	0.5
11	독일	333	-20.3	432	29.6
12	영국	277	-19.2	336	21.2
13	인도	197	11.4	198	0.2
14	태국	146	-21.8	193	32.3
15	오스트리아	184	14.5	88	-52.1
16	멕시코	60	-59.9	69	16.6
17	네덜란드	37	90.1	68	82.4
18	카나다	36	-73.4	60	64.2
19	폴란드	65	-33.4	49	-25.4
20	인도네시아	74	36.4	47	-37.1

2) 승용차(MTI : 7411)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2,388**	**3.6**	**44,283**	**4.5**
1	미국	10,313	19.5	12,113	17.5
2	러시아	3,119	17.0	3,317	6.4
3	사우디아라비아	2,241	29.6	2,615	16.7
4	카나다	2,167	27.6	2,227	2.8
5	호주	2,114	0.2	1,964	-7.1
6	독일	1,224	11.4	1,885	54.0
7	중국	1,512	-35.0	1,728	14.3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8	칠레	1,038	3.8	1,047	0.8
9	영국	961	62.5	1,032	7.4
10	요르단	901	23.3	831	-7.7
11	이라크	779	16.0	725	-6.9
12	프랑스	668	-14.1	682	2.2
13	아랍에미리트 연합	754	-3.8	661	-12.4
14	남아프리카	723	-21.3	619	-14.4
15	브라질	1,058	-51.7	580	-45.2
16	리비아	611	731.4	522	-14.5
17	페루	512	44.2	504	-1.5
18	멕시코	669	8.9	496	-25.9
19	이스라엘	430	-17.4	483	12.4
20	오만	462	23.3	481	4.0

3) 선박(MTI : 7461)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7,346**	**-31.0**	**34,002**	**-9.0**
1	마샬군도	3,930	-44.1	7,449	89.5
2	싱가포르	5,252	-4.0	4,324	-17.7
3	라이베리아	3,786	-48.7	3,501	-7.5
4	파나마	3,421	2.9	2,945	-13.9
5	버뮤다	1,366	-14.3	1,595	16.7
6	노르웨이	882	99.1	1,375	56.0
7	중국	29	-71.2	1,236	4,113.5
8	헝가리	-	-	1,068	-
9	바하마	792	-58.0	984	24.3
10	덴마크	-	-	934	-
11	몰타	2,577	14.7	714	-72.3
12	독일	1,438	-46.6	706	-50.9
13	홍콩	3,785	28.9	701	-81.5
14	그리스	1,555	43.5	667	-57.1
15	멕시코	35	-94.5	623	1,658.00
16	스위스	87	-88	593	584.3
17	남아프리카	-	-	552	-
18	영령 버진군도	1,069	48.7	504	-52.8
19	영국	553	-53.5	432	-21.9
20	프랑스	65	-97.5	377	477.6

4) 평판디스플레이(MTI : 8361)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135**	**-0.1**	**27,387**	**-9.1**
1	중국	19,972	1.1	18,039	-9.7
2	멕시코	2,281	-8.6	1,959	-14.1
3	폴란드	1,534	-16.0	1,330	-13.3
4	슬로바키아	1,873	36.7	1,110	-40.7
5	홍콩	1,073	-15.8	1,001	-6.7
6	브라질	839	47.0	863	2.8
7	베트남	408	126.8	743	82.1
8	터키	167	11.7	423	153.6
9	말레이지아	317	-48.3	390	23.2
10	이란	331	122.3	220	-33.5
11	헝가리	360	28.5	195	-46.0
12	대만	89	110.2	191	114.1
13	아르헨티나	59	4.5	107	82.9
14	태국	54	-47.9	107	96.1
15	인도네시아	59	-22.2	103	75.2
16	미국	70	-56.1	90	29.9
17	인디아(인도)	91	-17.2	85	-6.4
18	일본	100	-73.0	82	-18.6
19	이집트	45	19.3	61	33.7
20	체코공화국	56	-25.2	48	-14.4

5) 자동차부품(MTI : 7420)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4,610**	**6.6**	**26,079**	**6.0**
1	미국	5,642	12.4	6,163	9.2
2	중국	4,458	1.3	5,570	25.0
3	러시아 연방	1,645	21.4	1,637	-0.4
4	브라질	1,116	72.6	1,504	34.7
5	인디아(인도)	1,594	2.7	1,252	-21.5
6	슬로바키아	899	-13.7	929	3.3
7	체코공화국	941	12.2	900	-4.4
8	멕시코	796	13.9	863	8.3
9	우즈베크	790	5.4	820	3.9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0	일본	781	12.7	801	2.6
11	슬로베니아	683	24.6	498	-27.1
12	아랍에미리트 연합	349	-4.9	415	19.0
13	독일	322	-19.2	393	22.1
14	터키	311	-6.7	382	22.8
15	호주	287	-11.6	279	-2.5
16	태국	407	52.6	270	-33.8
17	베트남	220	-25.9	250	13.6
18	카나다	229	7.6	236	3.2
19	이집트	212	26.1	179	-15.6
20	대만	239	20.9	168	-29.8

6) 합성수지(MTI : 2140)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558**	-	**21,369**	**9.3**
1	중국	7,113	-3.6	7,726	8.6
2	베트남	882	8.5	1,136	28.7
3	홍콩	1,099	-8.4	1,070	-2.7
4	인디아(인도)	873	17.6	916	4.9
5	일본	878	2.4	831	-5.4
6	터키	395	-8.9	736	86.0
7	미국	604	27.1	730	20.9
8	인도네시아	603	4.7	639	5.9
9	러시아 연방	578	-1.0	518	-10.4
10	태국	411	17.6	437	6.3
11	이란	690	27.5	399	-42.2
12	이탈리아	285	27.7	385	35.1
13	멕시코	391	17.9	362	-7.3
14	브라질	261	-17.9	322	23.4
15	말레이지아	264	-11.8	294	11.5
16	대만	264	-4.4	263	-0.6
17	나이지리아	177	-25.6	248	40.2
18	벨기에	172	50.1	232	35.1
19	독일	203	3.7	216	6.5
20	페루	129	3.3	180	39.0

7) 경유(MTI : 1332)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2,682**	**12.5**	**20,586**	**-9.2**
1	싱가포르	6,078	56.4	6,370	4.8
2	대만	2,027	2.6	2,586	27.6
3	호주	1,933	115.2	2,219	14.8
4	인도네시아	3,827	-19.4	2,117	-44.7
5	말레이지아	1,417	1,815.0	1,673	18.0
6	홍콩	1,442	59.1	888	-38.4
7	네덜란드	134	-83.7	844	530.6
8	필리핀	978	71.8	749	-23.4
9	일본	806	-19.6	473	-41.4
10	남아프리카	263	133.8	416	58.3
11	앙골라	-	-	366	-
12	중국	1,071	-30.7	331	-69.1
13	뉴질랜드	173	1.9	225	29.7
14	베트남	574	4.2	194	-66.1
15	우루과이	-	-	162	-
16	방글라데시	264	39.0	127	-52.0
17	불령 폴리네시아	151	8.9	117	-22.8
18	사우디아라비아	149	292.4	101	-32.3
19	중앙아프리카	44	-88.5	94	113.4
20	마다카스카르	-	-	92	-

8) 무선전화기(MTI : 8121)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097**	**-19.8**	**13,175**	**8.9**
1	미국	4,440	-45.1	5,881	32.5
2	일본	2,341	26.0	1,347	-42.5
3	독일	534	40.2	715	33.8
4	카나다	163	-58.9	662	305.7
5	프랑스	533	81.7	561	5.1
6	아랍에미리트 연합	456	20.5	551	20.7
7	홍콩	426	172.4	430	1.1
8	영국	412	48.9	324	-21.4
9	멕시코	111	-54.2	294	164.4
10	네덜란드	105	10.2	279	166.6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1	스페인	213	26.5	224	4.9
12	이탈리아	160	0.2	209	30.5
13	스웨덴	197	84.4	207	5.0
14	러시아 연방	203	30.8	124	-38.6
15	말레이지아	157	187.7	109	-30.3
16	대만	116	53.6	101	-12.9
17	호주	224	34.4	98	-56.3
18	싱가포르	148	126.8	95	-35.4
19	인디아(인도)	97	-75.1	93	-4.3
20	터키	59	71.1	86	47.1

9) 제트유 및 등유(MTI : 1333)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540**	**7.7**	**11,801**	**-5.9**
1	중국	3,792	-5.8	3,323	-12.4
2	미국	1,885	22.0	2,553	35.4
3	일본	1,921	6.4	2,258	17.6
4	네덜란드	1,741	633.8	1,343	-22.8
5	홍콩	1,357	-7.8	682	-49.8
6	프랑스	-	-	417	-
7	호주	287	110.7	363	26.2
8	영국	201	16.5	210	4.3
9	필리핀	141	43.5	154	9.4
10	칠레	43	4.6	149	243.5
11	괌	123	29.9	124	0.6
12	싱가포르	295	-50.7	121	-59.1
13	말레이지아	1	-65.3	40	6,636.90
14	불령 폴리네시아	31	-7.3	25	-20.1
15	앙골라	-	-	17	-
16	바하마	-	-	10	-
17	뉴질랜드	-	-	8	-
18	대만	6	-90.2	5	-20.7
19	키리바티	0	-	0	-4.0
20	파나마	0	-	0	-37.6

10) 무선통신기기부품(MTI : 8128)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2		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021**	**-16.8**	**11,608**	**44.7**
1	중국	3,792	-7.9	5,026	32.5
2	홍콩	1,162	11.5	1,605	38.1
3	베트남	814	-36.4	1,526	87.6
4	브라질	601	-42.2	983	63.5
5	미국	586	27.4	975	66.3
6	일본	255	78.2	384	50.8
7	인디아(인도)	100	-66.9	191	90.3
8	아르헨티나	65	-26.6	151	131.5
9	멕시코	38	-69.8	86	127.7
10	오스트리아	40	13.9	80	99.9
11	대만	78	22.7	72	-7.7
12	네덜란드	61	-6.8	68	11.5
13	폴란드	76	-20.4	63	-16.7
14	영국	15	-16.6	35	140.2
15	인도네시아	37	-2.9	32	-13.9
16	싱가포르	30	9.4	29	-1.4
17	독일	25	-30.5	27	6.2
18	태국	26	-24.0	25	-5.0
19	프랑스	11	-38.8	23	116.7
20	말레이지아	20	-1.2	23	13.9

작 성 자

산업연구원	하병기 선임연구위원
	조 철 선임연구위원
	김양팽 연구원
KOTRA 정부3.0추진팀	전춘우 팀장
	서진영 전문위원

* 산업연구원 공동작성

Global Market Report 14-037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둔화 요인과 시사점

발 행 인 | 오영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10월 07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